

ISSN 1226-9638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2

제31권 제1호 통권 33호



大韓齒科醫史學會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년 10월 7일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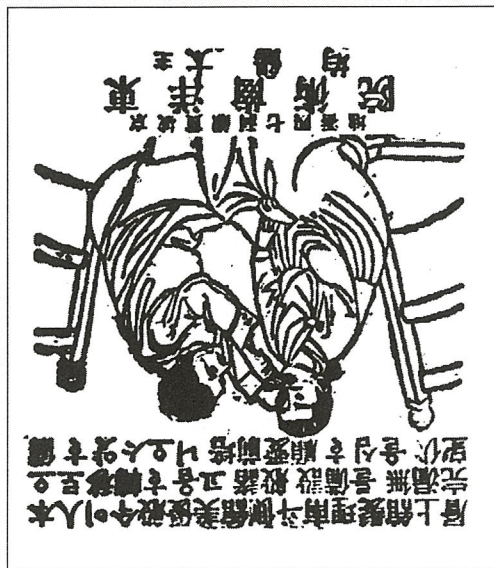
ISSN 1226-9638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12

제31권 제1호 동권 33호



大韓齒科醫史學會

Korean Academy of the History of Dentistry

1960년 10월 7일 창립

[표지 그림]

“공인이 문명 우미관 측 두 단이 발관 사증으로 이권하용고 제란 침미를 무부(無部) 한미하엿
사오나 배전 애고(愛顧)하사름 복만(伏蒙). 경서 관월동 74면지 도양 지승원(東洋 齋術院)
주(主) 태석관(출처: 조선일보 1920.6.16. 2면)

평등 세우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회가 직면한 현안을 열린 마음으로 성찰하고 다양한 관례의 성취를 소중히 모아 새로운 지
 몸과 고마움 마음은 간절합니다.
 임하면서 권이 있는 내용의 권한 원고를 보내 주신 권 교수님과 한상국 선생님, 두 분께 반가
 이번 학회지에 응고를 게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용해 새롭이 회원으로 가
 니다.

내 11개 치과대학·치위생전문대학원 치과의사학 단당 교수님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었습
 몇 치의학사 연구 동향 등의 연계 발표와 더불어 『치과의사학 교안(敎案)』이 발간되었습니다. 국
 지난 6월, 치과의사학 교과과정개편을 위한 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의학사
 단 2011년에 시작된 변연이 이제 내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역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를되어 채택된 이 나라 킷과계에 임대 광명을 가져올 "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꼭 50년이 지
 에 대한 관심이 여러 동지들에게 번져지기를 바라며... 나아가 한국의 「포스트」가 여기저기서 배
 장학생 제도」를 창설하고 "우리나라에도 하루속히 「外科齒科醫」가 번역되어지고 「포스트」씨
 우리 학회의 모태인 대한치과외과학사연구회는 1961년, 피에르 포스트 200주기를 맞아, 포스트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동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를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학회 안팎의 제반 조건은 결코 녹녹치 않습니다.
 어 합분하여 52년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역사와 임상이 어우러진 종합학술대
 롱해 우리 학회는 「대한치과외과학사연구회지」제1권(1960년) 이후의 학회지 권권을 4권로 나누
 의 요구에 부응하는 응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주연, 대한치과외과학회지, 2011: 30: 10-12)
 갖게 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가치를 판단하여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며, 인문사회학적 소양과 사회
 는 토대이며,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인문사회치의학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통찰력을
 인문사회치의학의 총론과 권장이인 치과의사학은 치과의사의 정체성과 전문적역성을 실현하
 설립하고 전임교수를 임용하였던 것입니다.

학 전임교수를 임용하였으며, 또한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인문사회치의학교실을
 하반기 들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동원주대학교 치과대학에서 국내 최초로 인문사회
 니다.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전임교수가 전무한 열악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
 를 개선했습니다. 국내 치의학계의 인문사회학 및 의료윤리학 교양이 의학과와 미국 치의학계에
 2012년 초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포럼

회장 조영수

권 누 권

권 두 연	Preface		
회 장 1	President		
5	이주연	Lee, Joo-Yeun	한국 치과의료공리의 역사적 흐름 Historical Flow of Dental Ethics in Korea
22	신재의	Shin, Jae-Eui	1907-1908년 치과전문학교를 수학한 김영재 Kim Young-Jae who studied at Dental College during 1907-1908
30	손우성	Son Woo-Sung	서양 근대 치과교정학의 발달 Development of Western Modern Orthodontics
43	정인표, 손우성	Jung In-Pyo, Son Woo-Sung	턱교정수술의 발달 Development of Orthognathic Surgery
51	권 훈	Kwon Hun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유럽여행 Trip to Europe through the History of Dentistry
77	한상국	Han Sang-Guk	치아와 언어 Teeth and Language
100	아나스트 피셔, 신유석 역	Earnist Fisher, Shin You-Suk	부츠와 맥물린의 백두산 탐험 Boots and McMullin's Expedition to Baekdu
107			학회 활동 Academic Activities
109			단원 명부 List of board members

한국인 치과의사면허 제1호(1914.2)를 취득한 함석태는, 我輩을 구강위생상의 주의 부족'을 안타까워하며 "자기 영업 이외의 치과의사로서의 사회봉사적 어떤 노력이라도 사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단체였던, '한성치과의사회'를 비롯하여, 해방 이후 건설된 '조선치과의사회'도 매년 구강위생 강조주간을 두어 전국의 치과의사들이 무표 구강검사사와 유적되지, 구강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1960-70년대에는 무치의존 무표진료봉사, 의 표보협체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도시빈민과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표 보철 치료로 이어졌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영세 외국인 근로자, 태복 및 해외 치과진료 불

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치과의사들이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만 문호를 개방 하면서 부터이다. 서양인 선교 의사와 치과의사, 일본인 치과의사들에 의해 치과진료가 시작되었 다. 한국에서 최초로 치과학 교원을 개설(1915)하고 제브란스연합의학교 치과 초대과장을 역임한 체프리는 미국인 선교치과의사였다. 체프리는 가난하고 치과에 대해 무지한 한국인들에게 가해졌 던 일본인 치과의사나 임치사들의 상업적 관행을 비판하고 치과의료공리에 따른 진료물품을 정립

1. 머리말

1. 머리말
2. 치과의사와 무면허의료업자간 관등에서 치과의사간 관등으로
3. 공인된 치과대표사용 및 의표의 질 향상에 관한 의무
4. 정부 주도의 의표자원 분배의 문제
5. 전문직업성 향상을 위한 치과의료공리

한국 치과의료공리의 역사적 흐름

이주연

원감하는 이틀은 바로 치과의사들이다. 치과의사 내부의 공리적 규범이 무너지는 곳에 상형적인 정형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공리수준을 높이고 원용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수 있다는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있다(치학신문, 2012.08.29).

표인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권과 행복추진권, 직업선택의 자유 권은 기본권까지 침해할
 것이다. 이 경우 상단수의 치과의사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과도한 의료법제화가 의
 료 의료법, 운영거래법 등의 법에 대한 해석이 응물하고 부처 간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심사평가원의 행정적 규제는 치과의사들의 자용적인 의료행위를 견제한다. 문제는 정부 시책에 따
 행)에 이르기까지 의료인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과도한 법적 의무와
 부가 제정된 '치과의사규칙(1914)', '치과의사규칙(1914)', '치과의사규칙(1951)', '의료법(1962)', '개정의료법(2012.9.1 시
 료법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건강보험심사기준이나 행정처벌도 강화하는 것이다. 의료법은 종속
 섹제는 의료인 관리와 의료행위의 통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의료
 단 의료시각개만 축이 한 원이다.

보험사를 통한 관리의료(manged care)를 증가시킨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아적인 담보상태이지
 다. 반면 치과의사에게 영리의료법인의 응장은 소규모 개인의료의 경제력을 떨어뜨리고, 민영의료
 화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 요구에 대한 국가의 보건복지정책의 압박을 줄일 수도 있
 료, 영리법인과 같은 자본의 힘을 빌려 의료산업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민영의료보험 활성
 적'으로 내몰았다(치의신문, 2012.5.21).

다루기보다는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치과의사들을 '밥그릇 싸움'만 하는, '공공의
 파하기로 결정한 것(2012.4.27)을 들 수 있다. 언론도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깊이 있게
 위원회가 용디치과그룹과 관련해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
 광고와 가격 담보를 허용하는 것은 치과의사간의 연대를 깨뜨리는 효과가 있다. 그 예로 운영거래
 칩, 의료광고 및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허용하여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의료에 있어서
 정부 기관들은 각 부처의 입장에서 치과의사를 통제하려 한다. 통제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하는 소비자 입장이다.

나면 환자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한 것인지, 의료행위에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따지고 최종판단
 근데 돌러본 뒤 결정한다. 국민은 치과의사의 진단과 치료계획이, '돈'을 먼저 생각한 것인지 아
 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는 치과의사가 임플란트로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며, 치과는 꼭 몇
 각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질 수 없게 되었다. 국민들에게 치과의사는 고소득을 보장 받는 기득권 집
 사법·행정부, 언론, 국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치과의료공리도 더 이상 치과의사들의 시
 게 치과의사들의 윤리의식이 그다지 높다고 인식되지 못하는 듯하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영법·
 그런데 이렇게 많은 치과의사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구성원들에
 양한 형태로 봉사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사로 이어져 현재도 상단수의 치과의사, 치과대학생, 치과위생사, 기공사 등의 치과의료인들이 다

치과의사단체를 결성하였다. 조선치과의사회(1921)는 임치사를 단속하고 임치사 제도외 치과의사사
 치과의사들은 임치사를로부터 치의권을 보호하고, 의사와의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기 위해
 인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구강병을 치료하는 의원이 아니라, 근이나 틀니, 장식치아를 해 놓는 상업적인 시술소 정도로 오
 나, 아예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치과를
 만 법규제와 타인 임치사의 상당수가 도시에 개원하여 값싼 보철물로 치과의사와 경쟁을 벌이거
 정하였다. 임치사는 개인 영수증과 기간을 제한하고, 광고와 치과의사와의 분쟁은 금지하였다. 하지
 을독부가 공포한 임치사업규칙(1913)은 임치사들의 진료 영역을 탈치와 임치, 응급치과로 구
 (1909)'라는 포임을 결성할 이유는 임치사를 견제하고 치과의사의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와 보철치과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론에 거주하는 일반인 치과의사 5명이, 경성치과의회
 (1906)되면서 일본에서는 불법화된 임치사들이 조선에서는 치과의사와 별 구별 없이 간단히 탈치
 개항 조 일련의 치과의사와 함께 임치사들이 조선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치과의사법이 제정
 대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리나라 국민마다수가 치과의사에게 치과 치료를 받게 된 것은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1980년
 의료법 상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 지도를 의무로 하는 전문직업인이다. 그러나 우
 1) 치과의사와 임치사 및 무면허 의료업자와의 갈등

2. 치과의사와 무면허의료업자간 갈등에서 치과의사간 갈등으로

법·제도의 개선점들을 중심으로 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 문제, 전문직업선 향상 등을 위한 치과의료관리 확립에 관해 역사적으로 선제했던 갈등 사례와
 의사간 갈등으로 변해가는 과정, 공인된 치과재료 사용에 관한 의무, 정부 주도의 의료자원 분배
 리적 재점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치과의사와 무면허의료업자간 갈등에서 치과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의 치과의료 현실에 입각한 공
 약, 행정적 편의에 따라 무책임하게 방치되거나 명목적으로 재단되고 있다.
 선된 강령이어야 한다. 그러나, 치과의료의 현실은 치과의료관리보다는 시정관리와 정치적 운
 아니라, 국민구강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이다. 따라서 치과의료 관리의 핵심은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에 근거한 자율적인 행위규범일 뿐
 치과의료의 관리는 구강병 예방과 치료를 통해 구강 및 전신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
 다. 치과의사의 전문적 영역에 대해 의사와 임부 영역에 대한 법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 파업문란에 따른 경영 약화는 파장광고와 환자유인, 파업진료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니기 쉽
 지역 목표를 존중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해방 이후 가장 많은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치과의
 파 과도한 법제화와 각종 불신 사태가 침범해 들어오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치과의사 선·후배와

1960년대 후반 치과의사 수의 1/5(500명, 1969)이 서울에 있고, 각 도를 치과의사 2-3명이 담당하는 수준이었다. 치과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총 국민의 3% 내외에 지나지 않았다.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으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났으나, 국가적인 치과의사 수급 증대나 보건소 배치는 소극적이었다. 돌핀이들은 도시로 나와 보다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평소에는 치과의사에게

를 재개하기도 하였다. 1960년대 후반까지 대다수 국민이 정식 치과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만큼 공립했다.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도 적어 치과의사회 회비도 제대로 건지지 않았다. 둘째, 유아층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치과의사 수와 의료시설이 부족했다. 셋째, 면허를 대여해주는 치과의사도 많았다. 북한의 치과의사 면허(옛셀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면허를 대여해 야간진료를 하고, 돌핀이들은 자택 안방에 기구와 장비를 설치하고 보철치료를 했다. 넷째, 무면허 의료업자에 대한 단속과 법적 처리가 미약했다. 의사 단체가 단속을 나가면, 무자격 의료업자들이 인정에 호소하여 법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행정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행정조직이 미약하여 큰바포 영업

치과의사로 승격시킨 정부의 조직은 약자보호와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법처리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하지만, 치과의료의 균질화를 위해 입치사를 한지리적인 행동이었다. 당국의 행정착오와 부정이 개입된, 입치사면허담당사건'에 대한 정당한 의사제도의 철폐를 요구한 점은 국민구강건강 및 치과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점에서 높은 치과의사들이, '물량보충률의 상전화'를 경계하고, 단체를 결성해 70여 년간 입치사 및 한지치과가 아니라, 도제식으로 기층을 흡수한 전근대적인 입치사가 합병화된 것은 일체의 식민잔재였다. 첫 한국인 치과의료인력으로 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치과의사시험을 치른 근대적인 치과의사 지 치과의사로 승격되었다. 1985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한지치과의사가 치과의사로 단일화되었다. 영업자 면허부조원들 12(1960.1.15)시켰다. 그 후, '임시조치법'(1968)에 의해 입치사들이 한으로 문제가 되었다. 보사부가 입치영업면허를 갱신교부(1958)하자, 직협은 반대 투쟁을 벌려 입치 무국장을 고발(1947. 5. 5)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지속적 1948.3) 중 선제로 입치영업자는 20명뿐이었다. 소위, '입치사면허담당사건'으로 치과의사들이 치하고, 한지치과의사로 승격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한지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172명(1946.6, 해방 이후 미군정 산하 보건후생부는 치과의사 부족을 메우고자 입치영업자의 기능을 인정

였다. 의사 단체인 한성치과의사회(1925)는 한국인 구강보건계몽과 친목도모, 치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 치과의사가 의사법 위반으로 고발되자(1927) 치과의사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하였다. 한국인 치과 생계모형들과 무료구강진진을 하였다. '치조운동'이 생긴 매독환자에게 매독치료제를 정맥주사하 는 치과의사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회활동도 강화하고, '호치림(護齒日)'(1926~)을 정해 구강위 힘제도의 폐지하도록 행정당국에 건의하면서 내적 결속을 다져 나갔다.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

인행위 금지안이 마련되었다.

의료보험이 전국민에게 확대되던 1980년대에도 비보험 종복에 해당하는 보철치료의 상당수가 기공사나 틀짚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치과외사의 면허 대여나 자본주에게 고용된 치과외사도 저속적인 문제가 되었다. 1981년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표인이 개설한 의표기관 안에서 의표기 사, 사무장, 담자간호보조원 등이 하는 의료행위, 그림자·신체부자유자인 의표인인 개설하고 무면

허가 받은 치과기공소 2곳 이상 개설 금지, 허위 및 과대광고 금지, 치과기공소 고객 암선, 소개 및 유 위험한 치과기공사는 면허취소를 비롯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금지 사항으 정양안에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외사가 요구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적이 보완 후, 결국 지도치과외사제도는 폐지(2011. 4. 5. 의표기사 등에 관한 법률) 되었다. 개 였다. 그러나, 지도치과외사제도'의 실효성이 적고, 기공사협회의 반발이 있어 수 차례 시행구 대한 치과재료 유통 감시 및 감독을 위한, 부정의표행위 근절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1989)하 제작의뢰서를 발행하여 기공소가 3년간 보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리드카인과 양지네이트 등에 그러나 1980년대 후반까지 치과기공소를 통한 불법 보철물 유통이 지속되었다. 치협은 치과기공물 복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때 지도치과외사를 두도록 했다(1974. 3. 31. 의표기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치과외사 용량량도 제정하였다. 치과기공사들에 의해 불법적인 치과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도 하고, 치무국과 치무계를 두어 놓아준 국민보건향상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치협은 올바른 의표의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표의표보조인력에 대한 법제화를 주도 해 나갔다. 의표보조원법이 제정(1963)되면서 치과위생사와 기공사가 별적인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 다. 치과위생사 양성인 자격(1965-)되고, 제1회 의표보조원 국가시험에 합격한 치과기공사들이 대 한치과기공사협회를 결성하였다(1965.7). 1971년도 치협 집행부는 기공소 개설양성과 보건소 치과 증원, 치과외사 수급부족으로 인한 구강보건관리 부족을 지적하고 대구와 광주에 치과대학을 신설

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다.

무의면 이동진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별지 위주(83%)였고, 무의면 인구의 0.5%정도만 포괄 근면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했다. 치협은 박정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새마을 진표사업의 일환으로 향릉 등 강령한 것이었다. 그러나, 적정한 의표공급'이 아닌 통제일변도의 부정의표업자 단속은 상의 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병과' 하며, 재범자는 특수가중처벌조 건법적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8.4)도 제정되었는데, 부정의표업자에게, 무기 또는 2년 이 했다. 1969년 상반기(1-6월)에만 가짜 치과외사 118명, 가짜 한지치과외사 2명이 적발되었다. 보, 득표용을 의식해 국가적인, 부정부패 원소'의 일환으로 부정의표업자를 엄중히 단속하기 시작 주민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5.3대선 당시(1967)의 낮은 틀짚이가 대형치과외원을 경영하기도 하였다. 북중에서는 틀짚이들이 마을 유치로 대침을 받으며 었다. 야간 기공단속에도 공무원과 협조가 되어 문이 단혀져 있었다. 영등포나 서용역 등지에서 면허대여표만 저급하다가 단속이 나오거나 위급할 때 치과외사를 데려다가 진표를 시키는 방식이

이와 더불어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인증 시험제도(2009.4.19, 제1차)도 마련되었다. 의료법 (2010.1.18 개정) 제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치과전문 간호조무사의 법과 위생에 관한 업무이다.

이 다름과 같이 확대되었다.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플스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치과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012.5.22)으로 치과위생사의 구강진료보조 영역에 포함되었다. 그 결과 사건예보제가 도입되고,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허용(2009.3.5)되었다. 개선 요청 민원을 제출하였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검사의 사전예보제도 도입도 다. 치협은 국민권익위원회(2008.12.8)에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와 세팔로 촬영허용을 위한 제도 이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치과보조인력이 연수와 시험을 통과하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는 하에 구내와 구외 X-ray 촬영을 모두 할 수 있으며, 조무사는 5년마다 특별한 교육과정을 받으면 많은 개원의가 방사선 촬영에 어려움을 주었다. 독일의 경우 치과조무사는 치과의사의 그러나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만 구내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간호조무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구강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구강 내 침착물인 진표조작을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치과위생사도 반드시 치과의사 이 있고, 치과보조인력을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치과보조인력(정)해졌다. 세계치과연맹(FDA) 윤리현장에 의하면 치과의사는 치과치표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간호사(치과위생사포함) 정원의 100% 이내로 간호조무사로 응답하는 것이 가능(1994.1.7 의표범에서는 치과의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치과위생사 수급이 부족해졌다. 치협의 노력으로 의원급에서는 1990년대에는 치과의사 수가 1.8배로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치과진료건수도 50% 증가하였다.

정를 강화(1994.1.7)하기도 하였다. 다. 무면허의표행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별칙규(하반기는 39건이었다. 부정치과의표행위자를 단속한 경찰과 보건소 직원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하였(위반 4건, 진표과실 2건, 적률추적리위반 2건)이 지정되었다. 1993상반기 자용지도실적결과 22건, 여, 대전 등 부정 치과의표 행위 추방활동을 하였다. 1990년도 자용지도실시로 지도치과의사의무(강화하였다. 협회 자용지도 운영규정제정(안)을 수립하여 보건사회부의 승인(1990.6.4)하에 면허대(정(안)을 제정(1988.3.8)하고, 치협 정계규정 제4조, '정계의 종류'에 '권유휴업'을 삽입하여(반에는 각도 치과의사회별로 '의표감시 자용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의표단체 자용지도 운영 규(행정 단속과 법률강화를 요청하고, 국민구강보전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 홍보하였다. 1980년대(하는 면허대여 행위 등을 발본색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치협은 부정치과의표행위의 실태를 파악하여(표인, 신규의사 면허취득 후 해외취업이나 유학을 계획한 의표인이 고용주에게 의표행위를 하게(하에게 의표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의표기사를 소위 자본주에 고용되어 의표기관을 개설한 의

의약품광고에 대한 규제부처마다 달랐기 때문이었다. 금지되는 의약품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해석이 관례부처마다 달랐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항은 대물령령으로 정한다'로 변경되면서, 치험내 의약품고심위원회의 역할이 무력해졌고 판리 개정 의약품(2007)에서는, 금지되는 의약품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약품고에 관하여 판고의 범위 기타 의약품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구의약품(개정 1997.12.13)'(2007. 4. 6)에 따라 치험내 의약품고에 대한 사전심시기구가 마련되었다. 의약품부에 관한 판정에 대하여 위원결정을 내렸다. 개정 의약품(2007. 1. 3)에서는 광고를 허용하고, 의약품 시행령 의약품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2005.10.27.)가 구 의약품상 광고금지에 관한 규정 및 처벌규

격단평를 통한 환자유인, 파잉진료로 전전한 의표경쟁의 질서가 파괴되는 양상이 빈번해졌다. 대부문의 치과진료수거는 제자리였다. 경영불안은 치과의사간의 경쟁을 가속화시켜 과장광고와 가다는 연구 결과(2009)가 보고되었다. 그 동안 소비자 불가는 43% 증가했으나, 임플란트를 제외한 분포는 병원 14.2%, 의원 81.3%, 보건소 4.5%였다. 2010년에 치과의사 303-1,090명이 과잉 공급된 2007년도에는 치과병원이 151곳, 치과의원은 13280개소로 폭증했다. 2008년 한국의 치과의사들의 치과의료기관도 고도화되어 1997년 국내 치과병원은 21곳, 치과의원은 9,222개소였던 것이,

였고, 보건복지부도 의표기관에 대한 대행화, 신의표기관에 대한 발전, 외국인 유치를 추진하였다. 태로 준재해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경쟁경제부를 중심으로 의표서비스 산업화를 추진하 표를 할 수 있고, 노동기출 진약적인 소규모 자영업적 성격이 강하여 1인 1개소의 개인위원의 행 과의표는 치과의사 1인이 덴탈 유니트 웨어 1대에서 환자의 구강안안면 부위에 대한 포괄적인 진 립부 네트워크 치과의 상업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주된 관을 요소로 등장하였다. 오랫동안 치 21세기에 들어와 한국 치과의료분야는 불운정마케팅에 관한 치과의사간 갈등, 사무장치과나

2) 치과의사간 갈등

가 되었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진찰은 부족하였다. 따라 법적 처리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 치험이 무면회치과의표행위를 근원하러 노력해 온 것이 주 한계도 불명확해 의표현현에 일각한 윤리적인 함의적이며 합리적인 법제화도 필요하다. 면허나 자격 유무에 형이 확대된 이후에는 기공소를 중심으로 불법보철물이 유포되기도 하였다. 치과보조인력의 영부 계, 구강보건에 대한 낮은 인식과 높은 치표비가 불법의표행위가 만연했었던 원인이었다. 의표보 되었다. 70년대 말까지 국가적인 치과의사 수를 몇 문중구강보건정책회의 부축, 형식적인 단속과 을 이상과 같이 해방 이후 무면회 치과의표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 수여와 불평이들로부터 시작

를 구할 수 없는 치과에서 치과의사가 모든 방사선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규격이지 할 수 있는 업무와 법적 제한에 대한 현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필요하다. 치과위생사 힘을 통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없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 업무한계가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구내 방사선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고, 일정 교육이나 시

이러한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집중적으로 전표하는 치과병원과 네트워크 치과들이 생겨나면서 치과의료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까지 치과의료의 기술집약적인 특성상 집중적인 대규모의 병원이나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라는 독립성이 인정되는 유형의 네트워크 치과를 만드려고 해서 생산성 향상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대중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던 임플란트의 수가인하는 그 접근성을 높였다. UD 치과그룹의 경우, 사업자인 치과 의사 1-2인이 120개의 치과를 소유하고, 200여명의 치과 의사를 고용해, 2011년 한 해 동안 약 4500여 명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 치과의사전체(25,502명)의 약 1%에 못 미치는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 전체 수익의 10%를 창출한 것이다. 이것은 2000년대 중반 영국에서 400여개의 치과

1971년 스웨덴 브레네마이 개발·생산하기 시작한 임플란트는 1982년 드론도 학회를 통해 학회적으로 인정받았다. 2002년 미국의 임플란트 수가에 500만 원 정도로 고가의 신의프기들이었다. 2006년 전세계 임플란트의 80%가 북미와 유럽에서 생산되고 소모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외산 임플란트를 사용했으나, 2006년에는 국내 임플란트 내수 점유율이 70%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임플란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산 임플란트의 경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수가 형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치과별·의원별의 낮은 개폐율은 임플란트 수가의 분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과대광고와 가격덤핑에 관한 치과의사간 논쟁은 치형 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나 치과협회 내부에서 자체 정화되지 못한 채 사회문제로 증폭되었다. 특히 고수가의 신의프기들로 1990년대 초에 한국에 도입된 임플란트 진료가 2000년대 중반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치과의사와 국민 간, 치과의사와 치과 의사 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다. 1971년 스웨덴 브레네마이 개발·생산하기 시작한 임플란트는 1982년 드론도 학회를 통해 학회적으로 인정받았다. 2002년 미국의 임플란트 수가에 500만 원 정도로 고가의 신의프기들이었다. 2006년 전세계 임플란트의 80%가 북미와 유럽에서 생산되고 소모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외산 임플란트를 사용했으나, 2006년에는 국내 임플란트 내수 점유율이 70%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임플란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산 임플란트의 경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수가 형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치과별·의원별의 낮은 개폐율은 임플란트 수가의 분화를 가져왔다.

다. 1971년 스웨덴 브레네마이 개발·생산하기 시작한 임플란트는 1982년 드론도 학회를 통해 학회적으로 인정받았다. 2002년 미국의 임플란트 수가에 500만 원 정도로 고가의 신의프기들이었다. 2006년 전세계 임플란트의 80%가 북미와 유럽에서 생산되고 소모되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외산 임플란트를 사용했으나, 2006년에는 국내 임플란트 내수 점유율이 70%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임플란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산 임플란트의 경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수가 형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치과별·의원별의 낮은 개폐율은 임플란트 수가의 분화를 가져왔다.

대한 사적계약의 원칙에 따라 2년간 사후보수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사와 환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보철물은 3년간 AS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기공사는 치과의사에 인 인플란트나 보철물 AS지침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윤리법에 근거하여 치과의 국의 경우 치과 관련학회가 먼저 환자의 건강상의 이익과 전문가적인 직권을 더해 보다 합리적 정도에 대한 협의내용이 타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인플란트에 대한 소비자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한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국가와 문화, 치과의사와 환자 개인간의 계약에 따라 사후보수책임과 관련 제, 인플란트에 대한 소비자문제해결기준이나 AS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치협이 먼저

관계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야한 비용과 보다 좋은 진료를 저렴하게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의 상관 개의 신의표기등인 인플란트가 체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치과의사로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투자해 의해 보도되었는데, 치협의, 전문가적 고찰, 에 대한 대국민적 해명이나 철늑은 부재했다. 그수 첫째, 인플란트 수가에 대한 치협의 윤리적 해명이다. 인플란트 원가 공개는 수 차례 언론에 치과계가 해결해야 한 몇 가지 과제를 넘겨주었다.

치과의사협회에 파장근, 등의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 불공정한 공정위 발표와 편파적 언론보도는 다, , 치협, 수백만원 인플란트 반값에 제공한 유디치과 왕따시켜, , 반값 인플란트 영영발해 부과함으로써 새로 공 국면을 맞았다. 언론들은 일제히, 인플란트 전제, 90만원, 반값, 이이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2012.4.27)가 유디치과 그룹과 관련 치협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파장근을 자의 구강건강과 복리를 훼손하고, 치과의사의 직업전문성을 손상시키는 행위였다.

에게 구강병의 진단과 치료계획에 대한 치과의사 그유의 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환 있는 기공소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진표보조인력 MBC PD 수첩(2011.8.16)에서는 인건비절감의 차원에서 무자격자를 채용한 유디치과 내부에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진표를 환자가 선택하도록 마케팅해온 것이다.

진표 등이다. 이런 방식으로 환자의 필요에 의한 진표보다는 적은 시간과 돈과 값싼 인력을 들여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잦은 페이닥터의 교체와 순회진표, 극단적인 인센티브 적용을 통한 파잉 등을 통한 환자 유인과 공급자유도 수요창출, 상업적으로 훈련된 사무장이나 진표보조인력에 의한 디파그룹에 근무했던 내부고발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치과공영방식을 보도하였다. 무표진표 KBS 1TV 시사기획 (2011.10.18)은 1-2인의 소유주가 다수의 의표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유 에 의한 상업주의적 요소의 확산으로 바라보았다.

이었다. 치협은 UD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를 의표기관 개설 및 경영 주체와 의표행위 주체의 분리 는 점차 낮아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였다. 2012년 미국의 인플란트 수는 약 \$ 1500-3000 가량 덩평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UD보다 낮은 인플란트 수가를 책정한 치과들도 많았고, 인플란트 수가 수익을 올린 것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것은 단순히 여론에서 보도하는 인플란트 수가 과의표범인에 고용된 1500여명(5%)의 치과의사가 영국 전체 치과 의사 총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를 풀어 나갔다. 아래에서는 한국 치과재료가 표준화되는 과정과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들을 중심으로
 파기가제의 물권관리와 규격화 및 유통에 관여하면서 점차 파기가제 표준화 기관으로서의 위상
 을의 기관마다 각기 달랐다. 치형은 해방기 치과재료 배급에서 시작하여 치과재료 수입 및 국산치
 못했다. 파기가제의 표준규격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산업자원부, 식물의약품안전청, 한국표준협회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공인치과재료규격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수 있다.

표준화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치과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뢰를 얻을
 소비, 유통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품질향상과 권질성을 유지시키고, 안정적인 상거래를 할 수 있다.
 대한 평권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뜻한다. 재료가 표준화되면 생산,
 사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파기가제 표준화 작업을 해왔다. 표준화란 치과재료의 질과 양에
 다. 선진국들은 미국치과의사협회(ADA, 1928-)와 일본치과재료규격조사위원회(1933-) 등의 치과의
 은 환자의 건강상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치과재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
 치과진료에서 공인된 재료를 사용하고, 치의학 전문문과학회에서 인정된 의료행위를 하는 것

3. 공인된 치과재료사용 및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의무

규율에 의해 지켜질 수 있도록 치형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며나 사무장 병원,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위임진료 등에 대한 치과의사 내부의 반성과 공리적
 마지막으로서 개정 의도법(2012)에 의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원칙의 취지가 치과의사의 면
 서 응급의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게 공명되어야 한다. 양심선언 및 내부고발을 계획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단체나 공리위원회에
 서 치과의사 내부의 고발과 양심선언을 수렴할 공리위원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포용성 있고 투명
 하지만, 양심선언, 등 통해 개인의 상명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면 그것은 대중적인 기만이다. 따라
 적으로 회생하면서 고발한 집단을 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기 전에 모든 내부 경로를 통해 이익을 제기해야 한다. 또, 양심선언, 의 결과로 자신이 자신을 현신
 이 마련되어 있다. 내부고발자의 행위 동기가 도덕적이어야 하며, 해당사실을 법이나 언론에 공개
 면 자신이 속한 직업집단에 대해, 내부고발, 이나, 양심선언, 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음과 같
 의 양심선언'이라는 파기가제판이나 의료광고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 직업공리에 따르
 넷째, 치과의사 내부의 양심선언에 관한 공리적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임플란트 수가
 판을 만들어야 한다.

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법 해석 차이를 치과의료공리 원칙에 맞게 재규율해나갈 수 있는 탈
 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후 공리위원회(2012년 개정 의도법, 제28조)가 윤정거
 셋째, 치형과 윤정거래위원회와의 등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윤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항의시위

이러한 정부의 치과재료수입규제는 197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치협은 수입제한품목을 완화 시키도록 노력하면서, 국산 치과 및 약품이 생산된 경우 세계치과연맹(FDI)의 규격을 따르도록 정관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1976)되고 있는 대부분의 금합금은 FDI규격에 미달하는 불량제품이었다. 치과의사들도 불안 식별이 어렵혀 무허가 금합금이 버젓이 판매되었다. 치협 자

기 때문에 치협 임원들의 리더십이 관찰될 수 있었던 사례이다. 당시자였다. 하지만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임상적인 평가를 거친 표준화된 재료를 사용하기를 원했 에 대한 불신이 풀이지는 사건이었다. 서울지방자인 이 모씨는 대한치과공업사의 사장이라는 이해 수되었다는 내용이 외부에 기사화되고, 고소조치가 따오므로써 치과계의 명예가 실추되고, 집행부 적인 치과재료수입금지 조치를 막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금품 및 뇌물이 수 이 사건은 치과의사들이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일방

철폐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치과재료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파동'의 전모다. 하였다. 그러나 각 도치과의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계약사의 해산명령을 받아 임시총회는 좌 습위원회는 치협 회장과 서울지방장은 사퇴하라는 요지의 유인물을 전국에 돌려 임시총회를 소집 성과 결백성을 밝히기 위해 이씨를 고발하였고, 이모씨는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수 문에 치협과 보사부업자간의 비리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기사를 실었다. 치협 이사회는 치협의 정당 석회의를 갖고 이 모씨와 공동해명서를 냈으므로써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그러나, 이 모씨는 약사신 금지 반대공동투쟁 명목으로 수표거래가 있었다고 의사시보에 대해 특필했다. 치협은 서울지방과 연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치협 임원 불신안건을 냈다. 또 치협 임원과 모 수입상 간에 치과재료 수입 협에서 지부를 경유하지 않고 회원에게 직접 문의하였고, 금수반대 결의 요망이라는 결의내용까지 지 반대를 결정하고 이를 막아냈다. 그러나 서울지방장이면서 대한치과공업 사장이 이 모씨는 치 상적 평가를 거치지 못한 것이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876대 2로 수입금 스팅 안포이, 메리트메탈 등 11종의 수입을 금지조치하려 했다. 대한치과기공의 제품들은 아직 1964년 보건사회부는 국산품 장려를 위해 대한치과공업에서 생산하는 메를재, 파라핀왁스, 캐 재료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파동'으로 나타났다.

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산품 치과산업 종사자대한치과의사협회 간의 갈등은 불거졌고, '치과 파기계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거나 검사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정부는 치과재료수입금지 조치를 통해 국산기자체를 육성하려 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국산품 치 은 1950년대 이후 보호무역정책과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자립도를 높이려 했다. 박정희 를 이유로 국산 치과기자체보다는 특관세를 지불한 수입 치과기자체를 선호했다. 이에 반해 정부 크리릭, 모텔링 컴파운드 등이 대한치과공업(株)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은 품질 낮후 지, 다이렉트, 에나 레진, 메를재, 파라핀 왁스, 바이오레진, 캐스팀 안포이, 메리트메탈, 수리용 에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대부터 국산 치과유니트가 제작되었고, 치과재료로는 정크세멘트, 레진 으로 공인된 치과재료 사용의 윤리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이사는, FDI규격에 맞는 금합금(noble 75%이상)으로 보사부 허가를 얻은 제품을 선택하거나, 치과의사가 각자 메탈과 혼합하여 사용' 하도록 하여 치과의료업계를 정화하였다. 저금합금의 원 용화도 이루어졌다. 1970년대 초 국소의치에는 크롬 코발트계(Co-Cr)합금이 주로 사용되었다. 국소 의치에 주로 사용되던 니켈-크롬계(Ni-Cr) 합금도 점차 도계소부전장관 제작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시판제품은 vitallium, Ticonium 50, HS21, Nobilium with Ga 등이었다.

1980년대 치협 재위원회는 치과기자기계 성분 분석과 규격접 발간을 통한 품질 관리, 국산 치 과재료 생산육성, 정부 관련 부처와 대한치과기계상공협회, 치과의사들 간의 정보 소통을 체계화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치과용 아말감과 석고, 치과용 인산아연시멘트 등 15편의 치과기계규격을 담은 규격집을 발간(1983)하고, 각국의 규격대비표를 작성하여 보건사회부 고시와 공업진흥청 규격 으로 채택하도록 하였다(1984).

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합금의 금함량이었다. 치협은 서울대학교 치학연구소(1980-)에 치과주조용 금합금, 비귀금속(니켈-크롬, 코발트-크롬)합금, 치과용 석고, 경석고, 메블계 등의 시 험 분석을 의뢰하였다(1987.5.6). 기공소에서 취급하는 보철물 제품을 조사하여 저철의, 니켈크 롬' 수입은 저지하였다. NPG합금(알마덴트사 제품)이 유해하다는 판단을 내려 대명실업(주)에 수 립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해당 상사가 불복하자 보건사회부에 행정조치를 건의하였다 (1987.7.1~7.11). 이어 미국치과의사협회 및 한국과학기술원, 각 대학에 공인 여부 및 성분 분석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미국치과의사협회는 NPG메탈의 규격 사용허가 사안이 없 다고 답하였다(1987.9.9).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NPG합금의 동(Cu)함량이 79.4%로 높다고 했으며,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는 동(Cu)은 부식 등의 문제로 치과 임상에는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자료 제출을 통해 NPG합금의 수입 판매가 금지되었다.

치과보철물의 금 또는 백금의 함량이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이의는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 로 제기되었다. 치협은 총 77종의 치과용 금합금에 대한 시험성적을 접수하여 금 함량이 미달될 경우 관련회사에 시정을 촉구하고, 치과용의약품 및 재료의 인체유해성에 검사도 이루어졌다. 킴포지트 레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불마라취제는 피환조치 하였고, 1.5만 리도카인사용금지는 해제하였다. 불량 중의치 제작재(벤젠함유)는 금지(1991)되고, 인공에 아말감의 사용의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제의 사용에 관한 규제 지침이 내려졌다. 과산화수소의 경우 0.75%초과 함유제 의약부약품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치과미백제 사용금지를 하고, '오판레센스에프 15%' 등의 허가약품을 사용하도록 통보하였다. 치과용클이식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배럴틀 합금은 배럴틀 증기인자가 폐전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수입 사용을 중지시켰다(2009).

한국이 ISO/TC106 분과위원회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면서(2002-) 치협은 치과기자기계 ISO 규 격 관련 업무 간사 기관(2003)에서 기술표준원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2008)으로 승격하였다. 13

하지만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예산은 1960년 160만원에서 노인틀니급여화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까지 매우 낮고 행정의 일관성도 부족한 수준이다. 의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보조가 부족한 이유로 2000년 건강보험재정적자는 스케일링 보장성 축소로 해결하고, 2012년, 노인틀니 급여 확대에 대한 보장범위의 면복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보험재정의 고갈이나 보장성 축소 원인을 의사나 치과의사들의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과잉진료나 공리의식 부족에 따른 부담청구 때문으로 여겼음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인공의 경우, 사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던 1965년 0.1%에서 2013년 28.2%인 92조로 대폭 늘어났다. 복지에 기여했다는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했다. 정부의 보건복지부분의 예산 비중도 세계 최하위였 포 접근성은 높일 수 있었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인을 통해 의료자원의 공평한 분배와 보험료 인상안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의 의료보험제도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조세'의 원충으로 생각했기에,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의료, 강화화를 대상으로 내세운 유신정권에 소극적인 대처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의료보험료를 다. 의료수가를 관행 수가의 절반 이하로 낮출 상태에서 출발하였으나, 의사들은 민주화 대신 복 포보험제도는 박정희 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국가의 보조금 비율은 최소였 의료보험정책은 의료의 공평한 분배라는 거시적인 의료공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

4. 정부 주도의 의료자원 분배의 문제

문화된 치과기자재를 사용할 것을 윤리규정에 포함시키고, 이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여주었다. 국가 공인 치과규격위원회로 성장하고 있는 치협으로서 모든 치과의사들이 안전하고 포 디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을 폭로하였고, 이를 통해 영리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병의원의 폐해를 보 '유디치과의사의 전쟁'에서 치협은 베릴륨 초과 함유 합금과 공업용 파산화수소를 사용한 유

출해 주는 대신, 비표격 치과미백이 비싼 다른 치약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현한 약품을 통해 치아미백을 하면, '미끼상품'으로 활용해 왔다"며 "치아미백을 저렴하게 시 건중중 유디치과그룹 대표를 긴급 수배했다(2012.5.24). 방송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치과들은 위 포 시들을 한 유디치과그룹 산하 치과의사와 상담원장 등 43명을 검거하는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저 저버린 증대한 보건범죄라고 경고했다. (치의신보 2011.8.22). 경찰청에서는 무허가 치아미백제 직접 구입해 사용한 유디치과의 행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마 2012.4.30)된 것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치협은 썬 가격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제표를 사용(2011.8. 16, MBC PD수첩)한 것과 무허가 공업용 미백제를 사용한 사실이 보도(SBS, MBC, 이러한 상황에서 유디치과 내부 기공소에서 탄안물질인 베릴륨(Be)기준 함량이 초과된 합금

종의 KS 대한치과의사협회표준을 획득(2010)해 국가공인치과규격위원회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어 5

이와 더불어 의료보험연합회의 평균진료비에 의한 자용지표관리기 제과의 특수성이 배제된 평균진료비에 의한 것임을 지적해 개선을 요청하였다(1992, 1996). 그러나 의료보험연합회의 산사 지침과 행정지침은 점차 강화되어 갔다. 의료보험 요양기관 행정지침 및 지정취소 기준 개정을 통해(1993.5.)하고, 원사거부, 관제서부 미비지 및 미작성으로 원사처분시 재지정 금지 3개월 등의 강화를 요구하였다. 3회에 걸친, 중앙진료비 제과관리과신사위원회 회의, 를 통해 진료비 부당 삭감을 상당 부분 개선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산사사례 등을 중심으로, 제과 의료보험 해결책, 을 민간 하였다(1994). 보건복지부도 원지 조사를 통해 의료보험 행정지침을 강화하였다(1996). 지침은 의료 보험 행정지침과 관련된 여러 지표기복부 작성 시 환자의 상태, 진단결과,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문에게 드리는 제과 의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책자도 제작(1992.10)하였다. 으로 검토하여 개선안을 제출(1992.3)하였다. ,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것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자상하고, 지난 15년간 중앙산사제과관리위원회의 결정과 유권해석 등에 의한 산사지침을 개별적 인한 재정적자를 배우고자 의료보험 진료비 부당삭감이 늘어났다. 지침은 의료보험 해결책(1990)을 구를 금지하도록 계몽하였다(1982). 의료보험이 국민에게 확대된 1990년대에도 의료보험통합으로 적정비를 병과할 방침을 세웠다. 지침은 회원들에게 의료보험진료비 청구서 대해 작성 및 파다청 파다청구로 문제가 되어 의료보험 요양기관지정이 취소되는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법 규정의 행 적 변화 속에서도 그 맥락은 지속되고 있다. 1980년 보사부는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진료비 허위 및 이 모든 진료 과정에 개입하여 비용을 통제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행정지침을 병과하였다. 역사 구체화하여 통제하는 것이었다. 전 의료기관에 강제 적용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의료보험공단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서 의료인에 대한 정부와 의료보험공단의 태도는 주로 의료행위를 돕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인 윤리적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전반에 적용되기 시작한 현재 제과의사단체가 제과의료자원의 운영한 분배와 비용-효과 의 효용을 적인 수가 책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괄수가제가 의료보험 는 지침을 중심으로 보사부나 의료보험공단의 불합리한 물제를 개선하고, 의료의 권 향상과 합리 는 민영보험의 확대와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데 물론하고 있다. 아래에서 인 모든 의료보험제정확증에 관한 윤론하나 책임 있는 해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부 국민의 경우도 건강보험제정의 확증을 위한 국민적 합의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국민과 정치

책임은 의료인의 윤리적인 문제로 돌리는 정부와 여론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항의를 통해 자표 계운위원회의 사과와 반론보도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의료보험 제정의 부친의 다. 2009년에는 SBS 8시 뉴스에서, 제과 80% 진료비 부당청구, 라는 왜곡보도를 하였다. 지침은 보험이 적용되며, 적용시 본인부담금이 12,000-17,000원이라는 사원증명을 통해 오보를 정정하였 의료보험 적용 6,000원만 내면 되지만, 이라는 오보를 반영하였다. 지침은 스케일링에 제한적으로 양은 오보를 거듭 반영해 왔다. KBS-ITV 9시 뉴스(1999.10)에서는, 진료비 바가지, , 스케일링

한편 2001년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의 심각한 재정난을 공표하였다. 보험공단을
 통합과정에서 재정부담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이익분담과 상대가치체계 도입을 통한 수가인상이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0.7.1시행)에 의거하여 의료수가가
 약제로 바뀌고, 행위별 수가제에 상대가치수가체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상대가치체도가 도입된
 이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치과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었다(2001년 5.2%,
 2003년 4.6%, 2006년 3.8%, 2010년 3.0%). 치과의 경우 건당진료비의 감소, 보험청구 행위의 자제의
 감소와 더불어 상대가치체계에 치과 고유의 과잉 진료, 위험의 분담, 위험의 분담이 부족하기

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포괄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억제하고, 주체적으로 의료정책방안의 합의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피섭을
 정책들을 펴는 것을 의무화하고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제도의 원리를 담담하는 의료인들이
 도입에 개입하여 개입하여 우려나 우려의 표현행정부서나 건강보험정책은 의료인들에게 타율적으로 의
 리를 위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보험제
 한다. 치과 의사 단체는 치과 의사들이 양산과 소진 및 보험정책을 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고 예방과 질병관
 만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치과 의사들의 전문직업성이 존중되어야
 치과 관련 정책을 객관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의적인 추후 수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
 로 정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상제기를 역시, 환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자율적 결정, 에 따라 현직적으로
 물론 일부 의사와 치과 의사들의 의료보험과 및 하위징구는, 진찰의 원칙, 에 어긋나므로 자율적으

로 화장을 만들거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 2012.9.20). 하지만 의사 및 치과의사단체 모두, 포괄수가제, 가 정책적으로 합의되기 전에
 , 의료약법 규탄대회, 를 열고, 과거 비공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자정선언' 도 하고 있다(치의신
 서 정부는 2012년부터는 포괄수가제를 일부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 의료보험제도는,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의 체계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치과의사가 의료보험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매개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까
 로 선정된 후 원사를 나왔다. 치협은 의료보험제도와 행정규제의 불합리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 있다. 의료행위를 한대로 청구했을 경우에도 평균진료비를 초과하면 자율조정조직 대상 기관으
 지정 환자의 진료에 적절하게 추가되는 시술이나 재료는, '과잉진료' 나, '부당청구' 로 삭감되
 의료의 원리를 지키기 보다는 주로 재정 간축과 행정적 규제에 사용되었다. 현제에도 단
 점을 제정하여 의사와 치과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그 이유는 정부가 주도한 포괄진료지침이
 이러한 불합리한 통제는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2007년 정부와 의료보험공단에서 포괄진료지

이그자 현직선사를 강화하는 경우도 많았다(1994.10.5).

여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치과계에서 보험청구를 한 경우 의료보험연환회에서 재정부담을
 들이 없는 경우 진료비 청구내역은 모두 인정할 수 없음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였다. 치과계가 부담
 관한 사항과 소견을 정확히 작성하고, 또한 진료비상사시 진료기록부와 대조 확인결과 상세한 기

이러한 공리적 틀레마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스스로 합리적이고 최선의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단체의 공리적 신의 권한을 돌릴 필요가 있다. 학회별로 표준진료지침에 공인된 각 진료기층에 대한 성공률과 실패율을 기재해,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치과의사들의 임상 노력을 제고하고, 국민들도 구강병 치료결과에 대해 파도한 기대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치과의료문제이나 치과의료공리를 국가가 법이나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강화된다면

복잡다단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 치과의료는 '인술'이나 '의업봉사'라는 윤리적인 명분과 행동규범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에는 의료윤리가 법적 규제로 대체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이유로 의료인간 경쟁선화로 인한 상업화, 의료문배에 대한 정부 및 의료보험공단 등의 법적 개입과 더불어 환자와의 관계에서 의료문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치과상담센터에 접수된 치과 문제 1순위는 3차 신경순상이고, 2순위는 임플란트이다. 치과의사가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동기에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단순한 후유증이나 합병증도 환자가 수준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의료문배으로 발전할 수 있다. 행위동기와 시술의 위험도와 성공률 등 중립적 반영하지 못한 법과 행정적 틀은 선의의 희생자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치과의료공리 역시 역사적 시기에 따라 의료법이나 제도처럼 표방하는 가지나 행위의 판단기준과 양면한 문제가 조근씩 변해왔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치과의사가 환자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이롭게 하는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지켜야 할 절대적인 윤리에 속한다.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적 집단 간 또는 집단 내의 관용의 양상이 보다

5. 전문직명성 향상을 위한 치과의료공리

필요하다.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 왔으며, 어떻게 윤리적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태에서 치과의사들은 치과의료보험의 접근성 향상 및 공정한 분배, 의료의 질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윤리화하는 치과의사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2012.7.1).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자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험적용(2009.12.1)이 되기 시작했고, 75세 이상의 노인 들이 보험적용도 시행되기 시작했다. 한편 치험의 노력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어린이 제1대구치의 치아충무기가 비 등의 후유증에 대한 환자에 대한 보상대책 기금 및 기구 설치하라는 요구는 묵살되고 있다. 한 는 bur와 blade와 NI-TI file의 별도 보상(2009.10.)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측에 지각마 디지털 X-ray의 장비-재료 비용이 전비용으로 반영(1매 110원, 2008)되고, 매복치탈치 시 사용되 와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도 문제였다. 치험의 노력에 의해 신의료기술도 때문이다. 사람나탈치, 전란마취 후유증으로 인한 지각마비가 빈발하는 것에 비해 치표의 단이도

김철신(2012), 치과의료 윤리교육의 오늘과 미래, 제6회 치과의료정책 자문집, 109-114.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 교원(2000), 치의학 교육과 치과의료윤리, 서울: 계축문화사.

의료윤리학(2001),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서울: 계축문화사.

이관준(2000),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인교육과 직업윤리, 서울: 학지사.

이수구(2010), 건강보험제도의 현안과 발전 방향의 모색,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8(1), 6-11.

이주연(2006), 한국 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혜안.

대한치과의사협회(2010), 대한치과의사협회지, 48-345.

대한치과의사협회(2010),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통제, 의과학, 19(2), 385-462.

한국의 치과기계의 표준화 과정, 대한치과의사협회지, <http://care.daum.net/denhistory>.

조영수(2007), 국민건강보험에서 '치과'의 위상, 대한치과의사학회지, 2007, 26(1), 36-48.

황병주(2011), 1970년대 의료보험 정책의 변화와 복지담론, 의과학, 20(2), 225-262.

참고 문헌

치과의사들은 중앙단체는 용마를 치과의료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자세를 견지하고 사회구성원들간의 절차적 합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출범한 치과의사윤리위원회가 치과의사 내부의 관등을 윤리적 규율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진실과 합리성에 근거한 치과의사윤리지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타율적으로 서포를 감시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느라 국민과 환자를 돌보는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 1)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편찬위원회
 2) 신재의, 『한국근대치의의학사』 참문, 2004. 24-25쪽,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이력기> 朝鮮之齒界》1권 1-4호, 1930.
 3) 신재의, 『한국근대치의의학사』, 참문, 2004. 44쪽.
 4) <회원소식>, 《태극학보(大極學報)》제24호, 1908. 65쪽.

치의학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려 한다. 그리고에서는 김영재의 이력과 활동에서 치과의사로서 책임은 다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근대에서 최초의 치과의사를 밝히는 일은 한국근대치의의학에 기원과 관련된하여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⁴⁾ 를림하여, 1908년 8월 귀국하였다. 당시의 기록으로 우리나라에 치과(齒科)가 있는 것은 “김영재(金英載)이다. 그는 1906년 봄에 일본 동경에 가서, 1907년 7월 치과전문학교(齒科專門學校)에 입학하고, 그런데 한국인으로 근대치의학을 처음 수학한 사람의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는 김영재(金英載)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던 치과의사였다.³⁾

우주의 어린 손녀 김영재를 양녀로 키우며, 우리 문화계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등 나 회의 책임을 다하는 담당함을 보여주어 치의학에 인식을 제고하려 하였다. 또한 그는 우국지사 강 한국인으로 최초의 치과의사는 한석태(咸錫泰)로 알려져 왔다. 그는 처음 된 치과의사로서 사 따라 치과의사 노다 오지(野田應治, 1871-1930) 등이 입국하여 활동하면서 유입되었다.²⁾

한국의 사상, 종교, 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함께 들어왔다. 또 일본이 한반도에 침략하게 되면서 이들을 한국근대치의의학은 전통치의학과 관계없이 서구의 근대문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서양의 제도,

1. 머리말

- | |
|----------------|
| 1. 머리말 |
| 2. 김영재의 이력과 활동 |
| 3. 맺음말 |

신재의))

1907-1908년 치과전문학교를 수학한 김영재

- 5) 『조선인사용신록』, 조선신문사, 1935. 135쪽.
- 6) 〈회원소식〉, 《태극학보(大極學報)》제24호, 1908. 65쪽.
- 7)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는 1906년 4월 헌정연구회를 확대 개편하여, 국민교육을 강화하고 국력을 배양하여 독립의 기초를 다짐하려 설립되었다. 서울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25개 지회를 두었다. 교육기관 증설을 주장하였고, 고종의 퇴위를 반대하였다. 《대한자강회 월보》를 발행하였다.
- 8) 〈會員名簿〉, 《대한자강회 월보》제2호, 1906.
- 9) 태극학회(大極學會)는 1905년 일본 도쿄에서 서북지방 유학생들의 친목단체로 조직되었다. 이 학회는 그 목적에 부합된 친목과 학술연구를 위한 학보를 만들었다. 그것이 《태극학보(大極學報)》였다. 점차 출판을 통한 계몽운동이 활성화 되었다. 1909년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와 통합되었다.
- 10) 〈문화회원명목〉, 《태극학보(大極學報)》제1호, 1906. 51쪽.
- 11) 〈회원소식〉, 《태극학보(大極學報)》제24호, 1908. 65쪽.
- 12) 〈태극학보의연금씨명〉, 《태극학보(大極學報)》제3호, 1906. 58쪽., 제19호, 1908. 58쪽.
- 13) 〈회원소식〉, 《태극학보(大極學報)》제2호, 1906. 59쪽.
- 14) 〈회원소식〉, 《태극학보(大極學報)》제24호, 1908. 65쪽.
- 15) 〈회원소식〉, 《태극학보(大極學報)》제24호, 1908. 65쪽.

본회(本會) 사무원(事務員) 김영재(金英哉)씨는 스이(素以) 청년가재(青年佳才)로 본국에 재(在)할 시(時)부터 5-6년간 의학계(醫學界)에 위선(委心) 중사(從事)하더니 왕재(往在) 관로부터 시작한다 하였다.¹⁵⁾

1908년 9월 24일 《태극학보(大極學報)》 편집자는 우리나라에 치과(齒科)가 있는 것이 김영재 1908년 8월 귀국하였다.¹⁴⁾

1908년 6월 치과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1907년 7월 김영재는 치과전문학교(齒科專門學校)에 입학하였다. 그는 치과전문학교 개학 중에 열심히 연구하였는데, 중간에 학비의 아주 곤란을 당하여도 용감하고 진취적인 마음으로 입학하였다.

1906년 9월 15일 그는 중앙회당(中央會堂) 목사 신학박사 허라이와(李保우)(李保恒)의 주선으로 치카사키(茅崎) 난코우의원(南湖醫院)에 의술 연구생이 되었다.¹³⁾

1906년 8월, 1908년 3월 그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태극학회 회원으로 태극학회에서 학식을 게릴하기 위하여 매월 발간되는 잡지에 의연금을 내기도 하였다.¹²⁾

1906년 봄에 김영재는 도쿄(東京)에 가서 보통학과를 수학하였다.¹¹⁾

회(회)원이었고⁸⁾, 1906년 8월 24일 태극학회⁹⁾ 회원으로 등재되었다.¹⁰⁾

1900년 경 5-6년간 의학계(醫學界)에 열심으로 중사(從事)하였다.⁵⁾ 1906년 8월 25일 대한자강회⁷⁾ 독교였다.⁵⁾

1887년 7월 9일 김영재는 신의주(新義州) 진사정(眞砂町) 7-5 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종교는 기

2. 김영재의 이력과 활동

무(光武) 10년 춘(春)에 린본 동경(東)에 도래(渡來)하여 보통학과(普通學科)를 수(修)하고 작년(昨年) 7월에 치과전문학교(齒科專門學校)에 입학하여 열심(熱心) 연구(攻究)하는데 중간 학비의 비상근란(非常困難)을 무조(屢)하여도 용진(勇進)하여 심(心)으로 해과(該科)를 졸업하고 객월(客月)에 귀국하였으니 아국(我國)에 치과(齒科)가 유(有)함(有)이 씨(氏)로부터 시작(始)하니 의학의 신성(晨星)이라 가위(可謂)함(可謂)함(可謂)지라. 씨(氏)와 동포(同胞)를 위하여 찬하를 기(懃)眞不已)하노라.¹⁶⁾

간영재 이력

신의주(新義州) 진사정(眞砂町) 7-5
1887년 7월 9일생
기독교
1900년 경 5-6년간 의학계(醫學界)에 위심(委心) 종사(從事)
1906년 봄 동경(東京)에서 보통학과를 수학
1906년 8월 25일 대한자강회 회원
1906년 9월 24일 태극학회 회원
1907년 7월 린본 동경에서 치과전문학교(齒科專門學校) 입학
1908년 6월 치과전문학교(齒科專門學校) 졸업
“아국(我國)에 치과(齒科)가 유(有)함(有)이 씨(氏)로부터 시작(始)하니 의학의 신성(晨星)이라 가위(可謂)함(可謂)지라.”
1911년 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 입학
1914년 4월 13일 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 졸업(京城醫學專門學校 졸업)
1914년 6월 19일 의사면허(19호)
졸업 후 선천 사립병원 근무
1922년 신의주에서 개업
1931-1936 신의주형무소 의무축탁
1935년 신의주부회 의원

한편 1908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김영재는 일련의 의학과 과학에 관한 글을 기고하였다. 1908년 3월 그는 치과전문학교 재학 중에 《태극학보(大極學報)》에 〈천연두(天然痘) 예방법〉이라는 의학에 관한 글을 발표하였다. 천연두(天然痘) 병독(病毒)은 여러 경로로 쉽게 전염된다 하며 전염(傳染), 발진(發見), 예방(豫防)에 설명하였다.

16) 〈회원소식〉, 《태극학보(大極學報)》 제24호, 1908. 65쪽.

- 17) <천연두(天然痘) 예방법>, 《태극학보(大極學報)》제19호, 1908. 39-41쪽.
- 18) <과학의 급무>, 《태극학보(大極學報)》제20호, 1908. 8-9쪽.
- 19) <과학의 급무>, 《태극학보(大極學報)》제20호, 1908. 8-9쪽.
- 20) <과학의 급무>, 《태극학보(大極學報)》제20호, 1908. 9쪽.

그러나 금일까지 우리 한국인은 철리(哲理)정치(政治)에만 열심을 분치(奔馳)하고 과학(科學) 실험(實驗)상에는 경향(輕向)을 망치(망치)하여 학문(學問)이라 함하면 치국(治國)평천(平天下)만 단사(但思)하여 법률(法律)정치(政治) 등 학문(學問)만 수득(修得)하기에 열중하고 실업(失業)사이부고(捨而不顧)함으로 실재(實)와 공론(空論)의 미수(未樹)하고 공리(空理)와 공론(空論)에만 부동(浮動)함에 국민(國民)자제(子弟)가 무비(無非) 공론가(空論家)를 순성(馴性)하여 비참(悲慘)한 현상(現狀)을 출연(出演)하였나니 이는 국가를 쇠약(衰弱)케 하고 국력을 퇴수(退守)케

였다.20)

그러나 그때까지 한국인은 철리(哲理)와 정치(政治)에만 열심을 다하고 과학(科學)과 실험(實驗)은 가별(加別)케 취급하였다. 치국(治國)평천(平天下)하는 법률(法律)과 정치(政治) 등은 연기에 열중하였고 실업은 고려 없이 실재와 실력을 쌓지 못하고 공리(空理)와 공론(空論)에만 편구름 같이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 자제(子弟)를 공론가(子弟)를 공론가(子弟)로 만들어 국가(國家)사회(社會)의 공적(公賊)이 된다고 하

오인(吾人)이 지식(知悉)하는 바 과학(科學)은 즉 실험(實驗)이나 공리(空理) 공론(空論)도 아니며 상상(想像)도 아니요, 실제(實際)의 학문(學問)이나 자(此)를 실재상(實際上)에 응용(應用)하면 국가사회(國家社會)의 각종(各種) 사업(事業)을 발달(發達)케 하는 동시(同時)에 일반국민(一般國民)의 상식(常識)을 발달(發達)케 함(基礎)가 되나니(19)

1908년 5월 김영채는 《태극학보(大極學報)》에 과학(科學)에 관하여 울머르케 인식한 <과학의 급무>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즉 과학(科學)은 실험(實驗)이나 공리, 공론도 아니며 상상도 아니고, 실제(實際)의 학문(學問)이다. 이를 실재상에 응용하면 국가사회의 각종 사업을 발달하게 하고, 동시에 일반국민의 상식을 발달하게 함 기초가 되고, 세계 모든 나라의 여론이 된다. 과학 보급은 저서(著書) 혹은 잡지(雜誌) 강연(講演) 등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18)

그리고 천연두(天然痘)가 신체(身體)에 침입(侵入)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종두법(種痘法)이 있다고 하였다.

천연두(天然痘) 병독(病毒)은 피지(皮膚)에 잠복(潛伏)하는 자나 두포(痘泡)의 내용물이 수액으로 혼화(混濁)되어 비액(鼻液), 각담(喀痰) 중에도 존재하고 우(又)는 건조한 공기 중에도 혼입(混入)되었으며 이상(以上) 제(諸) 물(物)이 용이(容易) 전염(傳染)하는데(17)

할 뿐 아니라 국가(國家)사회(社會)의 공적(公賊)이 되리니²¹⁾

철론적으로 국민의 상식을 급속히 확대하려면 공리(空理) 공론(空論)을 모두 배척(排斥)하고
 실학(實學)을 존중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학은 즉 과학이므로 과학의 보급이 당시에 긴급한 임
 무(急務)였다. 근래(近來) 여러 지방에 학교 설립이 많은데 그의 견해로는 급속히 실학(實學)과 과
 학을 위하여 실업(實業) 학교가 많이 설립(設立)하기를 소원하였다.²²⁾

1908년 6월 김영재는 《태극학보(大極學報)》에 〈타담(唾痰)의 위생〉이라는 의학의 글을 발표
 하였다. 대체로 보아서 담(痰)은 인후(咽喉)가 불량(不良)한 때나 기관(氣管) 혹은 기관지(氣管支) 또
 폐(肺)에 어떠한 병이 있을 때에 나오는 점액(粘液)인데 담(痰)이 작은 균(菌)을 포함하므로 참
 으로 위험한 것이라 하였다.

담(痰)은 인후(咽喉)가 불량(不良)할 시(時)나 기관(氣管) 혹은 기관지(氣管支) 우(又)는
 폐(肺)에 하허병통(何許病通)이 있을 시(時)에 출(出)하는 점액(粘液) 즉 반유동체물(半流動
 體物)인데 담(痰)이 미균(微菌)을 함존(含存)하므로 담(痰)이 불결물(不潔物) 뿐 아니라 실
 (實)로 위험한 것을 가지(可知)할지라.²³⁾

전염병(傳染病)은 귀마(鬼魔)의 원인이 아니고 미균(微菌)이라는 조충(小虫)이 있어 균충(菌忠)
 이 원인이 되어 병을 일으킨다. 이러한 전염병(傳染病)은 폐병(肺病), 리아(里亞)라 칭(稱)하는 병,
 흑사병(黑死病) 등이 있다고 하였다.

1908년 9월 김영재는 《태극학보(大極學報)》에 〈뇌(腦)의 위생법(衛生法)〉이라는 위생문담
 의 글을 기고하였다.

뇌(腦)는 신체의 수부(首府)로 백반(百般) 명령(命令)하는 곳으로 그 질(質)이 두부양(豆腐樣)과
 같은 유연(柔軟)한데 대소(大小) 이중(二種)으로 구별한다. 연수(延髓)부터 하방(下方)은 적수(脊隨)
 에 직통(直通)하여 수다(數多)의 회전(廻轉)과 움직하게 파인 곳(구와 溝)을 가지고 있다. 움직하
 게 파인 곳이 심하면 심할수록 지식이 발달함인데 동물 중에는 인류가 제일이요, 그 다음은 원숭
 이이다.

뇌(腦)는 사용하는 것이 제일의 위생인데 때때로 적당한 휴식을 하여야 한다. 뇌의 사용과 휴
 식에는 좋은 규율(規律)이 있어야 한다. 제일은 자기에 맞게 실행하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職
 業)을 선택(選擇)함이 좋다. 뇌(腦)의 위생은 마음의 염려가 큰 아픈 질환이니 회노애락(喜怒哀樂)
 사이에 정신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다. 즉 뇌를 피로하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휴식으로 수면

21) 〈과학의 급부〉, 《태극학보(大極學報)》제20호, 1908.- 9쪽, 과
 22) 〈과학의 급부〉, 《태극학보(大極學報)》제20호, 1908. 10쪽.
 23) 〈타담(唾痰)의 위생〉, 《태극학보(大極學報)》제20호, 1908. 27-29쪽.

26) <가정교육법(家庭教育法)>, 《태극학보(大極學報)》제19호, 1908. 23-24쪽.

반년

25) 김수철(金壽哲), 1889년 5월 18일생, 주소 평양 용흥면 3리, 본적 평양 북동터면 5리, 1913년 12월 9일 의화강습 원 개좌, 1914년 3월 28일 의생면하(조선총독부 관보 제496호) 1933년 3월 23일 사망, 1933년 5월 12일 의생면하

24) <녀(顰)의 위생법(衛生法)>, 《태극학보(大極學報)》제22호, 1908. 43-45쪽.

구(口)에 재(在)하녀는 치아(齒牙) 위생(衛生)에 주의(注意)함이 가장 필요하니 유아(幼

그 부식(腐蝕)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健康)하지 못하면 영구치도 건강(健康)치 못하니 그러므로 유치(乳齒)라도 때때로 세척(洗滌) 하여 락(脫落)한 후에 새 치아가 나오다 하여 유치를 중시(重視)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幼齒)가 건강 관리에 게으른 것이 일반적(慣習)이 되었으니 여찌 탄식할 일이 아니겠는가. 또 유치는 탈(嚙)하지 아니하고 연하(嚥下)한 결과(結果)로 소화기(消化器)를 해(害)함이 심(甚)하다. 치아(齒牙)를 치아(齒牙) 위생(衛生)에서 유아(幼兒)의 치아(齒牙)는 상실되기 쉬우므로 음식(飲食)을 저작(咀

體各種)의 기관(機關)을 상해(傷害)함이 불소(不少)하다.26)

발육(發育) 정도(程度)를 미지(未知)하는 무견중(謬見中)으로 래(來)한 자(者)며 신체각종(身體各粒)을 여(與)하는 악습(惡習)이 유(有)하느냐 차(此)는 아동(兒童)의 신체(身體) 양관(榮關)의 아직 치아(齒牙)가 발생(發生)치 못한 유아(幼兒)에게 향(向)하여서도 일찍부터 반립(飯粒) 3세(歲)에 탈(達)하기까지 불여(不與)함이 가(可)하니라.

(易)한 형(形)에 취(就)해야 여(與)함은 가(可)하냐 육류(肉類)와 여(如)한 고정물(固定物)은 (可)하냐 계란(鵝卵)과 여(如)한 자(者)라도 차(此)를 만숙(半熟)하여 가잔 소화(消化)키 역(一般) 성약(纖弱)한 즉 소화(消化)가 용이(容易)하다는 자(者) 외(外)에는 여(與)키 불가(不可) 기(期)에 지(至)하면 고정물(固定物)을 여(與)함을 득(得)하나 오직 소화기(消化機)가 일반 아동(兒童)은 생후(生後) 9개월(個月)에 지(至)하면 신치(新齒)가 생(生)하느니 차(此)

립)이 있어 이는 아동(兒童)의 신체(身體) 영양, 발육(發育)에 상해(傷害)함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음식물을 주지 말아야 한다. 치아(齒牙)가 나오지 못한 유아(幼兒)에게 반립(飯粒)을 주는 악습(惡習) 즉 아동의 치아는 생후(生後) 9개월에 이르면 새로 치아가 나온다. 3세에 이르기까지 딱딱한

에 역술한 <가정교육법(家庭教育法)> 제3장 위생(衛生)에서 아동의 치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908년경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하는 글이 《태극학보(大極學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평양의 의생(醫生)이었던 김수철(金壽哲)25)은 《태극학보(大極學報)》

(鐵石)같은 체격을 요구한다고 하였다.24)

건전한 정신은 강장(強壯)한 신체에 있다 함과 같이 강건한 정신과 강고(強固)한 의지는 철석(鐵石)이 좋다. 수면은 안면(安眠)이 필요하다.

兒의 치아(齒牙)는 결손(缺損)키 이(易)함으로써 음식(飲食)을 저작(咀嚼)치 안코 연하(嚥下)할 것 같으면 기(其) 결과(結果)는 소화기(消化器)를 해(害)함이 심(甚)하나니라. 그러나 금일(今日) 여사(如斯)한 영향(影響)을 불원(不願)하고 치아(齒牙) 양호(養護)태(怠)하는 자는 일반(一般)의 관습(慣習)이 되었으니 어찌 호탄(浩歎)할 바 아니리오. 차(此) 유아(幼兒)의 치아(齒牙)는 일단(一旦) 탈락(脫落)한 후에 신치(新齒)가 대생(代生)함을 의빙(依憑)하여 유치(乳齒)를 중시(重視)치 아니하나 연(然)하나 유치(幼齒)가 건강(健康)치 못하면 성치(成齒)도 또한 건강(健康)치 못하나니 고로 유치(乳齒)라도 시시(時時)로 세척(洗滌)하여 기(其) 부식(腐蝕)을 방(防)치 아니치 못함지니라.²⁷⁾

귀국 후 1908년부터 1911년 전반기까지 김영재가 치과 의업에 종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의업에 관심을 가졌던 김영재는 일반 사람들이 관심이 적었던 치과 의업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 후 김영재(金英哉)는 의사가 되었다. 1911년 중독부의원 의학강습소에 입학하였고, 1914년 4월 13일 중독부의원 의학강습소(醫學講習所) 의과(醫科) 졸업생(卒業生)이 되었다.²⁸⁾

1914년 6월 19일 그는 의사면허번호 19호로 의사가 되었다.²⁹⁾
 졸업 후 선천음(宣川邑) 내의 사립병원에서 근무했다.

1922년부터 원적지인 신의주에서 의원(醫院)을 개업하여 1935년에 이른다.³⁰⁾
 1931년부터 1936년까지 신의주형무소 의무측탁이었다.³¹⁾

1935년 신의주부회(新義州府會) 의원(義員)이었다.³²⁾

3. 맺음말

1908년 5월 과학(科學)은 실학(實學)이나 공리, 공론도 아니며, 상상도 아니고, 실제(實際)의 학문(學問)이다. 이를 실제상에 응용하면 국가사회의 각종 사업을 발달하게 한다는 음바른 인식을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김영재(金英哉)였다.

김영재는 국민교육을 강화하고 계몽하려고 계몽회(大韓自強會)와 태극학회(大極學會) 회원이었다.
 김영재는 1906년 불 일본에 가서 어려운 중에 1907년 7월 일본 동경에서 치과전문학교(齒科專門學校) 입학하고, 1908년 6월 졸업하였다.

27) <가정교육법(家庭教育法)>, 《태극학보(大極學報)》제21호, 1908. 32-33쪽

28) 조선총독부 관보 제508호, 1914년 4월 13일자.

29) 조선총독부 관보 제587호, 1914년 7월 16일자.

30) 『조선인사홍신록』, 조선신문사, 1935. 135쪽.

31)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1935.

32) 『조선인사홍신록』, 조선신문사, 1935. 135쪽

『조선총독부 판보』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1935.
『조선인사홍신록』, 조선신문사, 1935.
《태극학보(大極學報)》
《대한자강회(大韓自強會) 월보》
《朝鮮之齒界》
《滿鮮之齒界》
《朝鮮齒科醫學會雜誌》
《京城齒科醫學會雜誌》
大澤義誠, <조선치과변천이야기>, 《朝鮮之齒界》 1권 1호-4호, 1930.
奇昌德, 『韓國齒科醫學史』 아카데미아, 1995.
朴明鎭, <한국의 치과의학>,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申仁澈, <한국근대치과의학의 연혁>,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신계의, 『한국근대치과의학사』, 참운출판사, 2004.
_____, 『한국근대치의학교육사』, 참운출판사, 2005.
_____, 『한국치의학사 연구』, 참운출판사, 2005.
_____, 『한국치과기자의역사』, 참운출판사, 2012.
윤계찬, <한국치과의학 발달과정의 고찰>, 《치계》, Vol. 2, No. 9-12, 1968.
이병태, 『치의학 역사 산책』, 도서출판 정상, 2001.
이주연, 『한국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혜안, 2006.
李漢水, 『韓國齒學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_____, 『齒科醫學史』, 연세대학교출판부, 1988.
최진환, <한국치의학개관>,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참 고 문 헌

되었다.
1922년부터 신의주에서 의원(醫院)을 개업하였고, 신의주형무소 의무총탁, 신의주부회 의원(義員)이
그 후 김영재는 평범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선천읍(宣川邑) 내의 사립병원에서 근무하
19일 그는 의사면허번호 19호로 의사가 되었다.
었다. 1914년 4월 13일 총독부의원 의학강습소(醫學講習所) 의과(醫科) 졸업(卒業)하고, 1914년 6월
의업에 관심을 가졌던 김영재는 일반 사람들이 관심이 적었던 치과 의업에서 떠나 의사가 되
귀국 후 1908년부터 1911년 전반기까지 김영재가 치과 의업에 종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아아의 혈동 치표에 의한 결과의 향상과 의도를 증시하는 시대적 경향 때문에 치의학교육에 치주질환의 이환, 언어장애 등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술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타 전문분야별 아안면근육계에 관여하여 저작장애, 안모의 심미적 결함, 턱관절의 기능장애, 치아우식증과 결 되었다. 치과교정치표는 치아안면발육에 관련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조적인 치열, 두개안면골 른 조합의 발육, 안면의 성장 그리고 부정조합에 대한 기초 지식은 치의학의 핵심 분야로 인정받 의 발육과 유지 및 치료보다는 외과적인 시술과 치아의 수복에 관한 면이 더 강조 되었으나 이를 치의학이 의학과 분리되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치열조합의 복잡성 때문이다. 과거에는 조합 and Dentofacial orthopedics로 의미가 더 확장되었다.

이동만이 아닌 아골의 크기와 형태 변화를 도모하는 악정형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Orthodontics (Lefoulon, 1841), 초기에는 치아를 바르게 배열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치아의 선 또는 바르다)와 dons(=tooth, 치아)와 tics(학문)가 합쳐진 'orthodontosie'에서 유래하였는데 관련된 치의학의 한 분야이다. 치과교정학을 의미하는 단어인 'Orthodontics'는 ortho=correct, 적 치과교정학은 두개안면복합체의 성장, 조합의 발육 및 치아안면변형증의 치료에 관한 연구와

1. 머리말

- 1 머리말
- 2 치과교정학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과 그들의 업적
- 3 과학으로서의 치과교정학의 정체성 확립
- 4 치과교정장치와 재료의 발달
- 5 치과교정학에서의 주요 논쟁

손우성1)

서양 근대 치과교정학의 발달

19세기 말부터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치의학교육의 체계화로 치과교정학도 제대로 된 학문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Kingsley(1825-1896)는 이 시대의 선구자로 틀출된 치아를 후방 이동하기 위해 후두부를 고정원으로 사용하였고(occipital traction), 교합을 개선하려고 vulcanite 재질의 경사판(inclined plane)을 이용하였으며, 구개열의 치료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1880년에 저술한 A Treatise on Oral Deformity에서 부정교합의 원인, 진단, 치료 계획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교정치료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Angel(1860)은 구개확장을, Magill(1871)은 cement로 밴드를 치아에 합착하는 방법을, 칸은 레에 Coffin은 탈카나이트 플레이트에 W-형의 피아노 줄을 삽입하여 정중구개활을 시도하였다. Farrar(1839-1913)는 치아이동에 관계된 생물학적 지식에 대하여 연구하여 교정치료를 과학화한

2) 근대에 틀입하며 (19세기 말-1930년)

19세기 말부터 틀입하며 (19세기 말-1930년) 란려져 있다.

가령에 대하여 기록을 남겼다. Kneisel은 1836년에 석고모형을 부정교합의 진단에 사용하였고 주 는 vulcanite와 rubber band의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교정치료에서의 중요한 고정원(anchorage)의 년 교정치료에만 국한된 최초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screw와 clamp band를 기술하였고 3년 후에 최초로 부정교합을 분류하였다. Delabarre는 1815년에 crib과 screw를 소개하였다. Schanage는 1841 History of Human Teeth에서 치아와 악골의 형태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의 제자인 Fox는 1803년 Bourdet(1722-1789)는 치아의 충생을 해소하기 위해 소구치를 뽑는 오늘날의 연속발치술과 비슷한 에 치아를 양의 장자로 묶어 움직인 bandeau를 기술하였다. 프랑스왕의 주치의였던 기념비적인 저서인 The Surgeon Dentist: A Treatise on the Teeth에서 금속판에 구멍을 뚫고 여기 성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치과교정학의 아버지로도 추앙받는 Pierre Fauchard는 1728년에 그의 조의 기계적인 치료를 하였으며, 기원 후 5세기 경 Adamandios는 부정교합과 사람의 성격의 관련 50)는 유적의 연구의 교환에 대하여, Pliny the Elder(AD 23-79)는 정출된 치아의 치료를 위해 최 Hippocrates(460-377)도 치열과 두개안면기형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로마시대의 Celsus(BC 25-AD 비롯하지고 틀출된 치아의 치료에 대해서는 약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의 기록이 있으며

1) 고대에서 19세기 중반까지

2. 치과교정학과 관련된 시대별 역사적 주요 인물과 그들의 업적

치과교정학과 관련된 역사적 주요 인물과 그들의 개관적인 업적 및 치과교정학의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20세기 초부터 치과교정학의 전문화가 진행되었다. Angle School에 지원하였다가 그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서약에 동의하지 않아 입학이 거절된 Lischer(1976-1959)는 1907년에 Angle에 대항하여 International School of Orthodontia를 열었으며 세인트루이스에 워싱턴대학 치과교정학을 개설하여 교수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1922년에 두개측측학(cephalometrics)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Angle과는 다른 부정교합의 분류법(mesioclusion, distocclusion, neutroclusion)를 주장하였다. 1902년에 Angle에게 배웠던 Dewey는 1911년에 또 다른 치과교정학 교육기관을 개설하였다. 그는 탁월한 저자, 교육자, 논쟁가, 학술지 편집인으로서 활약하여 1914년에 International Journal of Orthodontia를 창간한 후 부족한 원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스스로도 밤을 지새우며 많은 논문을 저술했고, 치과역사학자인 Weinberger(1885-1960)에게 1915년부터 1922년까지 “Orthodontics: an historical review of its origin and evolution” 라는 주제로 36회에 걸쳐 연재하

며 이는 그의 생전에 경쟁자인 Case와의 격렬한 논쟁을 조래하였다. 어떤년에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받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받치불가론’을 주장하였었다. 그의 사후 제자들은 “the Edward H. Angle Society of Orthodontia”를 결성하였다. Angle 성를 주도하였고, 1907년 최초의 치과교정학회로서인 “The American Orthodontists”를 발간하 American Society of Orthodontists (오늘날의 The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의 결 Orthodontia) 수많은 치과교정학의 리더들을 양성하였으며, 최초의 치과교정학회인 “The 임력한 스승으로 1900년부터 치과교정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여 (Angle School of 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후의, 최고의 장치라고까지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혁신적이고 그가 마지막으로 개발한 Edgewise appliance는 스스로도 대단히 만족하여 모든 유형의 치아운동 E-Arch, 1910년 Pin and Tube appliance, 1926년 Ribbon arch, 1925년 Edgewise appliance) 이 등 (1899년 Dental Cosmos에 발표), 여러 종류의 고정식 교정장치를 차례로 개발하였는데(1900년 은 Old Glory, 열론은 Appolo Belvedere), 부정교합의 분류(Angle’s Classification)방법을 확립했으며(1900년) 교정치료의 목표인 자연치열에서의 정상교합의 개념을 제시하고(Lime of Occlusion, 교합 따라서 그는 근대교정학의 아버지(Father of Modern Orthodontics)로 불린다. 이 위대하고 강인한 치과교정학에 가장 뚜렷하고 역동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은 Edward H. Angle(1855-1930)이다.

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Angle과 소위 “대받치 논쟁(Great Extraction Debate)”을 하였다. Practical Treatise on the Technics and Principles of Dental Orthopedia라는 제목으로 교정치료에 대해 저술했으며 2급고무줄과 치케이동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또한 그는 교정치료를 위한 받치 최초로 부정교합에 대한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se(1847-1923)는 보존학교과서에 치과대학의 화장이던 Guilford(1841-1919)는 교정치료를 활발히 하면서 치과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에 발명한 X-ray를 부정교합의 진단에 도입하였고, Baker는 야간고무줄을 소개하였다. 필라델피아 간헐적으로 가하는 것(Intermittent force)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Talbot(1847-1952)는 1896년 문으로 미국치과교정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치케이동의 방법을 설명하고 교정력은

치과교정학의 역사(orthodontia's historian)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또 1948년에 치과의 역사에 대해 소개한 "An Introduction of the History of Dentistry"라는 저서를 출판하였다. Dewey 사망 3년 전(1931년)부터 이 잡지의 편집인을 맡은 Pollock(1884-1970)은 38년 이상을 수고하였다. Dewey와 함께 한 시간을 포함하면 53년을 이 잡지를 위하여 헌신하였다. 이 잡지는 1919년 "International Journal of Orthodontia"이다. Angle이 편집인 제의를 거절하여 Dewey가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부족한 원고를 채우기 위해 Dewey와 함께 치과교정학의 역사를 집필한 Weinberg는 치과교정학 단독의 최초 정기 간행물은 내과의사이자 출판사인 Mosby의 후원으로 발행된

목, 치아의 형성과 맹출 등까지 기술되었다. (1900-1992)에 의해 집필되었다. 이 책에는 진화, 발생학, 성장과 발육, 생물학적 연령, 치열의 발

최초의 교과서는 1943년에 26년 동안 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의 편집인을 한 Salzman Fauchards 이후 치과교정학에 대해 언급한 책들이 출간되었으나 포괄적인 내용을 망라한 책을 다루며 발전되었다. American Society of Orthodontists를 거쳐 1935년에 American Association of Orthodontists로 이를 소개하였다. Angle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1900년에 시작된 학술 모임은 Society of Orthodontists, Atkinson(1886-1970)은 1,400개의 두개골로 성장과 발육에 대한 연구를 행하여 key ridge의 개념을 100편 이상의 논문과 두 권의 교과서를 집필하였다. 다방면에서 재능이 뛰어났던 Mc Coy(1884-1965)는 치과 교정학과 동시에 방사선학 교수로 재임하면서 X-Ray를 이용하여 서부에서는 1934년에 University of Southern-California에 처음으로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었

되었다(Downs, Klohen, Thompson, Wylie, Alton Moore, Ricketts 등). 그의 제자들은 치과교정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15명이 치과교정학의 교수를 들은 치과교정학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으로 여겨지고 있는 Brodie(1897-1976)에게 교수를 다. Noyes(1872-1961)는 Illinois대학에서 치과교정학 과정에서 조적학을 가르쳤고 학장 재임 시 오 전문의계도(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가 Ketcham과 Dewey의 노력으로 처음으로 시행되었 Curriculum II program)이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교정전문지의 역사가 배출되었고 1929년에는 Northwestern대학(Baker)에 석사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Setzer와 Hahn에 의해 교과과정(The Merit, 교합의 기초, 진단, 원인, 분류 등등)을 가르쳤다. 이후 Pennsylvania대학(Mershon), Johnson이 Michigan대학에서 정구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전임교수가 되어 치과교정학의 기본 원 Columbia대학에서 치과대학 졸업 후 단기 연수 과정으로 치과교정학이 개설되었고, 1923년에는 하는 정구 프로그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Harvard-Forsyth(1915-19)를 필두로 New York대학, 1930년대 이후 치과교정학 교육은 종래의 도제교육을 탈피하여 대학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3) 치과교정학의 전문화 (1930년 이후)

게 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Orthodontia & Oral Surgery”로 이름을 바꾸었고 그 후 여섯 번의 변화를 거쳐 1986년부터 “American Journal of Orthodontics and Dentofacial Orthopedics”라는 이름으로 발전되고 있다.

Angle의 제자인 Hahn에게 1928년 교정치료를 배운 Tweed(1895-1970)는 그의 탁월함을 인정한 Angle의 마지막 제자가 되어 Angle의 업적을 계승 발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미성과 치료 후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받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음 인정하였고, 하악골에 대한 하악전치의 위치를 치아 배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정치료를 위한 고정원(anchorage)의 개념을 확립하고 스승의 edgewise technique을 발전시켜 Tweed technique으로 정립하여 1947년부터 Arizona Tucson에서 Tweed course를 열었고 이는 Merrifield(1955년부터 Tweed course에 지도의로 참여)에게 계승되어 Directional Force Technology로 발전되었다. 이후 수많은 임상가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와 기법들을 개발하여 치과교정학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3. 과학으로서의 치과교정학의 정체성 확립

1) 두개안면 성장에 대한 연구

어린이의 부정교합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성장과 발육에 대한 지식이다. 이를 위해 인류학, 해부학, 조직학, 내과학, 치의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직학 분야의 연구

Goodstr(1830)는 조골세포에 대하여, Wolff(1885)는 골조직 전환의 법칙, Oppenheim(1944)은 파도란 힘에 의한 치아조직의 부착용, Ketcham(1936)은 교정력에 의한 치근의 흡수에 대하여, Sicher(1949)는 골성장에서 골합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Moss(1969)는 지금도 많은 지지를 받는 기능모체설(functional matrix theory)을 주장하였다. 동물 실험은 Hunter(1778)가 하악골에서의 성장 부위에 대해 연구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류학적 연구

Blandin(1836)이 원골의 성장에 대해 언급한 이후, Todd는 1926년 4,500명 이상의 어린이의 X-ray를 이용하여 연구하여 성장 선장의 표준을 정하였고, 수완부문사진으로 성장근육기를 예측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업적을 남겼다. 루마니아 출신의 Hellman은 해부학과 인류학을 공부한 후 자연사박물관에서 인류학과 고생물학을 연구하여 상악결절 후방의 문침좌 현상을 발견하여 Angle의 상악제1대구치가 교합의 기준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고, 나이보다는 생물학적인 연령을 증시해야 한다(Hellman dental age)는 주장을 하였다.

Gnathology의 아버지로 불리는 McCollum이 점변축의 위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1924년이므로 파악된다.

한계 등으로 실제 임상에서 구체적이고 동적인 교합 개념을 적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과교정학에서 교합개념 중요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장치 제작의 어려움과 치표의
 Broadent의 두부방사선규격사진법이 치과교정학에서의 교합 개념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
 사실 period(after 1930)의 새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Angle의 부정교합 분류와
 Graber(1972)는 교합의 개념은 fictional period(before 1900), hypothetical period(1900-1930)과

2) 교합 개념의 점부

computerized cephalometry의 기원을 열었다.

Sassouni(1955)는 수직요소와 수평요소의 관계에 대한 archial analysis, Ricketts(1960)는
 Drakin을 제시하였고, Tweed는 이상적인 하악전치 위치 설정을 위한 Tweed triangle(1954)를,
 relation"에 대해, Riedel은 ANB angle을, Steiner(1953)는 문턱부조화를 고려한 쉐웅 치표시의 기이
 하악전치의 관계, Wyllie(1947)는 FH plane를 이용한 분석법을, Downs(1947)는 "Variation in facial
 두부방사선규격사진계측법을 이용한 수많은 진단법들이 소개되었는데 Margolis(1943)는 하악골과
 를 단졌고, Moeres(1916-2003)는 개개인의 성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 de Coster(1939)를 필두로
 Toronto대학과 Michigan대학에서 일한 Moyers(1919-1996)는 형태와 기능의 관계에 대한 업적
 에는 최초의 인플란트를 이용한 성장 연구를 하여 상,하악골의 회전성장을 보고하였다.

를 평가하였고, 스웨덴의 Björk(1947)는 측모에 대한 연구(The face in profile)를 진행하여 1955년
 를 고안한 사람이 독일의 Horath라는 이견도 있다. Brodie(1938)는 이 방법으로 교정치료의 결과
 되어 과학적인 연구와 치표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그러나 최초로 두부방사선규격사진계측법
 X-ray를 중첩하여 정상의 기준 제시, 치표 전후의 변화, 성장에 따른 변화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있도록 두부 자세를 고정하는 장치(Broadbent-Bolton cephalometer)를 고안해 이 방법으로 채득할 수
 최종 4,309명의 어린이의 자료가 채득되었다. 표준화를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X-ray를 촬영할 수
 원으로 많은 어린이의 연속적인 기록을 단졌는데 이 파제는 그의 조수인 Broadbent가 이어 받아
 진계측법(Roentgeno-graphic cephalometry)의 발표이다. 1929년 Todd는 여성 상원의원 Bolton의 후
 치과교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건의 하나가 Broadbent(1931)의 두부방사선규격사
 두부방사선 규격사진 계측법(Roentgenographic cephalometry)

Baker는 상하악에 전치부에는 labial bow를, 구치부에는 교합면에 걸치는 철사를 장착하고 vulcanite로 연결한 가철식 장치를 개발하였다. Hawley는 이를 개량하여(1919) 치아의 설측를 vulcanite로 완전히 덮어 사용했는데 1930년대에는 재료의 발전으로 vulcanite 대신 acrylic으로 대

그 외의 장치들

용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사용되는 많은 장치들이 edgewise appliance를 조금씩 개량한 장치들이다. 028 인치의 금 합금으로 제작되었으나 금속의 발달로 더 가는 강철 등의 비금속으로 바뀌어 널리 사

고 대단히 만족하여 the best, the last appliance라고 기뻐하였다고 한다. 이 장치는 처음에는 022X 조절할 수 있으며 사용이 비교적 간편한 edgewise appliance를 발명하였다. Angle은 이 장치를 개발하

의 철사를 동일한 형태의 bracket에 삽입하고 가는 철사로 묶어서 삼차원적인 치아이동과 비틀림까지 는 ribbon arch(1916년)를 고안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단점이 있어 이를 개량하여 직사각형 형태

끝의 의미이나 교정치료에서는 호선용 끼우는 홈을 의미함)을 부착하고 호선을 pin으로 견고히 고정하

어려워 많이 보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Angle은 또다시 치아에 bracket(가치발, 보석을 잡는 금속 부

bone growing appliance를 고안하였는데 치근의 이동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척

브를 부착하고 주호선에 가는 철사를 부착하여 치아이동을 도모하는 pin-and-tube appliance 일명

테 이 장치는 단지 경사이동만 가능한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10년에는 치아에 수직 볼

호선을 연결하고 여기에 치아를 가는 철사로 묶어 치아를 이동시킨 E(expansion appliance)-arch 였는

Angle이 1900년에 처음 발명한 장치는 제1대구치에만 밴드를 하여 여기에 묶은 수축 또는 설측

Angle이 개발한 장치를

이를 개량하여 발치를 하지 않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Jackson system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장치는 Walker에 의해 발전되었고 Crozat(1919년)는

Jackson(1887)이 철사를 구부려 crib을 만들고 여기에 finger spring을 부착하여 만든 장치인 소위

아를 양의 창자로 묶어 움직인 bandeau인 것 같다. 그 후 많은 조악한 장치들이 소개되었지만

문헌에 보고된 최초의 교정장치는 Pierre Fauchard(1728)가 금속판에 구멍을 뚫고 여기에 치

Angle 이전의 교정장치

1) 치과교정장치

4. 치과교정장치와 재료의 발달

bracket에 3차원적인 처방을 부여하여 호선금속의 필요성을 줄이는 소위 Straight Wire Appliance 의 개발로 이어졌다. Roth(1972)는 교정치료에도 gnathology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며 기능

교합(functional occlusion)을 확립하였다.

형인이 교정치료를 많이 하게 되면서 치프 중에 교정장치가 보이지 않으면 하는 경우가 많아 primer(1993) 등이 개발되어 교정치료가 쉽고 간편해졌다.

으로 plastic bracket을 접착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그 후 light curing(1979), self-etching 사용되어 Tdmn나 본격적인 bonding의 시대를 연 것은 Mira 등(1971)이 methyl methacrylate resin 하였고 다트였으며 그 후 polyacrylate(1968), BIS-GMA(1962), glass ionomer cement(1970s) 등이 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Mitchell(1968)과 Newman(1968)이 서로 최초로 교정치료에 bonding를 도입 acrylic resin을 발명하였고 Buonocore(1955)는 인산으로 치아 표면을 부식시켜 접착력을 증가시키 요하고 환자는 대단히 아프고 자치제약이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독일의 화학자 Hagger(1949)가 치아를 금속 band로 감싸고 여기에 bracket을 부착하던 종래의 방법은 불필요한 band space가 될 교정장치의 획기적인 또 한 발명은 bonding 기법(Direct Bonding System, DBS)의 도입이었다. 1963, ceramic bracket 1987).

되었고, 교정치료 중에 눈에 띄어 많이 빠지는 다양한 재질의 bracket도 개발되었다(plastic bracket 발하였다. 최근에는 호선을 bracket에 붙는 과정이 없는 자가결합장치(Self-ligating bracket)가 도입 러 임상자들이 스스로가 주장하는 처방과 디자인의 bracket을 만들고 이에 기반한 치교 기법을 개 bracket을 만들어 “Straight Wire Appliance”라고 명명하였다. Roth(1976), McLaughlin 등(1991) 여 정상교합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six keys to normal occlusion”이라고 제시하고 여기에 기초한 Jarabak(1963)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용적인 수준에 이를 것은 Andrews(1972)의 업적이다. 그는 Bracket에 처방을 넣어 교정용 호선의 곡률을 풀이려는 시도를 한 최초의 사람은 개를 붙인 스위 “Siamese twin” bracket을 고안하였다.

Lewis(1950), Lang(1972) 등은 귀틀이에 작은 부좌물을 붙이기도 하였고, Swain(1952)은 bracket 두 Angle이 처음 만든 북이 북은 bracket은 회전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Bracket의 진화

년(Begg Orthodontic Theory and Technique)에 대한 책을 저술하였다.

에 적합한 철사를 개발하여(1944) Australian wire로 이름을 붙이고 1965년에 자신의 독특한 테크 자신의 독특한 장치를 개발하였다(1933). 그 후 호선에 부품을 많이 구부려야 하는 자신의 테크닉 띠치공간의 폐쇄에 어려움에 접해가, Angle의 ribbon arch appliance를 뒤집은 형태를 기본으로 한 게 교정치료 기법을 배운 호주인 Begg는 고국으로 돌아가 소구치 띠치를 수용한 치료를 하면서 가는 철사를 이용하여 약한 힘으로 치아이동을 도모하였다(twin-arch technique). 1925년 Angle에 edgewise appliance와 ribbon arch의 장점을 결합한 universal bracket을, Johnson(1929)은 두가닥의 labio-lingual appliance를, McCoy(1922)는 open-tube appliance를 고안하였다. Atkinson(1929)은 의 실측호선으로 치아에 약한 힘을 가하여 치아이동을 도모하였다. Lounie Sr., Oliver, Porter 등은 제 되었다. 이 장치는 치프 후의 유지를 위한 보정장치로 많이 이용되었다. Mershon(1909)은 가철식

Angle의 제자인 Hahn에게 1928년 교정치료를 배운 Tweed(1895-1970)는 그의 탁월함을 인정한 후 스승의 가르침대로 비발치로 교정치료를 한 결과 얼굴 모습의 악화와 장치 제거 후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골치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4개의 소구치를 뺀고 다시 치료를 하여 1940년 미국교정학회의 연례 학술회에서 100 증례를 전시하였다. 이 사건으로 Tweed는 많은 선배들에게 극찬을 받았으나 평만이 높을 뿐이었던 Strang(1881-1982)은 꼭 필요하면 발치를 수용해야 한다

목적으로 한 발치는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교정 임상에서 사라졌다. Friendship)와 1920년대에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당시에는 Angle의 추종자들이 이겼고 교정치료를 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Angle의 제자인 Dewey(1881-1933, Science knows no 틀 수는 있지만 많은 환자에서 심미적으로 떨어지고 안정성이 결여되므로 꼭 필요하면 치아의 배열 약화는 물론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Case는 치열운동 항상 모든 치아가 배열될 수 있을 만큼 확대 유지되어야 이루어진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과도한 치열의 확장 배열은 얼굴 모습의 모를 이를 것이며, 환자가 그 결과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던 간에 최상의 외모는 모든 치아가 다 룬에 대한 치열의 관계는 매우 다양하나 개인적 치아가 이상적인 포함을 이룰 때 이상적인 외 며 모든 얼굴을 정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gle은 의 얼굴에는 너무도 많은 형태가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얼굴을 이상적으로 결정하기는 불가능하 “stress trajectory theory”, 당대의 저명 예술가인 벨렐포수와의 치아와 안포의 심미성 토론(인간 학, 뼈의 구조는 특정구조물에 가해진 스트레스에 부합되게 재구성된다는 생리학자 블포의 하였는데 이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의 신앙심과 더불어 인간간의 완벽성을 강조한 루소의 철 Angle은 말년에 교정치료를 위해서 발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발치불가론”을 주장

1) 소구치 발치에 대한 논쟁

5. 치과교정학에서의 주요 논쟁

도입하여 더욱 간편하고 정밀한 장치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치를 만든 것에서 시작하여, Sheridan(1993)이 Essix retainer로 발전시켰고, 최근에는 CAD-CAM를 다. 이 방법은 Kesling(1945)이 석고모형에서 치아를 재배열하여 이것에서 탄력성있는 물질로 장 또 다른 시도는 가철식의 투명한 교정장치(clear aligner)를 이용하여 치아이동을 도모하는 술식이 하여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선측 교정장치(Witekman, customized lingual appliance, 2004)가 소개되었다. 장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CAD-CAM를 도입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환자에게 매우 불편하고 술자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행하는 기법이 개발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일본의 Fuita(1979)가 선측교정장치(lingual orthodontics)를 졌다. 이에 부응하여 기존에는 치아의 순측에 bracket을 장착하던 것을 선측에 부착하여 치료를

터판권증을 내렸다. 지역의 경쟁한 학자들이 교정치표, 구체적으로 소구치 받치가 턱관절증 교정치표하던 환자가 교정치표 때문에 턱관절증이 발생하였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85만불을 배상 파의사들은 교정치표에서 턱관절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1987년 미시간 주 법원은 소구치를 뽑고 서 석고모형을 마운팅하여 진단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1970년대부터 교정치표에도 gnathology의 개념을 적용해야 하며 특히 증상의 상태에 턱관절증의 원인은 다양한 여러 요소에 의한 것이며 그 한 요소가 교합의 이상으로 여겨지고

3) 교정치표와 턱관절증의 연관에 대한 논쟁

측면에서 유용할 있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 이 또한 중요한 미완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 조철에서는 대단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Tulloch et al.1998), 정신사회적 문제 등의 Pennsylvania 대학에서 국가(NIDCR)의 지원을 받아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조치가 성상 나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1990년대에 North Carolina, Florida, 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큰 차이가 없이 치표 기간만 늘어 구치의 받치나 악교정수술의 필요성을 줄이고 더 좋은 치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 축진이 가능하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다. 조치가 턱관절에 관성하는 학자들은 이로 인해 소 한 어린 시기에 치표를 하면, 특히 기능성치표를 이용하여 치표를 하면 질대적인 하악골의 성장 하게 치표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였다. 특히 하악골이 후퇴된 2급부정교합자에서 성장이 활발요 Tweed(1962), Moyers(1988), Ricketts(1998) 등은 조기 치표의 효용을 조심스럽게 부정하며 불필요 시대에는 교정치가 성장과 연관패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되면 빨리 치표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대체로 두부방사선규격사진이 이용되기 전의 Fox(1803)는 13세 이전에 치표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Angle(1907)은 부정교합이 인지기 치과교정치표는 언제 하는 것이 이상적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원칙이

2) 조기치표의 효용에 대한 논쟁

치과교정학이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문애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계 된 점 등에 의한 것이다. 현재도 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으며 이는 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상적인 안도의 개념 변화, bonding의 개발에 의해 밴드 공간이 필요하지 않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 결과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받치용이 다 악골의 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개념에 따른 중생의 경우 뿐만 아니라 악관 관계의 부조화를 어나 1960년대에는 미국 교정환자의 파반수 이상에서 일부 치아들이 받치되었다. 이는 교정치표가 모두가 적은 현대인에서는 교정치표를 위한 받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받치치가 점점 계자인 Beggs는 호주의 원주민의 교합을 관찰하여 attritional occlusion의 개념을 확립하여 치아의 마 고 Tweed를 지지하였다. 이 사건 이후 1940년대 말부터 받치 치표가 재도입되었다. 또 다른 Angle의

1.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1: Antiquity to the mid-19th centur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5; 127:255-9.

2.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2: Entering the modern era,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5; 127:510-5.

3.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3: The professionalization of orthodontic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5; 127:749-53.

4.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4: The professionalization of orthodontics (concluded),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5; 127:252-7.

5.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5: The American Board of Orthodontics, Albert Kecham, and early 20th-century appliance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5; 127:252-7.

6.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6: More early 20th-century appliances and the extraction controvers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5; 128:795-800.

7.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7: Facial analysis before the advent of the cephalometer,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6; 129:293-8.

8.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8: The cephalometer takes its place in the orthodontic armamentarium,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5; 129:574-80.

9.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9: Functional appliances to midcentur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6; 129:829-33.

10.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10: Midcentury retrospect,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6; 130:253-6.

11.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11: The Golden age of orthodontic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6; 130:549-53.

참고문헌

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위 Wittig(1987) 등 기능교합학파의 소구치 탈치 후 교정 치료는 하악골을 후방으로 견인하여 턱관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고 무엇보다 배설 원들은 치과외사의 주의를 무 위만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 이후 교정치료를 하는 치과외사들은 턱관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미국교정화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부정 교합, 교정치료와 턱관절증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Reyners(1990), Sadowsky(1992), McNeil(1993) 등은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들을 meta-analysis하여 교정치료가 턱관절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논쟁에 대해 아직 명백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12.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12: Two controversies: Early treatment and occlusion,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6; 130:799-804.
13.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13: The temporomandibular joint and orthognathic surger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7; 131:263-7.
14.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14: Surgical adjuncts to orthodontic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7; 131:561-5.
15.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15: Skeletal anchorage,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8; 134:707-10.
16.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16: Late 20th-century fixed appliance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8; 134:827-30.
17. Tweed CH Jr. Pre-orthodontic guidance procedure: classification of facial growth trends; treatment timing. In: Kraus BS, Riedel RA, editors. Vistas in orthodontics. Philadelphia: Lea & Febiger; 1962. p. 359-89.
18. Ricketts RM. The wisdom of the bioprogressive philosophy. Semin Orthod 1998; 4:201-9.
19. Moyers R. Handbook of orthodontics. 4th ed. Chicago: Year Book; 1988. p.346-7, 433-4.
20. Bishara S, Justus R, Graber TM. Held by the College of Diplomats of the American Board of Orthotics. Quebec City, Canada, July 13-17, 1997.
21. Tulloch C, Phillips C, Proffit W. Benefit of early Class II treatment: progress report of a two-phase randomized clinical trial.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1998; 113:62-71.
22. Ricketts RM. The evolution of diagnosis to computerized cephalometrics. Am J Orthod 1969;55:795-803.
23. Andrews LF. The six keys to normal occlusion. Am J Orthod 1972; 63:296-309.
24. 권중태, 측두하악장애 환자에 대한 교정외과적 측면의 이해, 대한교정학회지 1995;25(5):635-639.
25. Reynders RM. Orthodontics an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1966-1988), Am J Orthod Dentofac Orthop 1990; 97:463-71.
26. Sadowsky C. The risk of orthodontic treatment for producing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 literature overview. Am J Orthod Dentofac Orthop 1992; 101:79-83
27. Sadowsky C, Muhl ZF, Sakols EI. Temporomandibular joint sounds related to orthodontic therapy. J Dent Res 1985; 64:1392-95
28. Sadowsky C, Poisen AM. Temporomandibular disorders and functional occlusion after orthodontic treatment: results of two long-term studies. Am J Orthod 1984; 86:386-90
29. McNeill C(ed). Temporomandibular disorders guidelines for classification, assessment and management. Chicago, Quintessence Publ Co., 1993.

30. Paquette DE. Clear aligner treatment, p 639-688 in Orthodontics: Current principles and techniques (ed) Graber, Vanasdal, Vig, Elsvier, 2012.
31. Wiekman D. Lingual orthodontics with completely customized appliances, p 615-638 in Orthodontics: Current principles and techniques (ed) Graber, Vanasdal, Vig, Elsvier, 2012.

턱교정수술의 발달

정인표¹⁾, 손우성²⁾

1. 머리란
2. 턱교정수술에 기여한 역사적 주요 인물과 그들의 업적
3. 무엇이 턱교정수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나?
4. 턱교정수술의 최근 경향

1. 머리란

턱교정수술의 적응증인 악안면변형은 상당한 기능 장애, 외모의 불만 그리고 이에 따르는 사회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는 해도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치료가 아닌 대표적인 선택적 치료(elective surgery)에 해당되며, 모든 수술을 위해서 해결되어야 했던 통증, 간염, 출혈, 부종의 조절이 가능하지 않았던 19C 중반까지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1842년 롱 기점으로 전신마취술(Long 에테르 1842, Wells 소기 1844, Morton 에테르 1846, Simpson 클로포포틀 1900)이 개발되고 이어서 수술을 가능하게 한 혈액형의 발견(란트슈타이너 1901), 항생물질 사용(플레밍 페니실린 1929, 클로리과 제인 사람에 페니실린 적용 1941) 등으로 보다 안전하고 덜 고통스럽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턱교정수술도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예측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턱교정수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턱교정수술에 기여한 역사적 주요 인물과 그들의 업적

악안면변형을 치료하기 위해 행한 최초의 수술은 1849년 미국에서 Hiltien이 화상 때문에 북파 가슴에 반흔조직이 생겨 그 영향으로 개방교합이 된 사람에게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1)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2)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과

악골 후방부 문체절측과 구강내 접근 하악지 수평절단술을 시행하였다.

1927년 German School을 열었다. 그의 제자 Schuchart(1942)는 전치부 개방교합을 고치기 위해 상 LeFort I osteotomy(1927)를 하였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상악관 전방문체절측도 개발하였다. 그는 maxillary osteotomy and inverted "L" ramal osteotomy) 개방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으로 하였으며 1그에게 영향을 받은 Wassmund(1927)는 상, 하악골의 수직 기법을 개발하였는데(Total 고정수술의 아버지'로 일컬어진다. 그도 제 1차 세계대전 중 연골을 다친 병사들의 치료를 많이 치과의사이면서 의사였던 베를린 출신 Cone-Stock(1921)은 상악관전방문체절측을 개발하여, 악골 후방부 문체절측을 개발하였다.

“서부전선 기적의 사나이”로 불렸으며 의과학위를 받고(1921년) Ivy를 도와 성형외과를 전공한 클라렌 문체절측과 들어 떨어진 두개골을 치료하는 보철물을 만들었다. 그는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Kazanlian (1879-1974)은 철사공장에서 일한 후 하버드치과대학을 졸업하였는데, 그때의 경험을 해 하악지에 수술을 한 최초의 사람은 Babcock(1909)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메니아 출신인 하악지의 수평절단(horizontal osteotomy)은 1907년에 처음 보고되었다. 개방교합의 치료를 위하여 상악골의 수술에서 적용되었다(Lefort classification).

프랑스의 Lefort는 사체의 두개골을 피아노 다리모 가락하여 문체절측 양상을 보고하였는데 이 작업은 정교한 수술을 위하여 문체가 변형되어 재배치되어 되고 개방교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수술 결과는 그리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문체절측 후 상악관 전방부 절측면이 적어 근육의 만은 수술용 톨(wire saw)를 턱 수술에 사용하였다. 이는 조위 “blind surgery”라고 하며 간편하게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Kostekka(1928)는 이탈리아의 산부인과 의사 Gritti(1890)가 발명된 철사로 유럽에서는 Berger(1897)가 하악전술을 개선하고자 하악과 두골기 절제술(condylar osteotomy)을 가 되었다. 그는 “이상적인 교합이 항상 최상의 연골을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중 미국 육군의 자문의료로 많은 경험을 하고 전쟁이 끝난 후 Ivy와 같이 미국 최초의 성형외과 교수 한 몇 가지 수술 방법을 기술하였고 1912년에는 최초의 교과서를 출판하였다. 또 제 1차 세계대전 1907년에는 ‘Operation on the jaw-bone and face’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악안면 변형 치료를 위하여 다섯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치료에 교정치료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한 사람이었다. 그는 Blair는 최초로 악안면변형을 하악전술, 하악후퇴, 상악치조골 분절, 하악치조골 분절, 개방교합의 여 소위 “Battle of Priority”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Blair 등의 세인트루이스 그룹이 승리하였다. 라고 불렀는데 시카고 출신인 Talbot가 이 보다 몇 년전에 자신이 제안하였다고 우선권을 주장하 되면서 턱교정수술(double mandibular resection)을 하였다. 이 방법은 소위 “St Louis operation”이 를 시행하였고, 1906년에는 Angle로부터 교정치료만으로는 개선하기 힘든 주걱턱 외과대학생을 의 조창기 악교정수술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으며 1897년에 하악체부 절단(mandibular body osteotomy) 술은 혈류 공급 유지 때문에 하악에서만 시행되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활동한 외과의사인 Blair는 수술은 마취, 항생제, 정교한 기구 없이 시행된 것이다. 턱의 형태를 바르게 하기 위한 초기의 수

1972년 Tessier가 뉴욕을 방문하여 수술 시범을 보이기 전에는 미국에서는 혈액 공급, 림프관의 소관류를 담당하여 중앙면부의 수술이 행해지지 않았다. 1974년에 유럽의 문헌에 104건의 LeFort I 등례에서 안정성과 수술예지성이 있다라는 보고가 발표된 후 Bell과 Epker가 중앙면부의 수술을 시 작하였다. 이 시기에 외과의들은 수술 전 표적표가 턱교정수술의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을 인식하고 교정외과의사와 함께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는 전후방적인 면(sagittal)에만 치우

1950년대에 들어 악교정수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Caldwell과 Letterman(1954)이 하직조 신경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하악지수직절단술(vertical ramus osteotomy)을 보고하여 하악이 큰 사람에서 시행되던 하악체절단술(body osteotomy)를 대체하였다. 비엔나(Vienna School of Maxillo-facial Surgery)의 Trauner와 Obwegeser(1957)는 양측 하악지 시상분할술(bilateral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을 보고하여 림이식없이 3차원적인 악관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Robinson 과 Moos는 구강외 절근법으로 하직조신경 후방의 하악지 수직 절단술을 시행하여 하악전돌을 개 선하였다. Obwegeser는 1960년부터 상악골에서의 수술을 시작하여 1969년에는 치열안모변형의 치 료에서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전에는 중앙면이 결핍되어도 가끔씩 하악에서 수술하였으나 그 후부 터 LeFort I ostotomy를 통하여 개선하게 되었다. 1970년에는 처음으로 양악수술을 하였다. 이 기 간 동안 하악의 수술도 더욱 발전되어 intraoral vertical oblique osteotomy, total mandibular subapical osteotomy, lower border osteotomy 등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 들어 악교정수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Caldwell과 Letterman(1954)이 하직조 신경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하악지수직절단술(vertical ramus osteotomy)을 보고하여 하악이 큰 사람에서 시행되던 하악체절단술(body osteotomy)를 대체하였다. 비엔나(Vienna School of Maxillo-facial Surgery)의 Trauner와 Obwegeser(1957)는 양측 하악지 시상분할술(bilateral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을 보고하여 림이식없이 3차원적인 악관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Robinson 과 Moos는 구강외 절근법으로 하직조신경 후방의 하악지 수직 절단술을 시행하여 하악전돌을 개 선하였다. Obwegeser는 1960년부터 상악골에서의 수술을 시작하여 1969년에는 치열안모변형의 치 료에서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전에는 중앙면이 결핍되어도 가끔씩 하악에서 수술하였으나 그 후부 터 LeFort I ostotomy를 통하여 개선하게 되었다. 1970년에는 처음으로 양악수술을 하였다. 이 기 간 동안 하악의 수술도 더욱 발전되어 intraoral vertical oblique osteotomy, total mandibular subapical osteotomy, lower border osteotomy 등이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 들어 악교정수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Caldwell과 Letterman(1954)이 하직조 신경의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하악지수직절단술(vertical ramus osteotomy)을 보고하여 하악이 큰 사람에서 시행되던 하악체절단술(body osteotomy)를 대체하였다. 비엔나(Vienna School of Maxillo-facial Surgery)의 Trauner와 Obwegeser(1957)는 양측 하악지 시상분할술(bilateral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을 보고하여 림이식없이 3차원적인 악관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Robinson 과 Moos는 구강외 절근법으로 하직조신경 후방의 하악지 수직 절단술을 시행하여 하악전돌을 개 선하였다. Obwegeser는 1960년부터 상악골에서의 수술을 시작하여 1969년에는 치열안모변형의 치 료에서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전에는 중앙면이 결핍되어도 가끔씩 하악에서 수술하였으나 그 후부 터 LeFort I ostotomy를 통하여 개선하게 되었다. 1970년에는 처음으로 양악수술을 하였다. 이 기 간 동안 하악의 수술도 더욱 발전되어 intraoral vertical oblique osteotomy, total mandibular subapical osteotomy, lower border osteotomy 등이 이루어졌다.

1928년에는 하악골 수술을 많이 한 Pichler가 Vienna School을 설립하였는데 이곳에서 20세 기 음반을 대표하는 외과의사가 많이 배출되었다. 그의 제자 Trauner는 왜소악(micrognathia)의 수 술법을 개발했고, Trauner의 제자 그라쾅의 Kole는 치조골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수술법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즉 돌출된 입을 고지기 위하여 양악 치조 수술(bimaxillary alveolar surgery)을 처음으로 포 하였으며, 심피개교합(deep bite, short face), 개방교합의 수술법과 이부성형술(genioplasty)에도 기여하였다. 또 1959년에는 하악골 전방부에서 절근절하 분절단술(subapical dentalveolar osteotomy)을 소개하였다. 1964년에는 'Surgical orthodontics'에 대한 최초의 교과서 발간에 기여 하였다.

또 다른 Trauner의 제자 Obwegeser(1955)는 구강내로 절근하여 하악골시상분할법(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을 개발하였으며 1956년부터 유럽대학의 악안면외과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최 초로 LeFort I osteotomy(1969)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미국에서는 하악골수술 시의 하직조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한 방법 개발에 노력하였는데 미시 간의 Dingman(1944)은 수술기법, 고정법, 합병증 감소에 업적을 단냈다. 뉴욕의 성형외과의사 Converse는 교정외과의인 Horowitz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악안면기형의 치료를 하여 1969년에 몇 가지 수술법을 발표하였다. 그는 특히 연조직의 재건술과 연체하여 악면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턱교정수술은 대표적인 선택적 치료(elective treatment)이며 따라서 환자의 동의(informed consent)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초기부터 치료의 결과를 예측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1960년대 말부터 턱교정수술을 하는 환자에서 교정치료와의 협진이 일반화되었다.

2) 수술-교정 협진 체계의 확립

수 있게 되었다.

으로 턱교정수술에 따르는 구토(nausea)의 조절, 항생제 사용에 관한 감염 관리(infection control) 등 전신마취에 따르는 구조(nausea)의 조절, 항생제 사용에 관한 감염 관리(infection control) 등 이후 종창을 줄임으로써 호흡 곤란과 불편을 줄이고 사회로 복귀를 빨리 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수술 시간을 단축하며, 지혈을 효과적으로 하고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약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수술 후의 부종(edema control)도 큰 문제였는데 수술 기법의 발달로 수술 시의 손상을 줄이 게 하였다. 이에 의해 수술 중 시야를 좋게 하고 복잡한 수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를 통해 감소시켜 수술의 필요성을 줄이고, 수술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되어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혈압마취(hypotensive anesthesia)가 턱교정수술에도 적용되어 수술 시 순환 동종의 조절뿐만 아니라 수술 중의 위험을 관리하여 외과의가 안심하고 수술할 수 있게 하였 것을 발표하였다. Chloroform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Simpson(1900)으로 알려져 있다. 마취학은 단 (nitrous oxide)를, 또 다른 치과의사인 Morton(1846)이 수술을 위한 마취 목적으로 에테르를 이용한 하여 마취를 하였으나 공식적인 보고는 하지 않았고, 곧네터컷 주치의 치과의사 Wells(1844)가 초기 동증조절을 위한 마취법이 개발된 시기는 19C 중반으로 의사인 Long(1842)이 에테르를 이용

1) Medical advance : 동증과 합병증(complication)의 경감

3. 무엇이 턱교정수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나?

받되어 약교정 수술을 발전시켰다.

신마취(총혈 감소), 작은 기구의 개발, 컴퓨터를 이용한 치료계획, 3차원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이 개 평가하여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 이 외에도 냉동건조, 인공관, 생분해물, 저혈압전 Objective:STO)를 정립하였다. Profit 등(1996)은 턱교정수술의 방법에 따른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Wolford(1990)는 턱교정수술의 치료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체계적인 방법(Surgical Treatment

등). 최근에는 플레이트의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이 필요없도록 흡수가 되는 재질이 개발되었다. 의 불편이 감소되었다(6-8주의 약간고정, 유동식, 잇솔질 못함, 민선공포증과 유사한 심리적 문제 1990년대에는 견고고정(rigid fixation)이 전반적으로 사용되어 정밀한 수술 결과가 얻어지고 환자 용하여 고정하는 술식이 1983년부터 적용되어 재발을 줄이고 약간 고정 기간을 단축하게 되었다. 컸으나 1975년부터 횡적(transverse)인 부조화도 다루기 시작했다. 악관 분절을 금속판(plate)을 이

상악의 수술에서 가장 큰 문제는 수술 중에 출혈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Bell은 원숭이를 이용

II) 상악의 수술

하악골의 수술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합병증은 하치조신경의 손상에 의한 감각 장애이다. 또 한 수술 후 점측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술후 안정성에 유리하다. 초기의 하악골체절단술을 지양 하고 하악지에서의 수술법이 발전되었는데 Tramer는 상행지에서 L-자의 골절단술(Inverted L osteotomy of the ascending ramus), Obwegesser(1955)는 구강내 하악시상분할법(Intraoral sagittal split osteotomy of mandible)을 기술하였고 이 방법은 이탈리아의 Dal Pont(1958), 미국의 Hunsuk(1968) 등에 의해 개량되었다. 하악지 시상절단을 외에도 하악상행지 수직절단술(Vertical ramus osteotomy)도 시술 방법이 간단하고 턱관절의 위치유지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턱관절을 이 있는 사람이나 하악비대칭 증례에서 많이 시술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하악지의 수직골절단의 형 태에 따라 다양한 수술방법이 개발되었다.

I) 하악의 수술

- 수술의 안정성(safety of technique)
- 수술 후 병적 상태의 감소(reduced morbidity-neurologic or vascular)
- 수술 후 안정성(stability of procedure)
- 치유의 촉진(enhanced rate of healing)
- 마취 하 수술시간의 단축(reduced surgical time under anesthesia)

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수십년간 환자들의 다음과 같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턱교정수술의 기법은 비약적

3) 수술기법의 발전

현재는 수술-교정 형진 치료의 순서와 각 분야의 책임에 대하여 관 정립이 되었다. 수술 전 교정 치료로 악안면변형을 보상하기 위해 이루어진 부정교합을 해소(decompensation)하여 골격 관계의 부조화를 드러나게 하고 상하악 치열군의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하고 수술을 하면 결과의 예측과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교정장치에 안정화 호선(surgical arch wire)을 삽입하여 수술함으 로써 종래의 arch-bar에 의한 치주조직의 손상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두부방사선규격사진 상에서 모의 수술을 해 보고(surgical treatment objective, STO) 이를 토대로 모형수술을 시행한 후 여기에 서 수술용 스텐던트(surgical aplint, surgical wafer)를 제작함으로써 정확한 수술과 술후 안정성 (immobilization)의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교정장치는 수술 후 회복기에 시행되는 악물기능 재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며, 그 후 마무리 교정치료를 통하여 정교한 교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악구 강제의 기 능 회복이라는 턱교정수술과 교정치료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키프법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용되면서 상, 하악 동시 수술도 더 많이 시행되게 되었고,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선수술-후교정 있어 뿌리 힘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구강위생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게 되었다. 이 방법이 1980년대 중부터 견고고정법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조기에 만을 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10년 정도 후에 Spliss이 하악지 시상절단술을 한 환자에서 나사로 고정하였다(1974).

과 나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osteosynthesis). 그러나 턱교정수술에 이 원리를 적용한 것은 금속판(gold plate)을 만들어 사용한 기법이 있고 1960년대 만 스위스에서 판다리를 위한 금속판 (depression)가 조래될 수 있었다. 1917년 독일의 Sorensen이 분해권절된 하악골을 고정하기 위해 체중 감소, 식욕 감퇴, 턱관절 통증, 안면근 통증 등의 신체적 문제와 함께 심리적으로 심한 침체 (suspension wire) 최소 6주 이상 유지하였다. 이렇게 입을 못 벌리게 하면 음식섭취 제한으로 혈의 약간고정과 안와하악연(inferior orbital rim)이나 권륜궁(zygomatic arch) 등에 wire로 비문어 때 견고고정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턱교정수술 후의 회복기에 문편이 움직이지 않도록 상하악지

IV) 견고고정법 (rigid skeletal fixation)

심미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었다. 이 뿐 아니라 턱교정수술에 일반적인 원론성형수술(이부성형, 윤곽성형 등)이 첨가되어 보다 고 하였다. 현재는 수술 방법의 개선과 마취의 발전, 견고고정법의 적용으로 양악수술이 일반화되 문헌술을 한 양악수술의 경험을 발표하면서 심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중후 안정성이 증가된다 단술을 보고하였고, Obegser는 1970년에 상악에서는 LeFort I osteotomy를 하악에서는 양측상악 함께 수술을 해야 보다 조화로운 원론을 달성할 수 있다. Kötze은 이미 1959년에 상하악 치조골 절 많은 아안면변형을 환자는 상악과 하악에 문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하악에서

III) 양악수술 (Two jaw surgery)

의 절개 없이 시술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제와 수술의 복잡성, 절단 부위의 공간 잔존 등이 문제가 되었었다. Bell, Epker 등이 구개첨막 Wassmund, Wunderer, Kötze, Schuchardt 등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나 문철 문편에의 혈류 문골 문 의 일부만 문철시키는 외과적 수술로 상악 전방문철술과 상악 후방문철술 모두 시행되어 왔으며 개월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상악 문철술은 상악전체를 포함하는 Le Fort series와는 달리 상악 osteotomy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술은 수술 기구의 발달과 plate나 screw 같은 견고고정법의 안면부의 함몰이 심한 경우 LeFort II osteotomy가, 선천성 안면기형의 치료에는 LeFort III 보고하였다. 통상적인 악교정수술에는 주로 LeFort I osteotomy가 이용되나, 포를 중심으로 한 증 를 보고하였고, Epker 등도 같은 해에 중안면부의 기형을 치료하기 위해 상악에서 수술한 방법을 한 실험에서 상악절제 후의 혈류 문골에 대한 연구에 한 후, 1975년에 LeFort I osteotomy의 방법

최근 환자들은 전체적으로 원인이 작아지고 가름해지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KÖle, Owgeser 등이 오래 전부터 상,하악 양악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궤합평면의 회전을 시도한 것은 비 표적 최근의 일이다(Reyncke 등 1990, Wofford 등 1993). 특히 중앙면부가 긴 장안도 III급 부정교합자에서는 상악의 후방부를 더 절제하여 하악이 회전된 상태에서 하악의 수술을 많이 해주면 원인이 작아질 뿐 아니라, 수술 후 전치부의 수직피개가 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 많이 시행되고 있다.

1) 양악회전수술(Two jaw surgery with rotational set-back of maxilla, Rotation of maxillo-mandibular complex)

최근에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 따라 문턱성 부정교합의 치료만이 아닌 외모의 심미적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다양한 의표정보를 수집하여 때로는 치과의사보다도 결정되지 않은 새로운 경향의 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외과-치과적 탈전에 의해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수술이 가능해졌으며 외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수술(공관 성형, 연조직 수술)등도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치료 기간의 단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4. 턱교정수술의 최근 경향

최근에는 IT 산업과 의료 장비의 급속한 발전으로 치과에서도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CT)이 이용되었고 특히 Cone-Beam computed tomography(CBCT)가 널리 보급되어 악골의 변형을 삼차원적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가상 수술(virtual surgery)과 surgical splint 제작(stereolithographic model)이 가능해져서 턱교정수술 분야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Prifti와 Akerman(1985)은 턱교정수술이 꼭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조화의 범주(envelope of discrepancy)”를 제시하였다.

Prifti와 Akerman(1985)은 턱교정수술이 꼭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조화의 범주(envelope of discrepancy)”를 제시하였다. Prifti와 Akerman(1985)은 턱교정수술이 꼭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조화의 범주(envelope of discrepancy)”를 제시하였다. Prifti와 Akerman(1985)은 턱교정수술이 꼭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조화의 범주(envelope of discrepancy)”를 제시하였다.

v)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의 수립 : 턱교정수술의 예지성과 안정성의 확보

1.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13: The temporomandibular joint and orthognathic surgery,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7; 131:263-7
2. Norman Wahl. Orthodontics in 3 millennia. Chapter 14: Surgical adjuncts to orthodontics, Am J Orthod Dentofacial orthop 2007; 131:561-5.
3. Profit WR, White RP. Surgical orthodontic treatment, St Louis, Mosby, 1992.
4. 박 제 역. 약교정수술학, 군자출판사, 2003. p 267-317.
5. 황 상 역. 역사 속의 의인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 229-54.
6. Profit WR, Akerman JL. A systematic approach to orthodontic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In Graber TM, Swain BF: Current orthodontic concepts and technique, ed 3, St Louis, Mosby, 1985.
7. Sarver DM et al. Video imaging in planning and counseling in orthognathic surgery, J Oral Maxillofac Surg 1988; 46:939-45.
8. Worford LM et al. Surgical treatment objective: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prediction tracing, St Louis, Mosby, 1995.
9. Reyneke JP, Evans WG. Surgical manipulation of the occlusal plane, Int J Adult Orthodon Orthognath Surg 1990; 5:99-110.

참 고 문 헌

2) 선수술 - 후교정, 또는 최소 술전 교정치료

30여년 전에 정립된 수술전 교정치료-턱 수술-마무리 교정치료의 개념은 야안면변형의 치료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으나, 치료 기간이 길고 특히 술전 교정치료 기간 동안 외모가 더 나빠지고 기능적으로도 많이 불편하다. 따라서 최근에는 먼저 턱교정수술을 시행하고 짧은 기간에 교정치료를 통해 교합을 개선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치료 방법은 아니고 과거부터 여러 가지 의견으로, 그리고 조건이 되면 턱수술만 하던 것의 적응증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석고모형에서의 가상의 치아배열, 나아가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치아 배열(virtual set-up)을 쉽게 할 수 있고 micro-implant를 교정치료에서 이용하여 치아의 합입을 비롯한 증진에는 대단히 힘들었던 치아이동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선수술 또는 최소한 술전교정치료 후 턱수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치과의사학이란 의학학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 및 역사적 배경 등을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치과의사가 하고 있는 일의 영역에 대한 의미와 배경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원천적 자료를 물리치면서 잠시 짚을 내어 떠난 유럽여행에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거나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대성당 앞에서 사진 몇 장 찍은 것으로 만족한다면, 치과의사에 대해 그 여행은 그비용 저효율적일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치과의사에게 보다 의미있는 유럽 여행이란 일반인의 눈으로만 보는 유럽이 아닌 치과의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을 몇 군데 추가하여 둘러보는 것이다. 여행을 하면서 치과의사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면 원상대로 돌아와 진표하면서 출판함과 행복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다. 치과의사학을 공부하면서

머리말

1	프랑스
2	영국
3	독일
4	이탈리아
5	스페인
6	그리스
7	오스트리아
8	덴마크
9	러시아
10	노르웨이
	맺음말

권 1) 글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유럽여행

5) 기왕역 : 의학, 치과의학의 선구자들, 아카메미아, 1995.

4) 이한수 : 치과의사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3) Don Dible : The dental patient's little book of history, humor and trivia, DMD house, 2006.

2) 이철호 : 이가 아파요, 기교출판, 2007.

거진 적비를 만나게 된다. 바빌로니아 왕국의 제1왕조 함무라비 왕이 제정 반포한 법전중에 “곧
루브르 박물관도 치과의사학적으로 흥미로운 곳이다. 먼저 박물관 안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새
로 활동하고 있다.”⁵⁾

지 않을 것이며 지금도 그를 기념하는 International Pierre Fauchard Academy란 단체도 세계적으
환자를 마약에 토크하여 치료하지 말자고 선언하였다. 포샤르의 치의학에 대한 업적은 절대 잊혀지
민을 하여 하류 계층 선물로 불려지는 안락의자에서 진료를하기를 추천하였다(그림2). 이제 더 이상
mouthwash로 사용하는 것을 께에서 추천하였다. 또한 포샤르는 환자의 몸위에 대해서도 많은 고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였다.⁴⁾ 재미있는 내용도 있는데 요즘 특히 하부의 첫 번째 소변을
로 께를 진찰하였다. 포샤르는 이 께에서 해부학, 외과학, 치주학, 근관치료학, 보존학 및 보철학에
되어있었다. 포샤르는 이러한 비범한 것들만은 모아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
이 시기에는 치과치료 방법들이 모두 비범으로 인식되어 동포 치과의사들에게 철저히 비밀시
년에 863페이지 분량의 책 ‘The Surgeon Dentist(Le Chirurgien Dentiste)’을 출판하였다(그림1).
그레이트 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³⁾. 포샤르는 18세기에 고령의 나이에 해당하는 50세인 1728
포샤르를 꼽을 수 있다. 포샤르의 가장 큰 업적은 치과의사를 기층자가 아닌 전문 직업인으로 업
의사에겐 히포크라테스, 한의사에겐 허준, 간호사들에겐 나이팅게일처럼 치과의사에겐 피에르

후 2시30분터 5시 30분까지 예약한 사람들에게만 개방되기 때문에 꼭 유념해야 할 정보이다.
적뿐만 아니라 17-19세기 무렵의 치의학과 관련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은 매주 수요일 오
Fauchard(1678-1761)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치과박물관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포샤르의 위대한 업
그 무엇보다도 치과의사가 꼭 가봐야 할 곳은 현대 치의학의 아버지로 칭송되고 있는 Pierre
있다.²⁾

사 박물관, 파스티르 박물관, 에콜폴리테크니크, 파리과학원, 파리5대학에 있는 의학사박물관등이
아가 가장 앞선 나라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료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곳으로는 파리 식물원, 자연
판면에 파리가 1800년대에는 ‘세계 과학의 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에서 과학 분
르세 미술관, 에펠탑, 샹젤리제와 개선문, 노트르담 성당, 몽마르뜨 언덕, 베르사유 궁전 등이 있다.
부는 치과의사는 꼭 둘러봐야 할 도시일 것이다. 예종의 도시임을 입증해주는 루브르 박물관, 오
프랑스 파리는 예술과 과학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Art & Science를 다

1. 프랑스

유렵 여행도 들길 수 있는 장소 몇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 지금도 매주 목요일 10시에 영국 성공회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다. 건지섬은 영국해협의 채널제도에 있는 섬이고 주도는 St. Peter port이다. 건지섬은 영국령으로 영국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지만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과의 거리는 50km정도 되어 오히려 프랑스와 더 가깝다. 프랑스에서 건지섬으로 망명한 비트르 위고는 소설,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을 이 섬에서 완성했다고 한다(그림7). 레미제라블은 비트르 위고가 35년동안 마름숙으로 구상했던

다. 건지섬은 영국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지만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과의 거리는 50km정도 되어 오히려 프랑스와 더 가깝다. 프랑스에서 건지섬으로 망명한 비트르 위고는 소설,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을 이 섬에서 완성했다고 한다(그림7). 레미제라블은 비트르 위고가 35년동안 마름숙으로 구상했던

다. 건지섬은 영국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지만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과의 거리는 50km정도 되어 오히려 프랑스와 더 가깝다. 프랑스에서 건지섬으로 망명한 비트르 위고는 소설,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을 이 섬에서 완성했다고 한다(그림7). 레미제라블은 비트르 위고가 35년동안 마름숙으로 구상했던

2. 영국

에는 문, 이야는 이" 라는 구절이 키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8세기 치과시술 장면은 Charlatan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작품은 연단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떤 남자가 탈치에서 감상할 수 있다(그림3). 이 시기에는 치과외사를 설명하는 단어로 Tooth puller 또는 Charlatan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작품은 연단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어떤 남자가 탈치 한 치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옆에는 탈치를 당한 여자가 고통스럽게 울고 있으며 또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잡고 있다. 탈치한 남자 앞에는 또 다른 여자가 손으로 왼쪽 뺨을 만지면 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무렵 탈치사들은 광대와 악사들과 함께 돌아다니면 진표하였는데, 이 그림에서도 탈치사 옆에 원숭이 한 마리가 붙어 있으며 연단 아래에는 악사가 만들린을 연주 하고 있다. 그림의 우측에 터빈(turban)을 쓴 이슬람 교도로 보이는 사람이 구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은 무역이 활발하였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면은 그런 것으 로 추정된다.

이야기를 17년에 걸쳐 완성한 세기의 걸작이다. 이런 최고의 명작 탄생에 두 여인이 큰 기여를 하였다. 위고는 1832년 켈리에트 드루에라는 여배우를 볼품으로 처음 만나 50년 동안 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녀는 레미제라를 원고를 정서하였고, 위고가 망명하는 영국 건지침까지 부인과 자녀와 함께 따라갔다. 위고는 1845년 레오나 당트라는 여배우와 간통혐의로 감옥에 가는 수모를 당한 다. 그 뒤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레미제라를 집필을 시작하여 1862년 건지침에서 탈고했다.

레미제라를 영화의 한 장면에 발자사 간판이 나오는 데 플어르 Attachour de dents(tooth puller)이다. 팡틴은 자신의 뿔 프로젝트가 아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딸이 두 개를 팔아 40 프랑을 마련하여 악마 같은 테네타에게 보냈다. 그 당시엔 전치 한 개가 20프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이다. 팡틴은 자신의 딸이 두 개를 팔아 40 프랑을 마련하여 악마 같은 테네타에게 보냈다. 그 당시엔 전치 한 개가 20프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이다. 팡틴은 자신의 딸이 두 개를 팔아 40 프랑을 마련하여 악마 같은 테네타에게 보냈다. 그 당시엔 전치 한 개가 20프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이다.

전치 두 개를 파는 과정을 살펴보자.

공장을 지나면서 팡틴은 희안하게 생긴 차(車)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봤다. 그 차 위에는 붉은 색을 입은 남자가 서있었다. 그는 순회중인 원전들니, 아편제, 가루약 및 묘약을 파는 차의사-극에사였다. 팡틴도 군중에 끼여 이 남자의 연설을 들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었다. 발치사가 웃고 있던 예쁜 팡틴을 보고 감자기 소리쳤다. 거기 웃는 아가씨 차에야 참 예쁘네요. 당신의 두 Pallettes를 내게 팔면 하나 더 1나를레옹 금을 주지. Pallettes가 뭐예요? 팡틴이 물었다. 위 앞니를 말하는거요. (비꼬는 뉘앙스로) 차의사(로)가 말했다. 금짜해라. 2나를레옹이라야 이가 빠진 북은이가 앞에서 웃었다. 아가씨 좋겠네! 팡틴은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남자의 북 선 북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도망쳤다. 생각해봐요. 예쁜 아가씨! 2나를레옹, 적은 돈이 아니라. 생각해 있으면, 돈을 벌에 Tiliac d'argent 여관에 오면 된 것을 수 있을게요!

화가 잔뜩 난 팡틴은 집에 돌아와 이웃 마그리트에게 방문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이해가 되지 않냐? 이런 나쁜 북을 봤더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냥 놓아두어다나게 놔둘 수 있지! 내 앞니 두 개를 빼려고 그런 내 꼴이 어떻게 되겠어 머리는 다시 자라지만, 이는! 애 괴물 같은 북! 5층에서 떨어뜨려서 죽는게 낫지! 오늘 밤에 Tiliac d'argent 여관에 있는다고 했어요. 얼마 줘대요? 2나를레옹. 그럼 40프랑이네. 네. 40프랑이예요.

생각에 잠겼다가 머니칠 일에 돌아갔다. 15분 후 머니칠을 멈추고 계단으로 돌아가 테네타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옆에 있던 마그리트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죽림선 발진이 뭐죠? 편지를 읽어요? 읽어주세요. 약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아플 정도로 못해. 어떻게 하면 편지를 다시 읽었다. 저 녀리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이 걸리지. 죽나요? 심심하게 죽지...! 팡틴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저 녀리는 거예요? 특히 어린이들이 걸리지. 죽나요? 심심하게 죽지...! 팡틴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이 여자 팡틴은 여관이 모여 있는 길로 갔다.

다음날 아침 마그리트는 침대에 앉아있는 팡틴을 보았다. 창백하고 차가운 잠을 세운 것이다. 머리를 보고 이면심했다. 주머니 조가 다 텅다니! 무슨 일이 있는거야 그리고 머리크림이 없는 머리

또 tooth hunter 또는 robber들의 활약은, 백의의 전사, 포 물려진 나이팅게링이 참여한 크립턴 지만 팔거된 치아들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유럽 전역과 미국에까지 공급되었다고 한다. 안터깝게 어렸고 치아도 팔거되어 거래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신체 훼손은 거의 신성모독의 수준에 해당된 치의 공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워털루 전쟁의 전사자들에게 무기와 귀중품들의 약탈이 이루어지지만 자연치의 거래량은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였다. 이 시점에 워털루 전쟁은 자연치에 불법적으로 거래되었다. 또한 판사의 동의하에서 사형수의 치아들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다. 증가하게 되었다. 이 무렵 자연치는 주로 도둑법, 영안치이나 표지 근무하는 부정직한 사람들에게 무효를 사람들은 자연치를 이용한 틀니를 선호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자연치에 대한 수요가 나중에 이런 틀니를 사람들은, 'Waterloo teeth' 라고 명명하였다.

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틀니는 6주정도 소요되었고 치표비도 엄청났다. 옹고 쉽게 파손되었다. 이 시기에는 ivory base에 자연치를 배열한 틀니가 가장 심미적이었고 옹 리 장어를 깎아서 만든 인공치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아들은 자연치보다 더 부자연스러 (그림9). 포월린 치아가 개발되기 전인 19세기 무렵에는 틀니를 위해 하마, 바다코끼리 또는 코끼 축한 전쟁이었지만, 'Waterloo teeth' 라는 신종어를 탄생시킨 치의학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나폴레옹의 공금 물거품이었던 워털루 전쟁은 20여년에 걸쳐 5만명 이상의 전사자를 낳은 참 포 구강내에서도 출혈이 일어나고 치아가 탈락하고 고통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다.

형평은 플라센 생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C의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으로 포리가 사육의 세인트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곳에서 나폴레옹은 괴혈병으로 고생하였다. 피 나폴레옹의 사면에 불가능은 없다고 하였지만 1815년 워털루(Waterloo) 전쟁에서 패한 후 아 문 것 같다.

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는데 앞장선 나폴레옹이 황제라는 즉위에 오를 것에 찬망하여 마름을 버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찬망하여 프랑스 제국을 포향국 제복을, 영, 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아마도 베트벤은 여, 포나파트트, 라는 제복으로 포향국을 작국했다(그림8). 그러나 베트벤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재웠지만 1돌령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1804년 황제에 즉위하였다. 베트벤은 나폴레옹을 위한 시찰을 보냈다. 나폴레옹은 1799년 쿠데타를 일으켜 제1돌령으로 취임하면서 프랑스의 호란을 잠 란는 군인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위고는 포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여러 도시에서 유년 레미제라블의 저자 빅트르 위고는 1802년에 태어났으며 위고의 아버지는 나폴레옹의 신임

다. 링에는 검은 구멍이 있었다. 두 이는 붉혀져 있었다.
 면서 미소를 지었다. 영초가 그녀의 연를 버렸다. 핏빛 미소였다. 불그스름한 침이 입가에 고였
 에게 탁자 위에서 튀는 2나폴레옹을 보여줬다. 이럴 수가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서? 그냥, 그려
 에요! 아무것도. 이제 우리 애는 그 문쩍한 범으로 죽지 않을거예요. 단 기빠요. 그러면서 마그리트
 를 마그리트쪽으로 돌리는 뾰뚱을 보았다. 뾰뚱은 범사이에 10년을 붙었다. 예수님! 뾰뚱 무슨 힘이

독일어로 동화를 메르헨(Märchen)이라고 하고 '아원상, 이야기'라는 뜻이다.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메르헨)들을 독일 동화작가로 유명한 그림형제가 평생 동안 다듬어서, '그림동화'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그림동화 이야기와 관련된 도시들을 연결하여 마르첸가도(Märchenstrasse, Fairy-Tale Route)가 형성되었다. 그 출발점은 그림 형제의 출생지인 하나우(Hanau)에서 시작하여, 그림형제 박물관이 있는 카셀(Kassel), 18세기 무렵 천주교인 출신인 플라이 의사 또는, '강철수염 박사'의 일화로 유명한 한핀텐(Hamm-Munden), '피리부는 사나이'의 근원지로 명물이 된 하멜른(Hameln), 브레멘 음악대의 배경지인 브레멘까지 총연장 길이 600km에 이르는 동화마을 여행 코스이다. 여러 도시중에서 한핀텐은 지과의사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다.

바르프 시대의 유명한 의사 Dr. Eisenbart(Johann Andreas Eisenbart, 1663-1727)가 생애를 보낸 한핀텐의 고향스런 시청 꼭대기에서는 정시마다 장경이 펼쳐진다(그림10). 빼꾸기 시계 아

3. 독일

1955년 스웨덴 치과의사 Sten Forshufvud(1903-1985)는 나플레옹의 사인에 의심을 갖고 이 원(원)에 착안하였다.

1956년 어떤 사람에게 양도 되었고 2005년 11월 10일 영국 경매 시장에서 11,000파운드(약2000만 원)에 전사하였고 그 이후 수세기동안 마케포니 가문이 치아를 소장해왔다. 나플레옹의 견치는 의 나이로 사망했다. 나플레옹의 주치의 배리 오메이라는 발거된 견치를 포란스 마케포니 장군에게 전사하였고 그 이후 수세기동안 마케포니 가문이 치아를 소장해왔다. 나플레옹의 견치는 나플레옹의 상아 우측 견치는 괴혈병으로 인하여 1817년에 발거되었고 결국에는 1821년 51세 생(1853-1856)과 노예가 해방된 미국 남북전쟁에서도 계속된다.

1955년 스웨덴 치과의사 Sten Forshufvud(1903-1985)는 나플레옹의 사인에 의심을 갖고 이 원(원)에 착안하였다.

1956년 어떤 사람에게 양도 되었고 2005년 11월 10일 영국 경매 시장에서 11,000파운드(약2000만 원)에 전사하였고 그 이후 수세기동안 마케포니 가문이 치아를 소장해왔다. 나플레옹의 견치는 의 나이로 사망했다. 나플레옹의 주치의 배리 오메이라는 발거된 견치를 포란스 마케포니 장군에게 전사하였고 그 이후 수세기동안 마케포니 가문이 치아를 소장해왔다. 나플레옹의 견치는 나플레옹의 상아 우측 견치는 괴혈병으로 인하여 1817년에 발거되었고 결국에는 1821년 51세 생(1853-1856)과 노예가 해방된 미국 남북전쟁에서도 계속된다.

베트벤은 나폴레옹을 위하여, '보나파르트'라는 제목으로 프랑스를 작곡했으나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원망하여 프랑스를 '영웅'으로 바꾸어 1804년 발표했다. 녹
 음의 전체 음악가 베트벤(1770-1827)에게도 치아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다(그림14). 28세 때부터 청

각장애 등으로써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음을 야기할 수 있는데, 카이저 빌헬름 교회의 파괴된 모습은 사람들에게 전쟁의 폐해에 대한 산
 들 교회의 애칭이 바로, 'Broken tooth'라고 한다(그림13). 치아는 파열된 채로 방치되면 큰 합병
 증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서진 모습이 마치 치아가 파열된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빌헬
 름 교회의 상징한 교회였는데 세계 2차 대전 중 폭격으로 인하여 치과대학에 파괴된 모습인 채로 지
 Memorial Church)는 베를린 환복판, 브라이트샤이드 광장에 위치하고 있다(그림12). 독일에서 가장
 독일은 동원한 Wilhelm 1세를 기념하기 위해 건축된 카이저 빌헬름 교회(Kaiser Wilhelm
 1977년에는 그를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되었다. 아이

아이제라트는 사후에도 많은 환자들을 이 넘겨졌다. 1800년 무렵에는 Ich bin der doktor(My
 name is doctor Eisenbarth)라는 제목의 음악이 독일에서 유행하였고 Elke Pies는 동원한 제목으로
 제라트는 40여년 동안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며 활동했던 떠돌이 또는 돌판이 의사로 불려졌지만
 환원된 St. Blasius 교회에 있는 그의 표비에는 'Physician'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

음 distraction이라고 강변할 수 있었지만 국소마취제가 없는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이었
 안 환자가 고통으로 인하여 내지를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행동조절 방법
 함되어 있었다. 그의 단원들이 펼치는 공연을 사람들이 보면서 흥취거리며 먹고 마시며 떠드는 동
 성원들이 이렇듯 그들로서 돌아다니며 진료를 하였는데 구성원들에는 연예인, 풍대와 악사들이 포
 었다. 그가 명사가 된 배경을 알게 되면 참을음을 느끼게 된다. 보통 아이제라트는 120여명의 구
 리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치아를 받거하였고 인공치아를 제작하여 보철도 시행하
 그러나 아이제라트는 뛰어난 말치술로 인하여 명성과 인기가 넘치게 되었다. 그는 죽어가 열
 도 하였다.

시에는 바늘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한 아이제라트의 환상은 사람들에게 돌판이 의사로 평가되기
 의표용 기구(catract needle, polypus hook)를 제작하여 진료에 사용하고 판매까지 하였다. 그 당
 함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였고 자신만의 특효약도 판매하였다. 또한 아이제라트는 자신이 고안한
 수 있는 면허를 획득하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의사로 진료하였다. 그는 문철을 포
 린한 적임을 가진 매형인 Alexander Biller의 지도하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23세에 환자를 치료한
 Barber-surgeon이면서 신비요법사(occultist)의 아들로 태어난 아이제라트는 그의 아버지와 동
 명 박사도 알려진 아이제라트 실존 인물들 테마로 한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

재현한다. 여배는 아이제라트를 위한 죽제가 열리고 지금도 교회 광장에서 매주 일요일 강철수
 래에 있는 창문이 열리고 들리는 인형들이 번뜩이는 움직이면서 아이제라트가 진표하는 모습들

7) Schwartz AW : An organized comprehensive dental collection of stamps, AW Schwartz, 1995
8) Pindborg JJ, Marwitz L : The dentist in Art, George Proffer Ltd, 1961

표행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 정작 성직자로서 본연의 일은 소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외과적 수술과 발치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아 수도승과 사제들이 의생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내린 벌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러한 민승을 바탕으로 수도승과 사제를 응세유럽 안후시대에 교부(Church Fathers)들은 질병 또는 치통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는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비발디에게 풍부한 음악적 재능을 물려준 것은 맞는 것 같다.

산마르코 대성당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고 한다. 비발디의 아버지가 치과진료도 했던 이발사였는지 면 어떤 모습일까? “사제” 또 유명한 작곡가 비발디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보 되었다. 이처럼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역사적 사원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보 기점으로 역사적, 학문적 발달로 인하여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현재의 사회적 지위에 도달하게 를 받았던 직업인 이발사(Barber-surgeon)가 치과 치료를 담당하였다.⁸⁾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를 (그림16). 한 사람은 머리를 손질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발치를 하고 있다. 응세 유럽에서 현대 의사의 조상이 이발사임을 확실히 증명해주는 두 명의 이발사 부조상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산마르코 대성당(Basilica San Marco)은 치과의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치 성당이 1090년에 건축되었다.

담뿔을 세웠다. 그러나 담뿔이 화재로 파괴되었고 그곳에 비잔틴 건축 양식으로 성마르코 대 성당 산드리아에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성마르코의 유골을 묻혀 온 후 성인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표하는 곳은 성마르코 대성당(Basilica San Marco)이다(그림15). 2명의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집트의 , 베니스에서의 죽음' 등이 베니스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베니스를 대 도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베네치아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그려진 소년 로 황금사자상을 받았던 베니스 영화제, 세익스피어의 5대 희극중 하나인 , 베니스의 상인' , 인 옛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중 하나이다. 깃기덕 감독이 , 피에타' 이탈리아의 북부 해안 도시인 베니스는 도시 반복판에 문제가 있고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을

4. 이탈리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명하게 표시된 지휘봉이 전시되어 있다. 베토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우리 치과의사들에게도 전달되어 소리로 들을 수 있다. 독일 Boehm에 있는 베토벤 박물관에 가면 베토벤의 teethmark가 이러한 현상을 bone conduction sound라고 하는데 음파가 두개골에 전도되어 직접 내이(內耳)에 지휘봉을 피아노에 접촉시키면, 피아노의 진동이 치아와 두개골로 전달되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각 장애를 겪기 시작한 베토벤은 지휘봉을 이용하여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었다. 치아로 꽂은

9) Ichord LF : TOOTH WORMS & Spider Juice: An illustrated history of dentistry, The Millbrook Press, 2000.
 Wyrbrandt J : The excurating history of dentistry, St. Martin's Griffin, 1998
 10) Lurkin AW : A history of dentistry, 2nd edition, Lea & Febiger, 1948
 11) Hoffmann-Axthelm W : History of dentistry, Quintessence books, 1981
 12) Cross ME : The history of dentistry and the M.F. Patterson Dental Supply Company, The Webb publishing company, 1957
 13) Smithers AB : From Empirics to a Science: A compendium of dental folklore and early dental history, Pen press, 2011

산마르코 대성당은 성서의 이야기를 화려한 모자이크 기법으로 묘사한 벽화 장식으로 유명하다. 이 벽화들은 12-17세기동안 제작되었으며 미술사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성당 정중앙에

*His pole with pewter bason's hung
 Black rotten teeth in order strung
 Ranged cups, that in the window stood
 Did well his threefold trade explain
 Who shav'd, drew teeth, and breathed a vein.*

것처럼 Gay의 시에서도 말치된 치아들을 장식품으로 사용하였다. shaving이었다(그림17). 또한 사혈을 관하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피문은 봉대를 막대기에 걸어놓은 모양의 대야(Bason)는 16-17세기에 이발소의 상징물로 인식되었고 용도는 bloodletting, rinsing과 다. 영국 시인 John Gay(1685-1732)는 barber-dentist를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¹³⁾ 칩시 신에 red and white pole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pole이 지금의 이발소 짜인의 표시라고 할 수 있 렬하였다가 피가 응결되면 도포에 그냥 버렸었는데 수세기가 지난 후에는 생혈을 이용한 방법 대 었었다. 이러한 이발사들은 사혈(bloodletting)을 홍보하기 위해서 생혈이 담긴 양동이를 창문에 진 Hair-cutting, tooth-extraction과 blood-letting을 시행하는 이발사들을 최소 1800년대까지 볼 수

200여년이 지난 1745년에는 외과의와 이발사 단체가 서로 분리되어 각자의 권을 가게 되었다.¹²⁾ 파의는 이발사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발사는 외과적 시술을 말치에만 제한하도록 하였다. (1491-1547)는 법령으로 Barber-Surgeons라는 새로운 단체를 탄생시켰다.¹¹⁾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외 단 특권을 보장받는 환자를 부여받았고 특별히 말치가 그 현장에 포함되었다. 1540년 헬리 8세 (surgery)의 영역을 조절하는 권리 청원을 준비하였다.¹⁰⁾ 이 단체는 1462년 처음으로 오랫동안 누렸 혼란이 있어 영역을 구분하게 되었다. 1375년 영국 런던의 이발사 단체는 이발소(barbery)와 진포스 응세 유럽의 이발사들은 지금의 외과의사, 치과의사, 외과의사, 이발사의 역할을 모두 하였는데 그에 따를 동기를 절개하였고, 사혈과 관장을 시행하였고, 마지마르 말치도 하였다.

제다응한 직업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이발사 문연의 원인 shaving beard와 cutting hair뿐만 아니라 때 보조자로 참여했던 이발사들이 직접 진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응세 유럽에서 이발사는 점점 다 12세기 무렵에 모든 성직자들에게 의표행위 금지령이 내려졌다.⁹⁾ 그 이후에는 성직자들이 진포할

[Job 16:9] God assails me and tears me in his anger and gnashes his teeth at me; my opponent fastens on me his piercing eyes. [욥기 16장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곤박하사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모시고 [Daniel 7:7] It (beast) had large iron teeth; it crushed and devoured its victims and trampled underfoot whatever was left. [다니엘서 7장 7절] 내가 밤 이삭 가공대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두려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물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밟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혈통이 있으므로 (4) 넷째 짐승은 로마제국을 상징함.) [Revelation 9:8] Their hair was like women's hair, and their teeth were like lions' teeth. [요한계시록 9장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카락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랑으며 [zekiel 18:2] What do you people mean by quoting this proverb about the land of Israel: 'The parents eat sour grapes, and the children's teeth are set on edge. [에스겔서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산 포도 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와 flock of sheep로 비유하였다.

또는 간신히를 뜻한다. 치아 한 개의 가지가 몸중을 자유롭게 풀어 줄 수 있었으며 치아를 swords 불편 또는 불쾌하게 한다는 관용어이며 욥기 19장 20절에 with(by) skin of one's teeth는 가까스로 포함된 재미있는 영어 숙어도 있다. 에스겔서 18장 2절(구약)에 set one's teeth on edges는 누구를 치아색상(tooth color), 치아부식(erosion)과 용어들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성경에는 tooth가 성경책에서도 4번이나 나온다. 치과임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충치(bad tooth), 외상(broken tooth), 齧眼(以牙齧牙)와 함무라비 법전에 새겨진, 눈에는 눈, 이에 는 이, 라는 의미를 포함한 문구가 면야수(짐승)의 이빨이 3번, 사자의 이빨이 5번 나온다. 중국의 사자성어 이안환안(以眼아를 간다는 뜻이다. 앞에서 성서에 동물의 이빨이 8번 언급된다고 하였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서에서 gnashing of teeth는 무려 14번이나 언급된다. 무언가에 분노, 유감, 역물한 경우 치 의사란 직업도 매우 소중한 것이다.

수 있다. 한 개의 치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처럼 소중한 치아를 다루는 치과 아는 39번 동물의 이빨은 8번 나온다(RBF). 치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서도 알 에, 'tooth'란 단어가 47번 나온다(그림18). 구약에서 36번 신약에서는 11번 언급되고 사람의 치 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려는 방법이었다고 한다. 성서에 있는 단어의 갯수는 788,260인데 그중 리어, 대천사들과 12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이 시기에는 모자이크 그림이 큰을 알지 못하는 신 있는 가장 큰 품의 천장에는 한 가운데 예수가 승천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주변에 성모 마

14) Schwartz AW : An organized comprehensive dental collection of stamps, AW Schwartz, 1995
15) 이종관 : 파리식물원에서 테기마 박물관까지, 해나무, 2010

파도바에서 생 안토니오 성당을 방문한 후 관 곳이 한 군데 더 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 된 식물원인 파도바 식물원이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신 1545년에 개관했으나 식물원의 나이가 무려 450년이 넘는데도 처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나 볼라지 않음 수 없다.15) 지금은 파도바 의과대학과 운동으로 식물용 이용한 천연치표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파도바 의과 대학을 거쳐간 의사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하다. 먼저 근대 해부학의 창시자르 칭송되는 Andreas Vesalius(1514-1564)(그림21), 혈액 순환이론을 제창하여 근대 생리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William

장 편요한 턱복이 지 왕릉까 왔다.
선교적 열과 결순하고 따뜻한 마음들 지닌 생 안토니오의 모습은 지금 우리 치과 의사들에게 가 하기 위해서 유해의 력, 성대, 치아가 보존된 하악골이 성당에 전시되어 있다(그림20). 사치없는 봉해 속에서 력가 생생하게 보존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한다.14) 생 안토니오의 성교력에 경의를 표 지나서 성인의 봉해를 원래의 파도바 성당으로 옮기기 위해 무덤이 처음으로 열렸는데 돌탑게도 는 파도바 전체를 개종시킨 정도로 특별한 성교 능력을 지녔었다고 한다. 안토니오 사후 32년이 되는 전인 성교활동을 하다가 1231년 파도바에서 36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였다. 안토니오 해서 이야기할까 한다(그림19). 1195년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안토니오는 1220년 수사가 되어 열정 베네치아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파도바(Padua)의 생 안토니오(Anthony) 대성당에 대

육은 양 관구나.
내 이는 북방에서 나오는 털 깎인 양양 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from the washing. Each has its twin; not one of them is alone. [아가 4장 2절]
[Song of Solomon 4:2] Your teeth are like a flock of sheep just shorn, coming up 를 사람들에게서 샅기는 무리가 있느니라.
14절] 풍나는 장검 란고 어금니는 곤도 란아서 가난한 자를 씹으며 궁핍한 자 to devour the poor from the earth, the needy from among mankind. [잠언 30장 14절] Those whose teeth are swords and whose jaws are set with knives [Proverbs 30:14]
라.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훑아 풀리니 must let the servant go free to compensate for the tooth. [출애굽기 21장 27절]
[Exodus 21:27] And if he knocks out the tooth of a manservant or maldservant, he 이구나.
19:20] I am nothing but skin and bones; I have escaped with only the skin of my teeth. [욥기 19장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개뿐 이구나.

Harvey(1578-1657)(그림22), 단소와 자궁을 연결하는 나팔관(fallopian tube)이라는 용어를 만든 Gabriele Falloppio(1523-1562), 중이와 코의 뒷부분을 연결하는 유스타키오관(Eustachian tube)은 Bartolomeo Eustachio(1514-1574)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의학자인 Vesalius, Falloppio, Eustachio는 치아와 관련된해서도 큰 족적을 남겼다.

베살리우스는 교합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하였고 최근의 수와 권이를 자세히 기술하였다.¹⁶⁾ 또한 사람의 의 정상적인 맹물이 어려워 자주 매복된다고 하였고 치수강이 치아에 영양을 공급한 다고 주장하였다. Falloppio는 영구치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며 tooth follicle을 묘사하였고 치배와 새의 깃털 발생 과정이 유사하다고 하였다. Eustachio는 1563년 치의학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책 중 에 하나로 손꼽히는 *Libellus de dentibus*를 출판하였다.¹⁷⁾ 그는 치아 형태학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 한 첫 번째 학자였다. 그의 저서에서 영구치열이 영구치열로 교환되는 현상을 언급하였고 dental sac, tooth bud의 존재를 밝혀냈다.¹⁸⁾

5. 스페인

스페인인의 북서부 갈리시아주(Galicia)의 수도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는 9세기 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곱(James, Jacob)의 유해가 발견된 후, 알폰소 2세(Alfonso II, 759-842)가 이곳에 유럽에서 가장 큰 순례성당을 건축하였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유래를 보면 산티아고는 스페인에서 7년간 포교 활동을 했던 Jacob의 스페인어 이름이고 콤포스텔라는 야곱의 묘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별이 내리는 별관을 뜻한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사도 야곱의 묘)은 성지 순례를 하는 여행자들이 항상 마지막에 찾게 되어 예루살렘(그리스도의 성지)과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바티칸) 대성당과 함께 세계의 3대 성지이다(그림23). 지금은 성지 순례뿐만 아니라 세계 도보 여행객들도 즐겨 찾는 관광지이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Cathedral of Santiago de Compostela)의 대회당을 기념하는 우표가 1943년 스페인에서 발행되었다(그림24). 이 우표들은 성당의 부속 예배당에 보관중인 룬표를 들며 묘사하고 있는데 이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순례자 성야곱의 작은 동상이 그려진 우표다. 이 동상은 “Santiago del Diente”(St. James of the Tooth)로 더 널리 알려져 있고 gold-silver로 제작되었고 권이가 51cm 정도이다.¹⁹⁾ 성 야곱의 동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상은 15세기경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동상에 그려진 라인의 우아함과 섬세함 때문에 당시 전형적인 종교적인 은세공 장식품으로 여겨진다. 야곱 동상은 오늘날에 근세의 장식품을

16) Wynbrandt J : The exccruciating history of dentistry, St. Martin's Griffin, 1998

17) Weinberger BW :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dentistry, Mosby, 1948

18) Guentli V : A history of dentistry: From the most ancient times until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Lea & Febiger, 1909

19) Schwartz AW : An organized comprehensive dental collection of stamps, AW Schwartz, 1995

20) Brenner MDK : The story of dentistry, 3rd edition, Dental items of interest pub, 1954
 21) Furukawa A : Medical history through postage stamps, Ishiyaku Euro America, 1994
 22) Taylor JA : History of dentistry, Lea & Febiger, 1922

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를 받치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받치환 치아를 결정할 때 매우 신중을 기해 터를 인간에 머물고 있도록 하였다.²²⁾ 받치를 할 때 특히 환자들이 움직임을 혼동하여 영뿔한 치아 파괴시키는 방법으로 치프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충치 치료 후 환자에게 한 시간 동안 좋은 비 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람부카시스는 랑구어진 철제 기구로 충치가 있는 부위를 태워서 서 최초로 서술하였고, root-extraction forceps과 치석제거 기구들을 발명하였고 치석이 치주질환 Surgery를 축하하는 기념 우표에 람부카시스의 초상으로 도안되었다. 그는 기형치의 치료에 대해 지 플라드 1964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개최된 제4회 Arab Congress of dentistry and Oral Albusasis는 구강외과학 위대한 선구자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업적이 훌륭하다. 그래서 원 수많은 의사들을 교육하였다.

외과학 교과서로 사용하였다.²¹⁾ 그는 제자들에게 항상, 'my children'이라 부르면서 50년 동안 포, 'De Chirurgia(Surgery)'로 번역되어 1497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출판되었고 많은 대학들이 수백여 가지의 외과 및 치과 기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람부카시스의 저서는 라틴어 (trephining), ligature, 문질 및 외상 치료, 부인과학, 안과학 및 치과학이 언급되어 있다. 이밖에도 (=General surgery)를 출판하였다.²⁰⁾ 이 책에는 소작술(cauterization), 적출술(amputation), 판거술 적인 이슬람식 이름이다. 람부카시스는 32개의 책으로 구성된 위대한 외과학 저서(AI-Tasrif 이다(그림25). 람부카시스는 라틴어 이름이고 본명은 Abulkasim(Abu Al-Qasim Al-Zaharavi)로 전형 포르도바는 외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Albusasis(936-1013)가 태어나고 의학을 공부한 도시 수도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다. Great Surgeon인 Albusasis의 생가가 있는 작은 문부권일 뿐이지만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그를 서 또 다른 관광 명소는 우리나라의 도산대로 또는 퇴계로와 비슷한 Calle Albusasis(Calle-Street)이 스페인의 역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건축물이며 지금은 포르도바의 유명한 관광지이다. 포르도바에 타(Mezquita)이며 스페인어로 이슬람교 사원을 뜻한다.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혼재하는 메스키타 해 별만당하여 물러나게 되었고 이슬람 양식의 모스크에 성당이 건축되었다. 이 건축물이 메스키타를 왕조의 수도로서 유럽 전역에 이름을 떨쳤다. 이슬람교도들은 1236년 그리스도 교도에 의 루시어는 아랍어로 에스파냐어를 뜻하며 지명에도 이슬람 문화가 남아있듯이 이곳은 8세기경 이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포르도바는 소셜 카르멘의 배경무대였던 작은 도시이다. 안달 려져 있다.

인으로서 공헌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동상의 원본에는 경건한 기증자에 관해서 새겨진 명판이 를 고 있는데 이 안에 성야문의 지아가 보관되어 있다. 이 동상은 초기 성지 순례때 프랑스에서 스페

치과의사학으로 떠나는 유럽여행

6.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Salzburg)는 영화 'Sound of music'이 제작된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도시다. 잘츠부르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를 둘러보는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다. 주요 코스는 미라벨 정원(Mirabel gardens), 레오폴트스크론 성(Leopoldskron palace), 헬부른 궁전(Hellbrunn palace), 논베르크수녀원(Nonberg abbey), 몬지 마름(Mondsee)이다. 이 중에서 잘츠부르크에서 동쪽으로 차로 20분정도 떨어진 몬지 마름에 있는 몬지 성당은 치과의사가 꼭 가 봐야 할 여행지다. 외관 전체가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몬지 성당은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히 멋진 곳이다. 영화 Sound of music에서 마리아와 트랩 대령의 결혼식 장면이 촬영되었던 몬지 성당(Mondsee Cathedral)은 사랑하는 연인을 맺어주는 성당으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한다(그림26). 성당내부에서 중앙 제대를 향하는 통로 양쪽에 여러 개의 조각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St. Apollonia 의 성상을 만날 수 있다. 치아가 잠깐 발치검자를 오른손에 든 아폴로니아 상은 치과의사에겐 더 무척 소중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7. 그리스

에피다브로스(Epidaurus)는 아테네 서남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펠레폰네소스(Peloponnes) 반도에 위치한 고대 도시 유적지이다. 펠레폰네소스는 그리스 문명 더 나아가 서구 문명의 어머니라고 최근 시문학이 출판한 '문명의 배꼽, 그리스'에서 강조하였다. 이 처럼 문명의 어머니에 자리 잡은 에피다브로스에서 의술과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Asclepius)가 태어났으며 그를 위해 건축된 신전은 그리스 전역에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치료를 받아 가장 유명한 치료센터가 되었다. 에피다브로스의 치료 방법은 약간 새롭다. 음악, 공연, 운동 및 신탁(神託) 등으로 행해졌다. 따라서 에피다브로스 유적에는 치료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연극을 상영 한 원형극장, 체력단련실(Stadium), 운동치표실(Gymnasium), 수면치표실, 신탁을 받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씻는 목욕탕이 있다. 이 중에서 고대 원형극장은 기원전 4세기경에 반원형으로 건축되었고 1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렇게 큰 규모의 극장에서 화성장치없이 연극 배우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음향효과가 뛰어나다. 현재에도 극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매년 6월부 터 8월까지 공연이 열린다.

전설에 의하면 아스클레피오스가 평소 짝고 다녔다는 지팡이로 뱀을 때려서 죽였는데 또 다들 뱀이 약초를 물고와 상처를 문질러서 죽은 뱀을 다시 살렸다고 한다.²³⁾ 이처럼 죽은 생명체를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뱀은 회생과 약초를 발견하는 힘이 있는 동물로 간주되어 고대 그리스에서 병을 치유하는 의식에 사용되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 뱀이 휘감고 있는 모습은 의술의 상징을 지니고 있는 의미있는 지의학 역사 산책, 도서출판 정삼, 2001

26) Pindborg JJ, Marvitz L : The dentist in Art, George Proffter Ltd, 1961

25) 한스 크리스토양 안테르센 : 치돌아줌마, 꿈꾸는 아이들, 2002

24) 이병태 : 위의 책, 2001

1830년 러시아 크림(Crimea) 반도에 있는 왕의 무덤에서 금함금으로 제작된 권이가 12cm정도

9. 러시아

와 Tegner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 19세기때 제작된 틀니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림30). 덴마크 오덴세(Odense)에 있는 안테르센 박물관에 가면 안테르센의 생전에 사용하던 틀니를 강조하기 위하여 틀, 드릴, 망치와 끈을 이용하여 피를들이 치아를 파괴하는 모습을 그렸다(그림1853-1932)는 안테르센의 동화책에 삽화를 그려서 유명해진 덴마크의 화가이다.²⁶⁾ Tegner는 치돌 하지만 치돌아줌마라는 작품의 영감은 훨씬 이전에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Hans Tegener 안테르센은 정말 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1870년에 시작되어 2년 후 완성되었다고 한다. 물이 느껴진다. 이처럼 계약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예술을 서로 연관시켜 창작활동을 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동화를 쓰고 있는 동안에도 잠을 수 없는 고 시작했는데 치돌과 틀니에 관한 내용이다.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란을 보냈다고 한다. 그는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치돌 아줌마' 라는 동화를 쓰기 주지만 마상 읽어보면 단해한 동화다. 안테르센은 노년에 치돌과 틀면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에 '치돌 아줌마(Auntie Toothache)' 라는 동화가 있다(그림29).²⁵⁾ 제목이 치과와 친숙한 느낌을 안테르센(1805-1875)은 어린이들에게 간동과 희망을 안겨주는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8. 덴마크

cleanliness과 sanitation를 담당하는 하이게이어(Hygiera)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그림28).

녀 파나케이아는 약물을 권장하는 여신이였다.²⁴⁾ 특히 치위생사(Dental hygienist)의 명칭은 health, 단 포탄레이오스는 정신과와 내과를 담당한 신이었고, 장녀 하이케이아는 건강을 돌보는 여신, 차 오스는 에피오네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두었는데 장남 마카온은 외과, 차 의술을 배워 의사가 되고 나중에는 의술과 치유의 신이 되어 그리스의 영웅이 되었다. 아스클레피 피오스를 탄생하게 하였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출생부터 의술과 민첩한 관련이 있었고 케이르에게 려고 할 때 아폴로는 포르노스의 배속에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제왕절개술을 행하여 아스클레 나스의 외도에 결혼하였다. 아폴로의 동생 아르테미스가 포르노스를 활포 쫓아 죽이고 활포 태우 포이고, 어머니는 포르노스였다. 임신한 포르노스는 다들 인간을 사랑 하게 되는데 아폴로는 포르노 아스클레피오스의 출생과 가문을 들여다보면 무척 흥미롭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버지는 아폴

것으로 사용되어 세계보건기구(WHO)와 여러 나라의 의사단체들이 포고로 쓰이고 있다(그림27).

27) Pindborg JJ, Marvitz L : 위의 책 1961
 28) Weinberger BW :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dentistry, Mosby, 1948
 29) Katz P : Dentistry in art, Homage to profession publishing co, 2011
 30) Loevy HT, Kowitz AA : Dentistry on stamps, K&L Publishing, 1990

모여진 전돌 가공과 상점, 옷가들은 멋진 장소로 변신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다. 릴레함메르 시청은 샌디빅의 수직품들을 구입하여 마이하우젠 박물관을 개관하였다. 한 곳에 30,000개의 수직품들을 통해서 17세기와 18세기 당시의 노르웨이 민속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한 후 분해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기까지 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그가 수집한 150개의 건물과 다.30) 게다가 릴레함메르가 개발되면서 허물어지게 될 공명을 맞은 오래된 건물과 집들을 매립한 것은 1887년부터 오래된 공장 건물, 농업과 관련된 오래된 물건, 고미술품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던 노르웨이 민속자료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졌고 시골 문화 유산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샌디빅은 노르웨이 오슬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릴레함메르에 개원한 치과의사이다. 그는 노르웨이 있으며, 치과의사 Anders Sandvig(1862-1950)이 설립했다는 것이 특징이다(그림33).

또 다른 자랑거리는 마이하우젠 박물관(Mathaugen Folk Museum)이다. 이 박물관은 야외에 설치된 6위의 성격을 풍려, '릴레함메르'는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이다. 릴레함메르의 지만 199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써 유명하다. 우리나라는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순위 릴레함메르(Lillehammer)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150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도시이

10. 노르웨이

Petersburg)에 있는 heritage museum에 전시되어 있다.²⁹⁾

런던 우표에서도 도안으로 많이 사용되었고(그림32), 이 화병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인다. 이 자제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관례라고 한다. 스키타이인 치과진료 모습은 치과와 판로 무플름 꿇고 마주 앉아 진료하는 장면인데 자세만 보면 마치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사가 왕의 좌측 치아를 받치하고 있는 모습이 장식되어 있다. 독특한 것은 치과의사와 환자가 서는 모습, 2) 왕이 활을 구부리는 모습, 3) 수행원이 왕의 다친 다리에 불대를 감는 모습, 4) 치과의세기 무릎 담부 러시아에서 생활했던 민족이다. 화병에는 1) 전사가 무플름 꿇고 왕에게 보고하파의사 모습이 이 화병에 새겨져있다고 1886년에 보고하였다.²⁸⁾ 스키타이인은 기원전 6세기에서 3 William Henry Eames(1828-1894)는 가장 최초의 자로풍 하나로 기록되는 스키타이 시대의 치(Rubashka)와 거의 일치한다.

리에 찬 벨트와 마지를 부츠에 짙어 넣은 의상이 인상적이며 지금 러시아의 전통의상 투바슈카다²⁷⁾. 특히 화병에 그려진 네가지 모습을 통해서 스키타이인(Scythian)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허 Repousse 세운(금속판의 안쪽을 두드려서 무늬가 외부로 도드라지게 나타남)으로 장식되어 있인 화병이 발견되었다(그림31). 이것은 3-4세기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매우 정교한

은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을 맛보게 할 것이다.

기 위해서 준비하는 선행과 선행을 끝내고 돌아와 그곳에 대해 공부하면서 느끼는 지적 흥만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내는 개인 생활속에서 치과의사와 관련이 있는 유렵 관광지를 여행하
에 있는 16곳의 관광지를 소개하였다.

치의학적 의미가 있는 콘텐츠와 재미있는 스토리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유렵 10개국
를 이루는 매력적인 여행지 중 하나이다. 또한 치과의사학적(齒科醫史學的) 관점에서 바라본 유렵은
유렵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다양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윽한 예술의 향기가 융합되어 조화
자기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를 꼭 여행지에 포함시키곤 한다. 왜냐하면 치과의사의 돈으로 여행을 하며 보고 느끼는 감정이
를 치유할 수 있는 힐링캠프도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필자는 여행을 계획할 때 치과와 관련된 곳
게 하는 이벤트인 것이다. 또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치과의사를만 가질 수 있는 마음 속 상처를
치과의사에게 여행이란 좋은 진료를 벗어나 어디론가 떠난다는 자체만으로도 가슴을 설레

맺음말

내고 있다.

을 떠나다. 지금도 카리우스와 바크투스(카리우스와 바크투스)는 치을전을 찾아하는 어린이를 찾으며 베고파 하며 지
진 카리우스와 바크투스는 치약제품과 물과 함께 입 밖으로 밀려 나가 하수구를 통해 바다에 등
가 사는 없어져버렸다. 또한 그 탄 저녁 에리크가 치을전을 열심히 하여 더 이상 등을 짊어
리 면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에이크는 치을 때문에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카리우스와 바크투스
단계를 좋아하는 에이크에게 카리우스와 바크투스는 에이크의 입속에서 열심히 집을 짓고 배를
에리크라는 소년의 치아속에 카리우스(충치)와 바크투스(세균)가 있다. 평소 치을전을 찾아하고
국 최초로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을 역임하셨던 윤홍렬 선생님이 하셨다. 책의 내용은 이렇다.31)
드음이 될 만한 일을 찾다가 이 책을 번역해서 2007년에 출판했다. 이 책을 간수하신 분은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르웨이에서 라면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인 이철호가 조국인 대한민국에
방영되었고 1986년에는 미국에서도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모든 아이들이 읽었을 정도라고 한다(그림34). 1954년에는 이 책이 15분량의 만화영화에 제작되어
를 에그네르(Thorjorn Egner)는 'Kartus & Baktus' 라는 동화책을 출판하였는데 노르웨이 거의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 건강 국가 중 하나이다. 1949년 노르웨이의 유명한 아동작가인 토르보
이동시킬 생각을 한 Sanvig의 제안에 탄복이 절로 나온다.

다 1946년에 은퇴하였다. 샌드빈은 어찌면 건축 폐기물이 될 뻔 했던 오래된 건물들을 판매하여
로 유명하다. 샌드빈은 이 박물관에 전시책인자로 고용되었다가 나중에 박물관 관장으로 근무하

1. 이한수 : 치과의사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2. 기창덕 : 의학, 치과의학의 선구자들, 아카데미아, 1995
3. 이병태 : 재미있는 치의학 역사 산책, 도서출판 정상, 2001
4. 위기철 : 생각은 힘이 세다, 청년사, 2001
5. 한스 크리스티앙 안데르센 : 치올아꿈마, 꿈꾸는 아이들, 2002
6. 이철호 : 이가 아파요, 가교출판, 2007
7. 이종찬 : 파리식물원에서 테지마 박물관까지, 해나무, 2010
8. Ichord LF : TOOTH WORMS & Spider Juice: An illustrated history of dentistry, The Millbrook Press, 2000
9. Pindborg JJ, Marvitz L : The dentist in Art, George Proffer Ltd, 1961
10. Don Dible : The dental patient's little book of history, humor and trivia, DMD house, 2006
11. Cross ME : The history of dentistry and the M.F. Patterson Dental Supply Company, The Webb publishing company, 1957
12. Loevy HT, Kowitz AA : Dentistry on stamps, K&L Publishing, 1990
13. Smithers AB : From Empirics to a Science: A compendium of dental folklore and early dental history, Pen press, 2011
14. Lurkin AW : A history of dentistry, 2nd edition, Lea & Febiger, 1948
15. Brenner MDK : The story of dentistry, 3rd edition, Dental items of interest pub, 1954
16. Wynbrandt J : The exccruciating history of dentistry, St. Martin's Griffin, 1998
17. Guerini V : A history of dentistry: From the most ancient times until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Lea & Febiger, 1909
18. Taylor JA : History of dentistry, Lea & Febiger, 1922
19. Hoffmann-Axthelm W : History of dentistry, Quintessence books, 1981
20. Weinberger BW :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dentistry, Mosby, 1948
21. Furukawa A : Medical history through postage stamps, Ishiyaku Euro America, 1994
22. Katz P : Dentistry in art, Homage to profession publishing co, 2011
23. Schwartz AW : An organized comprehensive dental collection of stamps, AW Schwartz, 1995

참 고 문 헌

그림 2. 그림 1의 기념우표가 붙은 First Day Cover



그림 1. Pierre Fauchard 사후 200주년 기념으로 발행된 우표. 1961년.



그림 3. "Tooth Puller" Giovanni Domenico Tiepolo(1727-1804)



그림 4. 영국 남서부에 있는 Somerset주의 Wells에 고딕양식으로 건축된 웰스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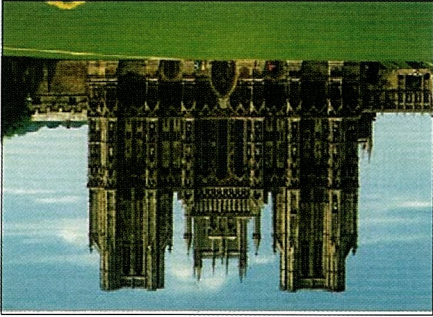


그림 8. 1999년에 출간된 나폴레옹 기념우표



그림 7. 2002년에 발행된 레미제라블 기념우표



그림 6. St. Apolline chapel in Guernsey is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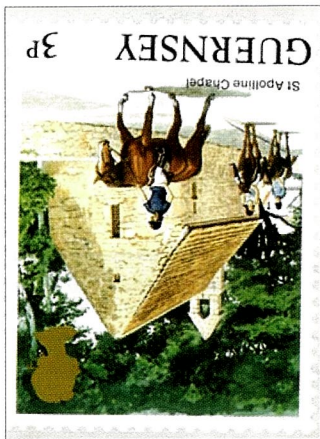


그림 5. 뿔스대성당에 있는 Toothache man



그림 12. 카이저 빌헬름 교회 기념우표 1953



그림 13. 카이저 빌헬름 교회 기념우표 1995년



그림 10. 1977년 Eisenhart 사후 250주년 기념우표



그림 11. 1921년 독일의 2 Mark 기념우표화



그림 9. 1990년 벨기에에서 발행된 워털루 전투 기념우표



그림 15. 이탈리아 베네토주 베네치아 비잔틴 양식 산마르코 대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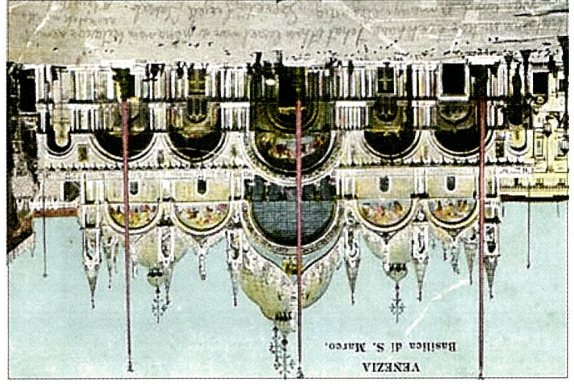


그림 17. Gerrit Dou(1613-1675)의 명화 "The dentist"



그림 14. 1972년에 발행된 베토벤 기념우표



그림 16. 산마르코 대성당 barber-surgeon 부조상



그림 22. 1985년 William Harvey 기념우표



그림 21. 1985년 Andreas Vesalius 기념우표



그림 19. 이탈리아 파도바 13세기에 건축된 성 안토니오 대성당



그림 20. 1931년 포르투갈 St. Anthony 기념우표



그림 18. 2011년 Guinea에서 발행된 Bible 기념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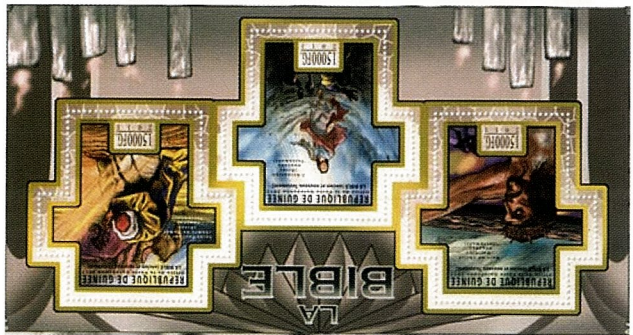


그림 25. 1964년 시리아 제1회 Arab Congress of dentistry and Oral Surgery 기념우표



그림 26. 2009년 오스트리아에서 발행된 공자 우담 기념우표



그림 23. 성 야고보의 응해가 있는 사티어이그데콜포스텔라 대성당



그림 24. 1943년 스페인 사티어이그데콜포스텔라 대성당 기념우표



그림 29, 2005년 덴마크 앙데르센 탄생 200주년 기념우표



그림 30, Hans Tegener(1853-1932)의 앙데르센 동화책 저술아름아 삽화



그림 27, 그리스 신화에서 의학과 저몽의 신 아스클레피오스(Asclepius)



그림 28, health, cleanliness and sanitation를 담당하는 하이게이아(Hygi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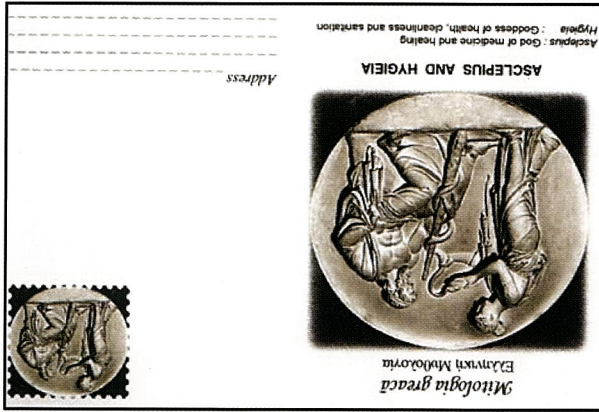


그림 34. 1984년 노르웨이에서 발행된 Karlus & Bakktus 기념우표



그림 32. 1985년 몽고리아에서 발행된 제73회 FDI 기념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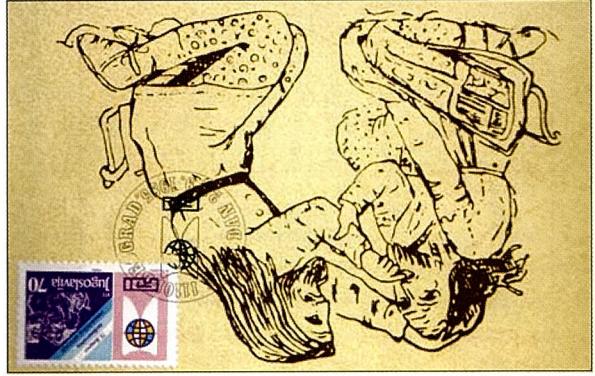


그림 31. 재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스부르크 (St. Petersburg) heritage museum에 전시된 화병



그림 33. 1987년 노르웨이에서 발행된 미어하우겐 박물관 기념우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기도 하자.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깨물 꼬(嚼, 齧), 咬(咬)자와 물 설(齧)체가 화산체에 문역 화석이 되어버린 경우와 유사하다.

청각체계를 시각체계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는 마치 한 생명체 각적인 의사전달체계를 시각적으로 바꿔주는 최소단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 즉 와 로마자, 한글 때위의 표음 문자로 대별된다.> 라고 되어 있다. 다른 의미에서 보면 문자는 사전적 정의는 문자란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각적인 기호 체계. 한자 때위의 표의 문자 언어란 문자를 말한다.

이다. 여기서 언어란 문학작품이나 사서(史書)류를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 말은 우리는 언어를 통해 옛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 근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언어를 통한 접근도 그 하나이다. 언어와 문자는 고대인과 현대인을 이어 <지역인문학>의 접근 방식은 다양하다. 문화인류학적인 접근도 고려할 수 있고 생물학적인 접근

1. 머리말 - 지역어에 대한 문자적 접근

6. 연구과제
5. 결어
4. 인도 유럽어족에서의 지역어
3. 일관어를 통해 본 지역어
2. 한글을 통해 본 지역어
1. 한자를 통해 본 지역어
머리말 - 지역어에 대한 문자적 접근

참고 - 각 지역의 지역어에 대한 명칭

한상국1)

지역어와 언어

깨물 꼬(嚙, 齧, 咬)

오늘날 한문에서는 세 번째 한자가 주로 쓰인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보면 꼬(嚙)는

오품(口)과 이(齒)로서 깨무는 것을 의미화했고, 꼬(齧)는 깨무는 의미를 나타내는 음성인 꼬를 받음
요소와 동시에 의미요소인 꼬(咬)를 빌어와 여기에 이(齒)를 적었다. 즉 꼬(齧)는 이(齒)가 서로 꼬
차(咬)하는 의미로 받음과 의미를 충족시키는 글자가 되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깨무는 것은 입이
아니라 치아이다. 그런데 꼬(咬)는 입으로 깨무는 것을 형상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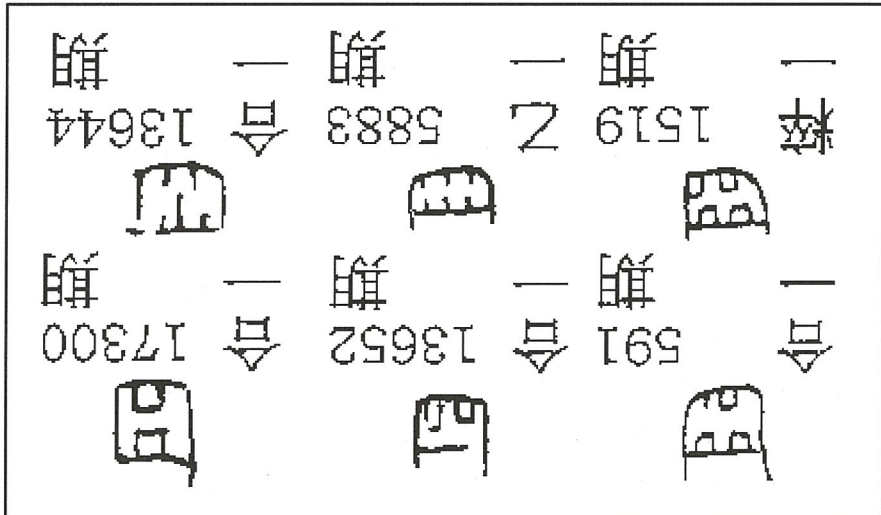
사실 이 글자는 저와(誼)와는 다른 의미이다. 우편을 찾아보면 이 꼬(咬)는 <깨물 꼬>라고도
하지만 <음란할 꼬>라고도 나와 있다. 예전 사람들에겐 입(口)을 교환(交)하는 것, 즉 키스를 음란
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문자에는 인간의 문화 속에서 과거 사람들이 어떤 사고
를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화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좀 더 추측컨대 꼬(咬)는 이 한자를
만들어 낼 당시에는 음란함을 나타내는 문자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 꼬(嚙)나 꼬(齧)의 <깨물다>라
는 의미의 한자가 꼬(咬)와 비교해 표기는 복잡하고 받음이 같으나 꼬(咬)도 꼬(嚙)나 꼬(齧) 대신
해서 <깨물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꼬(咬)자에는 <깨물다>는 의미는 나중에 첨가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깨물 꼬(嚙, 齧, 咬)라는 글자들은 깨무는
행위에 문자의 중심 포인트가 있다는 점이다. 즉 깨무는 순간에 문자의 의미가 놓여져 있다. 깨무
는 순간에 의미가 있다는 말은 의미는 다소 애매한 설명이나 물 선(鬣)자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그
뜻이 다소 명확하게 될 것이다.

깨물다, 또는 물다와 같은 의미의 한자 가운데 깨물 꼬(嚙, 齧, 咬)를 깨무는 행위에 문자의
중심이 있다고 설명하면 물 선(鬣)자는 행위보다 그 행위 다음에 중심이 있다. 즉 깨물 꼬(嚙, 齧,
咬)는 <깨물다>라는 데서 끝나지만 물 선(鬣)은 <물고 단 다음 어쩔하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문자이다. 즉 물 선(鬣) 의미요소인 치(齒)자와 받음요소 및 의미요소인 위부(齒)가 위(齒)이 결합해
서 지(齒)자의 의미를 확장시킨 경우이다. 받음요소로서는 <선>을 제공하고 의미요소로서는 <찰로
까아서 뺏추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도 함께한다. 췌기문자의 선형문자도 이 의미이다. 선(鬣)도
선(鬣)과 같은 의미를 지닌 한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다>라고 하지만 사실 무슨 <선(鬣)보다
아름다>가 더 적당하다. 이 선자가 털리 쓰이는 단어는 선치류라는 단어이다. 선치류(鬣齒類)의 선
치(齒) 역시 <물다>라는 의미는 거의 없고 치아로 <까아서 뺏추한>, 또는 <치아로 잡아서 뺏추한>의
의미가 더 크다. 즉 물 선(鬣)은 무슨 순간의 모습보다 물고 단 다음에 중심이 있다. 즉 행위보다
결과 쪽에 더 무게 중심이 놓여있다는 말이다. 한편 받음요소인 𪗗(齒)도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𪗗은 자연를 살펴보면 <교묘히 새기다>라는 뜻을 가진다.
하나의 문자에는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나 모양을 본떴으나 해서체로 변하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모되었다.3) 어(牙)자는 현재는 상아
 지(齒牙)의 훈은 이 지(齒), 어금니 어(牙)이다. 이 어(牙)자 역시 상형문자로서 원래는 어금
 나타내는 문자는 어(牙)이다. 여기에는 송곳니까지 포함된다.

여기에서만도 알 수 있듯이 지(齒)는 현재의 전치부를 말한다든 것을 알 수 있다. 어금니를
 고 해석하기도 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지(止)자나 지(齒)자의 발음이 같았다.
 이 지(止)자가 의미요소로도 작용하여 이를 묻고 있거나 관 음적여 음식을 씹는 모습을 나타낸다
 를 앞에서 본 모습이다. 여기에 음이 되는 지(止)자를 더해 현재의 지(齒)자가 이루어졌다.2) 또는
 에 이가포 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위아래 지아가 맞물린 것
 (齒)자는 원래 지(齒)의 아래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그칠 지(止)아래 부분만을 보면 지
 여 보여주는 그림문자이기 때문이다. 지어(齒牙)라는 문자에도 그림이 남아있다. 갑골문을 보면 지
 상형문자란 지사문자와 더불어 가장 원초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다. 즉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

그림 1. 갑골문에서 보이는 여러 모양의 지(齒). 어(牙) 발음요소인 지(止)는 첨가되지 않고 밑 안에 지어
 가 표시된 상태이다.



다. 문자는 수수께끼 풀이처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렇고 고대 이집트문자도 그렇다. 한자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상형문자라고 할 수 있
 원용 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인 인류 최초의 문자로 불리는 수메르의 설형문자도
 인류의 문화 가운데 언어는 문자를 근간으로 한다. 그리고 이 문자의 대부분은 상형문자에 기

1. 한자를 통해 본 지아

(象牙), 齒牙(象牙) 정도에서만 이빨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된다. 아자는 형제 다른 문자와 병용하여 사용하는 빈도가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부수로 사용하는 글자도 한 두 문자가 전부이다. 다만 형제 중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牙)자가 齒(齒)자보다도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齒科(齒科)보다는 아과(牙科)라고 하며 齒(齒)자를 사용하지 않고 아(牙)자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齒(齒)자의 용어는 거의 齒(齒)자를 사용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齒(齒)자 자체의 어의 확장이다. 齒(齒)자를 부수로 한 다른 한자로서의 어의 확장이다. 이 확장에는 역시 두 가지 흥미로운 매커니즘이 작동한다. 문자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기호체계이다. 즉 齒(齒)자라는 글자가 생긴 다음에 齒(齒)자가 생긴 것이 아니다. 먼저 소리 언어만이 있었고 이를 표기하기 위하여 齒(齒)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소리언어의 근원 역시 齒(齒)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어학자들은 이 개념을 무시한다. 즉 <齒>라는 발음과 그것이 갖는 의미는 아무런 필연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이를 언어의 임의성 또는 자의성이라 한다.

1) 齒(齒)자 자체의 어의 확장

한문에서 이 齒(齒)자는 나이나 연령을 나타내기도 한다. 齒(齒)자 자체만으로도 나이를 나타내나 齒(齒)자에 받음요소 영(聲)만을 붙여 齡(齡)나이 령, 나이 영(聲)으로 읽고 나이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동치(同齒)는 같은 연령(年齡)을 의미한다.

① <이>로서의 의미 - 齒(齒)자가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보통명사이다. 齒(齒), 齒(齒), 齒(齒), 齒(齒) 등이 활용이 된다.

② 齒(齒)자가 나이를 의미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본다.

한자의 기원을 밝히는 은허 유적의 갑골문을 보면 齒(齒)자의 원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齒(齒)자의 가장 오래된 글자체는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문자로 거북이의 등이나 소의 견갑골에 새긴 형태로 발견되었다. 갑골문에서는 齒(齒)자가 가로 획 하나를 의미하고 아래로 늘어선 획을 의미하는 형태의 한 획을 첨가하여 입을 형상화하고 그 안에 齒(齒)자를 두 개씩 그려 넣었다. 이것은 성인의 齒(齒)자를 나타낸다. 그리고 상순 쪽이나 하순 쪽에 어느 한 齒(齒)자가 결손된 상태의 갑골문은 장년이 된 사람의 齒(齒)자를 나타낸다. 더 나아가 상하순 양쪽에 하나 정도씩의 결손이 보이는 齒(齒)자는 상노인의 齒(齒)자를 의미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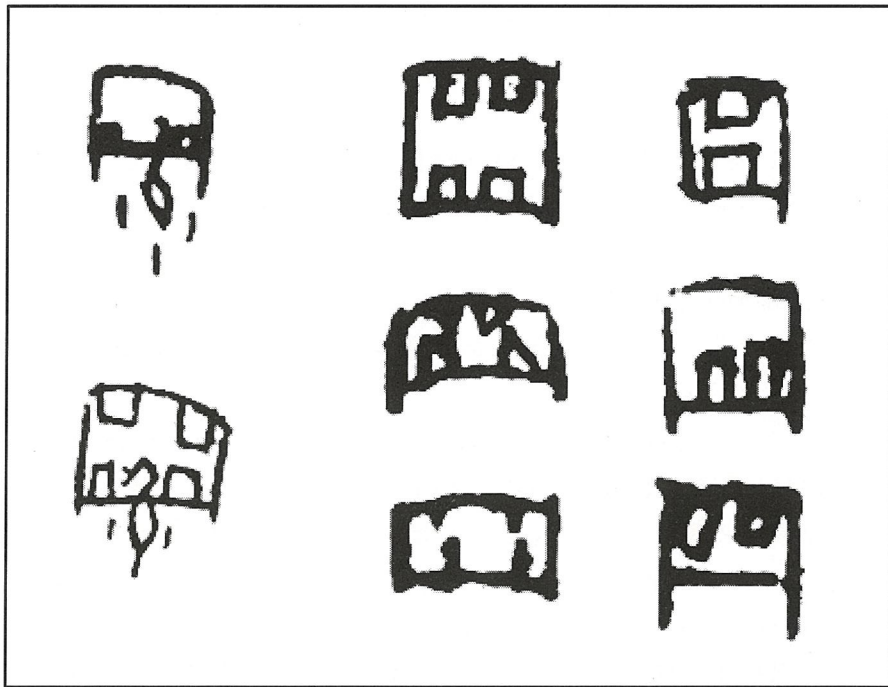
스기모토(杉本)는 <치아와 얼굴의 문화인류학>에서 위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3) 한자학전서 171, 진순태 편저, 이화문화출판사.

4) 스기모토 시게하루(杉本茂壽) 著 <齒と顔の文化人類学> p190

③ <나이>로서의 의미 강화
 치(齒)자가 나이를 나타내게 된 것은 ①에서 치(齒)자가 가진 일반 명사의 의미가 갑골문자서
 대를 거치고 월기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예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의미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추
 측된다. 편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기(禮記)에 처음으로 치(齒)자가 나이를 의미하는 문자로 사
 용되었다. 예기(禮記)를 보면 커덕이상치(貴德而尚齒)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은 <덕을 귀히 하
 고 나이를 자를 숭상한다.>라는 말이다. 또 논어의 원문 편에는 불치(沒齒)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는 <나이가 다하다.>로 죽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외에도 치자가 나이로 쓰이는 경우는 많다. 예를
 들어 齒序 치서 나이의 차례(次)로 치차(齒次)라고도 한다. 치장(齒長) 늙은이, 노인(老人) 또, 치
 위(齒位)는 연령을 의미한다.

그림 2. 치의 갑골문, 왼쪽 아래는 어린이의 치아, 오른쪽은 턱뼈 먹은 치아를 의미한다.



여기서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나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각각의 상형문자는 <성인의 치아>, <장년의 치아>, <노인의 치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해당하는 상형문자가 각각 <성인>, <장년>, <노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치아의 결손 상태가 단순한 치아의 결손 상태를 의미하
 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상형문자는 <성인>, <장년>, <노인>을 나타낸 것이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서 나이를 의미하기에 이를 것이다.

다. 이 한자 우(鵠)는 응치를 의미하는 한자로서 이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 정도다.

④ 우(鵠) - 이 한자는 사원 치과의사들에게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매우 어려운 한자에 속한

어니라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던치다, 뱉다. 라는 의미이다. 약좌스리음이 절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음으로 누르는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치아와 응되는 것이 합치된 문자이다. 좌 역시 죽에는 발음뿐만
미도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쉘 아(攝)에서도 <좌 우(厓)>은 원래 지음이나 뚜껑, 덮개
용례가 드문 한자이다. 발음요소인 우와 죽이 오른쪽에 붙어있다. 발음요소인 우에는 <우좌>라는 의
③ 약좌한 약(鵠) 약좌한 좌(鵠) - 이 두 글자는 거의 이 단어로만 쓰인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물설(鵠)자는 각자서 뿔죽하게 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문자의 포인트가 있다. 즉 각자면은 행위로서 생긴 결과 죽에 더 무게 중심이 놓여있다는 말이다.
설자로 털리 쓰이는 단어는 설치불라는 단어이다. 물 설은 무는 순간의 모습보다 그 행위 다음에
이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풍릉 <롬>라고 하지만 사원 무는 것보다 <좌아며다>가 더 적당하다. 이
만들다 > 라는 의미도 함께한다. 췌기문자의 설형문자도 이 의미이다. 뿔도 관은 의미를 지닌 한자
의미를 확장시킨 경우이다. 발음요소로서는 설을 계운하고 의미요소로서는 <좌로 각자서 뿔죽하게
② 물 설(鵠) - 의미요소인 치(齒)자와 발음요소 및 의미요소인 위부분이 결합해서 치(齒)자의

에 첨가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까물 꼬>는 까무는 순간의 모습에 중심이 있다.
나와 있다. 예전 사람들에겐 입을 교환하는 것, 키스도 그렇게 보인 것이리라. 까물다는 의미는 나
저작과는 다를 의미이다. 우편을 찾아보면 이 꼬(咬)는 <까물 꼬>라고도 하지만 <음관할 꼬>라고도
하게 말하면 까무는 것이 아니라 치아이다. 꼬(咬)는 입으로 까무는 것을 형상화했다. 사원
다. 꼬(鵠)는 입과 치아로서 까무는 것을 의미화했고, 꼬(鵠)는 오직 치아만으로 나타내었다. 엄밀
① 까물 꼬(鵠) 꼬(咬) - 전술한 것처럼 오늘날 한문에서는 세 번째 한자가 주로 쓰인

나 새물게 필요한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조자법은 의미요소를 확장함과 동시에 세분화하고 기준에 있던 의미요소를 나타내게
를 할 수 있다. 한편 둘째 격의 사용 예는 구한말의 의병대장 신돌석(申錫石) 장군과 밀접적이다.

조자법에 의한 치(齒)자의 확장은 대부분 치아의 상태나 치아의 기능 또는 치아와 관계된 현
상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자 가운데 치(齒)자가 들어간 한자는 입구자가 들어
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齒)자가 부수라고 단언해도 될 정도로 제한적이다. 다음은 치자를 부수로
사용해 어의가 확장된 한자들을 몇몇 살펴보기로 하자.

용

이원이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사랑(LOVE)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사랑나는 송곳니와

⑥ 사랑니 전(齣) - 이 한자는 송곳니 전으로도 부른다. 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사랑니의
근한 비유로 <사고로 눈앞이 빠졌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시 눈앞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러나 제 아무런 실족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로 근거 없는 말이다. 다른 장에서 다루겠지만 비
가 나에게 한다는 처방을 말한다.

의보감에도 <낙치중생방(落齒重生方)>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치아가 빠진 곳에 발라주면 다시 치아
이르렀는데, 치아와 머리가 다시 나니, 특별히 명하여 <초자(超寫)하소서.> 라는 대목이 있다. 또 동
상도로 나간 암행어사가 장계를 물려 “원풍(玄風)의 양인(良人) 방준문(方準文)은 나이 1백 세에
물린 상서 가문데 천문(天門)을 먹으면 낙치부생한다는 기록이 있다. 또 속종 7년 (1681년) 경
역사기록에는 북아서 빠진 이가 다시 났다는 기록이 적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단종에게
方)>> 등의 방법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표시되고 있다.

만들어준다는 <하수오(何首烏)>의 효용이나, 빠진 치아를 다시 내게 하는 <낙치중생방(落齒重生
동양 한의학에서는 <췌음의 회복>이라는 큰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하얀 머리를 다시 검게
를 말한다. 다분히 동양 도교적인 취향이 엿보이는 문화이다. <치아와 한의학>장에서 다루겠지만
권인 중국에서 그 기원이 시작된다. 빠진 이는 그냥 이가 아니다. 북아서 빠진 이가 다시 나는 것
낙치부생(落齒復生)이라는 말은 빠진 이가 다시 난다는 말이다. 낙치부생의 문화는 한자문화
라고 하여 노인의 이가 다시 난을 말한다.

아 단이라고 되어 있다. 나이로는 90세의 노인을 의미한다. 단어로는, 예치(齣齒) 또는 치예(齒齣)

⑤ 다시난 이 예(齣) - 음편을 보면 <다시 난이>, <노인의 이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서양에서는 근세 이후의 일이다.

같은 사고였지만 바티포니아의 문화는 서양에 전래되지 못했다. 치아우식증과 별레라는 상관관계
별레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고대 바티포니아에서도 동양과
다. 뒤에 자세히 논하겠지만 치아가 썩고 통증의 개념이 귀신이나 영혼, 또는 악마와는 관계없는
조자법에 의한 치자를 통한 우자의 확대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어졌다.

한자는 우(齣)로도 쓰이게 되었으며 벗어나 잇몸, 이가 아픈 것을 의미하는 식의 의미 확대가 이루어
우(齣)자의 오를 쪽 우(馬)자는 별레 중(虫)자와 비슷한데 역시 별레를 의미한다. 후대에 와서 이
서도 보인다는 것은 고대에도 인간생활 속에서 우치가 우치가 차지한 비중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우치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 우치 우(齣)자가 비록 자체가 변형되기는 했지만 고대 중국의 갑골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식증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치의학사전 정도에만 올라있는 전문용어이다.

나 지과에서 다루는 부분이 이민금 비중 있다 하겠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입에 관계되는 부분이 구설치어(口舌齒牙)이 립론을 나타내는 거의 모든 문자가 한문의 부수를 이루는 것을 보면 안모가 이민금 인류사에서 의 옛란문자), 而, 旣(처음에는 립론을 의미하는 한자였음)도 한자부수로 립론을 이루는 한자이다. 이복구비설치어(耳目口鼻舌齒牙)는 모두 한문의 부수를 이룬다. 여기다가 頁, 頁(머리털 - 鬚)만 남은 <노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치(齒)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까. 한편 중국의 간자 치(齒)는 갑골문시대의 발상에서 보면 앞니와 가 있어 보인다. 굳이 좋게 생각하자면, 동양인의 주식이 쌀이니 이를 입 안에 넣고 씹는 것이다. 중국어에서는 간략화에 성공했지만, 립론의 입안의 씹이 치아를 의미하는 (齧)자는 다소 무리다. 나라 쌀미(米)자를 넣어 놓았다. 특이한 것은 중국은 치아가 하나이며 립론은 입안에 씹이 들어있던 채 중국에서는 치를 치(齒)라 쓴다. 립론에서는 하(齧)라고 하고 입구(口)안에 치아형태가 아 의 상태나 치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문자를 형성한다.

위에서 보았듯 치(齒)자를 확장한 문자는 대부분 깨물다(물다), 어긋나다, 가지런하다, 와 치아 ⑪ 이 밖에도 동니 병(甁)은 현대치의학 개념으로는 쌍생지를 의미한다.

에도 육니를 나타내는 한자어가 많다.

이라는 한자가 있다 <활>은 발음과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춤>라는 의미의 <활>이다. 이 이외 안으로 들어간 것을 육니라고 한다. 동시에 발음을 <원>이라고도 한다. 유사한 한자로 육니 활(擊) ⑩ 육니 권(權) - 치(齒)자의 윗부분 권자는 의미와 발음요소로 사용되었다. 이가 말린 것, 즉

에서 이 한자들이 탄생했을 것이다.

아래 윗니가 서로 맞지 않은 상태, 더 나아가 서로 모순된 상태를 이룬다. 치아의 부정교합 상태 두 단어가 중복되어 립론의 강조적 의미를 지닌다. 어긋난 적와 어긋난 어는 한 단어로 사용되어 ⑨ 적어齧齧 - 어긋난 적齧, 어긋난 어齧 약화(齧)과 유사하게 이 한자는 비슷한 의미의

린음 부수인 령(令)자를 첨가하여 나이라는 문자로 사용된 듯하다.

⑧ 齧 나이 령(令) - 원래 치(齒)자가 나이를 나타냈으나 후대에 와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으로 축축된다. 웃음 연(嚙)자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⑦ '이 드러나 보일 연(顯)'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어마 여기서 <연침>이라는 우리말이 온 것

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단서를 제공하는 문자일 수도 있다.

한자는 표의문자인데 반해 한글은 표음문자이다. 표의문자에 비해 표음문자는 청각적인 신호를 시각적인 신호로 변환할 때 어떤 의미를 동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자 齒(齧)라는 문자에는 소리와 의미가 들어있지만 우리판의 이(나)에는 소리만이 들어있다. 또 표의문자라 하더라도 문자가 왜 그렇게 표기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소리 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란 어렵다. 즉 왜 齒(齧)로 중국에서는 齒(齧)(chǐ)로 한국에서는 나(m)로 일본에서는 하(ma), 영어에서는 tooth(tu:θ)로 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1) 한글 <나>에 대하여

2. 한글을 통해 본 齒

齒입름 다름 글

齒개름 흘 齒이 관 진, 이 관 큰 齒이 관 조 齒개름 기, 개름 의

齒잇몸 약 齒우니 권 齒이 관 계, 이 관 해 齒개름 가

齒물 씹 齒나이 령(영) 齒잇몸 은, 싸름 인 齒충치 우

齒어긋날 지, 이 바르지 못할 차 齒물 간, 잇몸 은 齒어긋날 어 齒약착할 약

齒개름 꼬 齒이 솟아날 큰 齒약착할 착

齒우니 힘 齒아아를 다듬을 귀 齒개름 띠(띠) 齒충치 구, 충치 우

齒이 빠질 은, 씹을 큰 齒이를 관 함 齒시릴 소

齒입에 넣고 씹지 않을 함, 이가 높은 모양 만

齒이를 관 애 齒입에 넣고 씹지 않을 함, 이가 높은 모양 만 齒씹는 소리 씹, 물 색

齒물시 성내는 모양 큰 齒개름 요, 개름 꼬 齒이 바르지 못할 차, 어긋날 지 齒뺨 씹는 소리 함

齒좋은 이 엄, 좋은 이 만 齒년카모름 환 齒씹을 제 齒개름 관

齒씹는 소리 띠(림) 齒나이 령(영) 齒이 관 진, 이 관 큰 齒잇몸이 드러날 지

齒이 서로 맞을 썬 齒이 고르지 못할 차 齒노인의 이 구 齒잇몸이 부을 거

齒이 드러낼 제, 이 드러낼 차 齒이 바르지 못할 우 齒다시 단 이 예 齒단락 적, 단 을

齒이 부러질 추 齒이 바르지 못할 추, 약착할 착 齒이 다쳐 곪을 조 齒사랑나 권

齒새기질한 익 齒만나 포 齒빠드렁나 파 齒새기질한 지

齒새기질한 세 齒새기질한 세 齒물 색, 확실한 착 齒물 색

齒이 빠질 안 齒이 고르지 못할 아

치자를 부수로 한 한자는 대략 다음과 같다.

<참고> 齒(齧)자를 부수로 한 한자

어(齷)의 형용어 음성기호는 하(ha)이다. 문헌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나)라고 말하러는 시대와
어(齷)의 형용어 음성기호는 하(ha)이다. 문헌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나)라고 말하러는 시대와

3. 형용어를 통해 끝 짓기

단문에서는 <이>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이를 대신한다.<이>나 <이>보다 더 운운한 표현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를 점점
<이>나 <이>보다 더 운운한 표현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를 점점

단문에서는 <이>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이를 대신한다.<이>나 <이>보다 더 운운한 표현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를 점점
<이>나 <이>보다 더 운운한 표현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를 점점

단문에서는 <이>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이를 대신한다.<이>나 <이>보다 더 운운한 표현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를 점점
<이>나 <이>보다 더 운운한 표현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를 점점

단문에서는 <이>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이를 대신한다.<이>나 <이>보다 더 운운한 표현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를 점점
<이>나 <이>보다 더 운운한 표현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를 점점

2) 복한의 경우

단문에서는 <이>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이를 대신한다.<이>나 <이>보다 더 운운한 표현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를 점점
<이>나 <이>보다 더 운운한 표현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를 점점

11) 齧(齧)를 하(は-ha)로 읽는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요슈(萬葉集)에도 나온다. 한편 만요슈나 고사기의 서술면에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거의 비슷한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런데 고사기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아 추측했다.

12) 齧(齧)은 일본어로 <미즈하>라고 읽는다. 즉 축축하고 윤기 있는 치아를 말한다.

齧(齧)이라는 단어는 동북아시아 동양 삼국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에서만 쓰이는 단어이다. 그러나 위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일본에서는 齧(齧)은 치아가 없는 노인에게서 다시치아가 나는 것을 말하는 명사이기도 하다. 즉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말하는 예치(齧齒)를 의미한다. 서

적고 있다.¹²⁾ 그런데 위는 일본서기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일본서기는, '천황이 서치별천황(瑞穗別天皇)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치아가 크고 위아래 치아가 균형을 갖추고 있으며 치열이 나란했기 때문에' 라고

“고대 반정천황의 이름은 서치별천황(瑞穗別天皇406-410)이다. 고사기(古事記)에서는 수치별(水齒別命)이라고 한다. 서치(瑞齒), 또는 수치(水齒)는 윤기가 있고 아름다운 치아를 의미한다.”

한편 일본의 고대 기록에도 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서, 또 톱니에서 보듯 齧(齧)은 가장자리라고 하면 의미상으로는 <날>이 된다. 시관은 齧(齧)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간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주로 가장자리라는 뜻에 카로운 가장자리, 동정나-동정의 양 끝 모서리, 등의 활용이 남아있다. 는 점을 상기하면 일본 역사의 <니(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즉 국어에서 <니(이)>는 그릇의 가장자리, 톱니에서 보듯이 날개가 간다. 이는 한자의 큰 단(端)이 일본에서도 음은 <하>로서 읽히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인적으로든 ④의 추론을 지지한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어학적이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쉽게 이 이상의 추론 가운데서 대체로 일본에서는 齧(齧)에서 왔다는 것이 옳을지나

- ① 나뭇잎처럼 털적하고 동시에 빠지는 것의 상징이 낙엽처럼 떨어진다든 것과 공돌된다든 점에서 하(앞사귀 葉(葉)를 <하>라고 읽는다)에서 왔다.
- ② 음식을 치아 사이에 넣는 동작을 나타내는 <하사무(挾む)>의 <하>에서 왔다.
- ③ 음식을 먹는 행위인 <하무(食む)>에서 유래했다.
- ④ 입의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미하는 <하(端)>에서 유래했다.

또 다른 추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또 설명할 수 있다. 齧(齧)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의 <니>처럼 확실하지 않다. 다만 물건을 자르는 齧(ハ)의 <니>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齧(齧)을 하로 읽고 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齧(齧)의 훈(訓)이 <니>이든 일본에서는 齧(齧)의 훈(訓)이 <하>라는 의미이다.¹¹⁾

최초의 문서는 고사기(古事記)에 보이는데 미치노나다가치하노카미(道之長乳齒神-靉을 관장하는 신)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齧(齧)을 하로 읽고 있다. 즉 이 말은 우리는 齧(齧)의 훈(訓)이 <니>이

4. 인도 유럽어족에서의 𐌆

1) Tooth의 어원적 접근

인도 유럽어족의 𐌆에 관한 문자적 접근은 현상적으로 한자문화권에 대한 접근보다는 피상적인 수밖에 없다.

영어 <tooth>는 𐌆를 의미하지만 원래는 <씹다>, 또는 <먹는 기구>를 의미한다. tooth는 고대 인도 유럽어족의 <ed>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이 <ed>는 <eat>, <edible>의 어원이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ed>의 현재문사형인 <ed-onto>가 라틴어의 <dens>로 되었고, 고대 영어에서는 <toth>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위의 내용은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의 원문¹³⁾의 tooth 항목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Word History: Eating, biting, teeth, and dentists are related not only logically but etymologically: that is, the roots of the words eat, tooth, and dentist have a common origin. The Proto-Indo-European root *ed-, meaning "to eat" and the source of our word eat, originally meant "to bite." A participial form of *ed- in this sense was *dent-, "biting," which came to mean "tooth." Our word tooth comes from *dont-, a form of *dent-, with sound changes that resulted in the Germanic word *tanthuz. This word became Old English tth and Modern English tooth. Meanwhile the Proto-Indo-European form *dent- itself became in Latin dns (stem dent-), "tooth," from which is derived our word dentist. We find a descendant of another Proto-Indo-European form *(o)dont- in the word orthodontist.

위의 어원적 문화와는 달리 서양에서 𐌆가 상징하는 것은 <위험, 해독>의 의미가 강하다. 이는 이(齒)의 기능을 동양에서처럼 음식을 먹기 위한 신체적 일부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공격을 위한 도구로서의 인식이다. 예를 들어 <드라큘라>와 <tooth for tooth, 이에는 이> 같은 텍스트도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자나 한글에서 이(齒)나 이(牙)와는 달리 영어에서는 Tooth가 명사 및 동사적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는 tooth가 맞이나 음식기호를 나타내기도 한다. <sweet tooth> 라는 속어는 <단 것을 좋아함>이라는 관용어이다.

이렇듯 동양과 서양의 이(齒)에 대한 관념은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유사

13)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Fourth Edition copyright ©2000 by Houghton Mifflin Company. Updated in 2009. Published by Houghton Mifflin Company.

앞에서 언급한 고대 인도 유럽어족의 <ed>에서 라틴어로는 <dens>로, 그리스어로는 <odont>로 영어로는 <tooth>로 분화했다. 이때 라틴어의 dento-(dent-), denta-, dentino-(dentin-), denti-. 그리스의 odont-(odont-, -odont, -odontic, -odontia, -odontoid)는 모두 치아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성(性)에 따를, 또는 격(格)에 따를 문법적 변화의 결과이다.

원대 치의학 용어는 대부분이 서양치의학에서 사용해진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치의학뿐만 아니라 근세 이후 서양의학의 체계가 현대의학의 주류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서양의학 및 치의학 전문 용어는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그리스문화와 라틴 문화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원대 치의학 용어는 그리스어 유래, 라틴어 유래, 영어 유래, 라틴어 유래, 영어 유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 원대 치의학 용어의 기원

③ 동양 산과과는 말리 치아가 나이를 의미하는 경우는 아주 빈약하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long in the tooth <나이를 먹은>라는 속어가 전부일 정도이다. 물론 치아가 나이와 함께 변화하는 객관적인 지표라는 것을 서양인들이 통찰을 리는 없다. 예를 들어 영어에 <git horse>라는 관용어가 있는데 이 관용어는 <선물로 준 말>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영어 속담 가운데 <Don't look a gift horse in the mouth.>라는 속담이 있다. 직역하면 <선물로 준 말의 입안을 들여다보지 말라.>라는 말인데 말의 입을 트지 말라는 속담이다. 이 때 말의 입안은 다들 어딘 말의 치아를 의미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의 입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나 발굽이 아니다. 말은 감각화 기 위해서는 말의 이빨을 가지고 감정론 한다. 말의 이빨 중에 <mark tooth>라는 이빨이 있다. 이 이빨은 말의 한니를 가리키는데 이 이빨에는 말의 나이를 나타내는 줄이 있다고 한다. 한편 동양 한자문화권에서는 말의 치아(馬齒)를 말의 이빨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나이를 낮추어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② 한편 고상성어로 조아지사(爪牙之士)라는 말이 있는데 풀이하면 손톱이나 어금니와 같은 선비 즉 전성령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忠臣(충신)을 말한다. 영어에서는 부사구로 <tooth and nail>이라는 속어가 있다. <전력을 다하여, 필사적으로>라는 의미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상동한 다 하겠다. 단지 고상성어의 조아지사(爪牙之士)에서 손톱과 치아는 충성을 하는데 필요하지만, 서양의 <tooth and nail>은 싸우는데 필요하다는 점이 다르다.

① 한중일 동양 언어와 마찬가지로 tooth는 틀니에서처럼 틀니를 sawtooth라 한다. 이를 보면 뾰족뾰족한 모습을 한 털을 니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만국 공용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개념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① 라틴어 계열 용어인 den, 복수형은 dens
라틴어 dento-(dent-), denta-, dentino-(dentin-), denti-

dens incisivus 앞니

dens in dente, dens in dente, 치내치(齒內齒)

Dens serotinus, 智齒

dens: 이, 치아

dental: 치-, 치아-, 치과-

dental caries: 충치, 치아우식증

dental extraction: 발치

dental prosthesis: 치과보철물, 유상의치

dental pulp: 치아속질, 치수

denticle: 작은이와 같은 돌기

dentin: 상아질, dentinum

dentinoblast: 상아질모세포

dentist: 치과 의사

dentition: 치열,

secondary dentition: 영구치아열, permanent tooth

denture: 틀니, 의치

dedentition: 치아의 탈락

edentulous mandible: 무치악, 이가 없는 턱

paradental cyst: 치주낭,

pre-dentin: 전상아질(뫼상아질)

② 그리스의 odont 예사 기원

그리스어의 onto-(odont-), -odont, -odontic, -odontia, -odontoid.

odontectomy: 치아절제술, 발치

odontogenesis: 치아발생, 치아형성, odontogeny

odontoid process: 치아돌기

odontologist: 치과 의사, dentist

odontoparallaxis: 맞물림장애, 부정교합, 교합장애, malocclusion

odontoplasty: 치아성형술

1) 이(니, 치아, 하, tooth)를 통해본 한자문화권의 특징과 영아권의 개념 차이는 분명하다. 치아가 연령을 의미하는 것은 한자문화권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토착문화 즉 한반도에서는 한자가 유입되기 이전, 일본에서도 한자가 유입되기 이전의 치아에 대한 인식이 동일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최소한 삼국시대에 벌써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한자가 유입되기 이전부터 치아가 나이를 나타내는 문화가 저변에 있었음을 추론하는 것도 무리

5. 결어

* 젖니의 다른 말 milk tooth는 라틴어 dens lacteus(젖의 이)를, 사냥나 wisdom tooth는 라틴어 dens sapientiae(지혜의 이)를 영어로 옮긴 것이다.

tooth whitening : 치아미백;
 abutment tooth : 지대치(支臺齒)
 tooth germ : 치배(齒胚)
 tooth-pick : 이쭌시개
 tooth paste : 치약
 toothbrushing: 이 닦기
 toothache: 치통
 *wisdom tooth: 지치(智齒), 사냥나
 deciduous tooth: 탈락치아, 젖니, *milk tooth. primary tooth
 tooth: 이, 치, 치아. 복수형은 teeth

③ 영어에서 유래

prosthodontics: 보철학
 periodontium: 치아주위조직, 치주
 periodontitis: 치아주위조직염, 치주염
 periodontal disease: 치주병
 orthodontic appliance: 치과교정장치
 hypodontia: 치아결핍, 치아탈락부전증 ↔ hyperdontia(치아과다증, polyodontia)
 exodontia: 발치, 발치술
 antiodontalgic: 치통약, 항치통약, 항치통성-
 anodontia: 무치아증, 치아없음증

와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개략적인 사실만으로도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연구 분야의 경우 하라고 하는 데 이도 <그>에서 변형되어 나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그러나 언어학자들은 이 발음을 역시 모두 <그>에서 분화되어 나간 것으로 간주한다. 또 <그> 발음 한국 사포아제도 나팔, 니포, <그> 발음 라틴어 계열 아제르바이잔, 터키는 디스, <그> 발음 중국어나 영어, 위구르는 쉘, 북스, 지스

아가 <이>로 발음이 변화되어왔다는 사실이다. 또 현재 지구상의 대다수의 언어에는 이를 나타내는 단 <디>나 <디>의 의미는 물건 따위에서 뿔뚝하게 내민 부분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디>나 <디>의 원래 이는 <나>라고 하며 현재도 아랍어, 히브리어 등에서 쓰이고 있다. 이것의 원 5) 이의 사전적 정의는 입 안에 있으며 무엇을 물거나 음식물을 씹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이 역시스려움이 이두나 한자를 빌어 표기한 고대사회 언어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좋은 아이디어 <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흔히 뿔이 돌고 일련의 경우에는 뿔도 같다. 지금은 역시스름게 느껴지지만 <하>와 <나>가 의미하는 <나>의 의미와는 <나>가 의미하는 <나>와 <나>의 의미를 의미하

3) 위에 가서 다시 자세히 연관된 내용을 다루는 것이지만 사람이나 지혜=지혜=이 사람의 지혜와 <하>는 한국에서는 흔히 뿔이 돌고 일련의 경우에는 뿔도 같다. 지금은 역시스름게 느껴지지만 <하>와 <나>가 의미하는 <나>의 의미와는 <나>와 <나>의 의미를 의미하 <하>는 한국에서는 흔히 뿔이 돌고 일련의 경우에는 뿔도 같다. 지금은 역시스름게 느껴지지만 <하>와 <나>가 의미하는 <나>의 의미와는 <나>와 <나>의 의미를 의미하 <하>는 한국에서는 흔히 뿔이 돌고 일련의 경우에는 뿔도 같다. 지금은 역시스름게 느껴지지만 <하>와 <나>가 의미하는 <나>의 의미와는 <나>와 <나>의 의미를 의미하 <하>는 한국에서는 흔히 뿔이 돌고 일련의 경우에는 뿔도 같다. 지금은 역시스름게 느껴지지만 <하>와 <나>가 의미하는 <나>의 의미와는 <나>와 <나>의 의미를 의미하 <하>는 한국에서는 흔히 뿔이 돌고 일련의 경우에는 뿔도 같다. 지금은 역시스름게 느껴지지만 <하>와 <나>가 의미하는 <나>의 의미와는 <나>와 <나>의 의미를 의미하

다. 오래된 속어는 어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는 거의 나이를 의미하는 속어나 파생어가 없 in the tooth라는 속어는 번역하면 <늙다, 아주 늙다, 늙어간다.>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그리 2) 한편 서양에서 치아가 가지는 의미 중에 나이와 관계된 사항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Long

는 아니다.

14) Wiktionary에서 참조 정리.

- Chinese: Mandarin: chi
- Chechen: cerg
- Chamicuro: ajsi
- Catalan: dent
- Bulgarian: zăb
- Breton: dant 브르타뉴어
- Bengali: dat
- Belarusian: zub 러시아 우크라이나
- Basque: hortz
- Bashkir: teŋbaŋki트어족
- Azeri: diŋ 터키어족
- Asturian: diente 인도유럽어족
- Armenian: atam, (Western Armenian: akra) 인도유럽어족
- Hebrew: šina ' 증오라는 의미도 있다.
- Aramaic: 아람어 Syriac: šina'
- Egyptian Arabic: semn
- Arabic: simm 셈족계열 치아가 나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 Albanian: dhemb 인도 유럽어족

* 다음은 참고를 위하여 세계 각 지역의 나(이)에 대한 명칭들이다. 참고하기 바란다.¹⁴⁾

<참고> 각 지역의 치아에 대한 명칭

② <요하이>와 <하>의 음운론적 유사관계

어떤 관계로 성립할까?

가운데 성인, 장년, 노인 등 의미하는 인간의 이빨의 결손 상태에서 유래한 나이와의 상관관계는 또 이것과 상형문자에서 유래하는 치아와 나이의 관계, 즉 치(齒)자의 갑골문의 여러 형태

원이라면 동양의 이나이의 문화는 한반도의 문화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가?

① <나이>와 <이>, 또는 <나>의 음운론적 유사관계상 같은 어원이 아니었을까? 만약 같은 어

6. 연구 과제

Min Nan: chhñi-khi
Chuvash: sǎi 추바시족어-터키계 소수민족 주로 러시아 거주
Czech: zub
Danish: tand 덴마크어
Darkinjung: dharra
Dolgan: tiis 터키계 탈강족어
Dutch: tand
Esperanto: dento
Estonian: hammas
Evenki: ikte 동구스어-러시아 몽고, 중국에 거주
Faroese: tomn
Finnish: hammas
French: dent
Gagauz: diş 북대서양 볼도바 원주민
Gamlilaray: ytra
German: Zahn
Greek: donti Ancient: odous
Guarani: t- ñami 인디언부족어
Gujarati: dat 인도서부 구자라트족어
Hebrew: shen
Hindi: dat
Hungarian: fog
Icelandic: tomn
Indonesian: gigi
Interlingua: dente
Irish: fiacail 스코트랜드도 관음계열
Italian: dente
Japanese: ha
Kalmyk: shüdn 칼미크족어(몽고계)
Karakalpak: tis
Kazakh: tis
Khakas: tis
Karachay-Balkar: tis 러시아 거주 터키계(카자흐스탄 등에 거주)

Khmer: t' mɛiŋ គ្រឿងត្រកូរ
Kikuyu: iɛgo កៀន កៀន កៀន កៀន
Korean: I or ni
Kumyk: tɕ
Kurmanji: didan
Sorani: dan
Kyrgyz: tɕ
Lakota: hi ហ៊ី ហ៊ី ហ៊ី ហ៊ី
Lao: khɛw ខេវ ខេវ ខេវ ខេវ
Latin: dens
Latvian: zob
Lingala: lino លីណូ លីណូ លីណូ លីណូ
Lithuanian: dantis
Luhya: liliŋo លីលីណូ លីលីណូ លីលីណូ លីលីណូ
Luo: lak កៀន, ត្រកូរ ត្រកូរ ត្រកូរ ត្រកូរ
Macedonian: zab
Malay: gigi
Maori: niho
Mbabaram: dirra
Mongolian: süd
Nahuatl: tlanŋi
Nepali: dat
Nogai: tɕ
Norwegian: tann
Okmawan: haa
Old Church Slavonic: zobŋ
Old English: to þ
Pashto: ټو ټو ټو ټو
Persian: fa یران
Polish: zab
Portuguese: dente
Quechua: kɪnu កៀន កៀន កៀន កៀន
Rohingya: dat

Romani: dand
Romanian: dinte
Russia Buryat: sïden 시베리아의 몽고족어
Russian: zub
Samoan: nifo 퓌리네시아 서사모어어
Sanskrit: danta
Scottish Gaelic: fiacail
Sichuan Yi: rry 스완지역어
Sinhalese: data
Skolt Sami: pãã ` m
Slovak: zub 슬로바키아어
Slovene: zob 슬로베니아어
Sorbian: Lower Sorbian: zub
Upper Sorbian: zub
Southern Altai: tıs
Spanish: dente
Sundanese: huntu
Swahili: jimo
Swedish: tand
Tagalog: ngipin
Tahitian: nihi
Tajik: dandon
Tatar: tes
Thai: fan
Tok Pisin: tıs
Turkish: diş
Turkmen: diş
Tuvan: diş
Ukrainian: zub
Urdu: dat, ڈات, ڈات
Uzbek: tish
Vietnamese: răng
Volapük: tut

- ① 폴리네시아어지역 <nifo>나 <nihno>
- ② 타타르-터키 음 중앙아시아어부근 <tis>나 <dis> - 영어 중국어
- ③ 라틴-헝가리 지역 <dent>나 <tan>, <dant>
- ④ 몽골령러시아어 서남부지역 <zah>나 <zub>, <zob>
- ⑤ 몽고계역 <sud>나 <suden>
- ⑥ 아랍 중국지역의 <sim>이나 <sen>

대략 위의 발음형을 분석해 보면 크게 여섯 종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큰 의미는 없지만 이 발음에 의한 분류는 어떤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Welsh: dant 웨일즈어
 West Frisian: tosk
 Yakut: tis 야쿠트족어
 Yiddish: zom. 이디시어

부츠¹⁾와 맥물린²⁾의 백두산 탐험

어나스트 피셔³⁾
신유석⁴⁾ 역

1921년 3월 부츠(John. L. Boots)⁵⁾는 체프리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병원 치과 과장이 되어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치과학 교수를 겸직하게 되었다.⁶⁾ 부츠는 “치과선터”를 1930년 9월 건축하기 시작하여 1931년 10월 28일 완공하고 낙선 식을 거행하였다. 부츠는 학술 면에서도 크게 공헌하였다. 부츠는 의욕적인 성격으로 백두산 탐험을 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선교사들의 소식지인 『The Korea Mission Field』 26권 10호, 1930년, 209-214쪽에 실린 글로서 백두산탐험기이다. 1939년 부츠는 선교지를 물려 중국 북경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전근하였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없었던 오래 전에는 백두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아시아에 있는 백두산은 근처에서 가장 높으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접근이 위험하고 어려웠다. 모험을 즐기는 선교사라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 한 이 산을 탐험하고 싶어 하겠지만, 최근까지 이것은 꿈이 아니라 희망에 불과했다. 접근성과 시간, 위험성, 날씨, 중국의 산도적들, 비용 등이 보통 선교사들에게는 이 여행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군사를 데리고 교사, 과학자, 학생과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매 년 탐사대를 만들어 이를 지원해왔다. 그들의 보고서로 인해 백두산에 대한 의견점들이나 잘못된 탐험 사실들을 바로잡아줘서 백두산 탐사는 좀 더 현실적인 도전이 되었다.

약 1년 전 세브란스 병원의 J. L. Boots와 회령의 Mr. R. M. McMullin은 그 해 여름부터 백두

- 1) John L. Boots. 세브란스병원 치과근무 선교사
- 2) Regland M. McMullin. 함경북도 회령 주재 선교사
- 3) J. Earnest Fisher. 서울 주재 선교사
- 4)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
- 5) 부츠는 1894년 11월 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 뉴브런즈에서 출생하였다. 1918년 피츠버그대학교 3년 과정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 임상강사로 재직하다가 1921년 3월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왔다. 그는 치과직표에 있어서 구강의 과학 분야를 주로 담당하였다.
- 6) 『The Korea Mission Field』, vol. 17 1921, pp.66.

산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외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참하였는데, 수년 간 소중히 여겨왔던 열망을 보여주는 열이였기에, 여행에 필요한 인원을 모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탐사대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여행을 시작했다. 한 팀은 두만강의 무산에서 산을 향하였고, 다른 팀은 양록강의 혜산진에서 시작하였다.

첫 번째 팀에는 J. L. Boots, R. M. McMullin, J. H. Morris, Thomas Hobbs, Earl Emmertch 및 작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혜산진에서 출발하는 팀은 A. Campbell, R. M. Byram, A. W. Ott로 이루어졌다. 두 팀은 산꼭대기에 도착하기 하루 전 신무장이라는 캠핑 장소에서 만났고, 5일간 함께 한 후 산 정상에서 40마일 떨어진 세 개의 호수가 있는 곳에서 헤어졌다.

Boots, Morris, Emmertch 와 작가는 8월 4일 오후 3시 원산을 떠나 북으로 향하는 열차가 숲 진에 이르렀을 때 Hobbs 를 만났다. 다음날 아침 고무산에 도착했고, 무산으로 향하는 좋은 열차 권에서 McMullin 을 만났다. 그는 짐을 나르는 조랑말들을 마련하기 위해 며칠 앞서 가 있었다. 저녁 5시쯤 무산을 떠난 그들은 약 7마일을 지나 배를 타고 짧은 거리를 간 후 두만강의 민중 쪽에 있는 낙원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했다.

6째 날 두만강을 따라 10마일을 이동한 후 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고, 12마일 정도를 더 지나 서두수가이 두만강과 만나는 지점에 있는 산하강구에서 밤을 보냈다.

7일째는 20마일을 지나 동사동에 도착 하였다. 이곳부터는 황무지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었다. 단지 좋은 길만이 무성한 숲을 향해 뻗어있었다. 그들은 동사동에서 2마일 떨어진 곳에서 두만강을 다시 건너, 만중 쪽으로 12마일 더 여행한 후 돌아왔다. 강은 2-3피트 정도의 깊이에 5-피트 정도의 너비를 가지고 있었고, 물살이 빠르고 물은 매우 차가웠다.

8번째 날 밤은 Katsulibong의 빠르게 흐르는 개울 옆의 빈터에서 묵었다. 그곳에는 긴 피난처가 있었지만, 지붕까지 수리가 필요한 곳이었다.

9일째에는, 신무장이라는 곳에서 25마일 떨어진 곳에서 지냈는데, 작은 개울에서 맑은 물은 얻을 수 있었다.

10일째에는 17마일 떨어진 무두봉에서 묵었고, 깨끗한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두 피난처는 최근에 불타버리고 남은 나무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11번째 아침, 그들은 숲에서 나와 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멋진 평야로 들어섰고, 'Old white heat' 를 분명히 볼 수 있었다. 11번째 정오쯤 산 정상에 도착하여 백두산 전지를 보았고, 그날 밤은 그 주변에서 묵었다.

12일째 2시쯤 정상에서 다시 출발하여 그날 밤은 무두봉에서 보냈다.

13일 째는 The three lakes를 향해 가장 긴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 호수는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50마일,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곳에서 13일과 14일을 모두 보내면서 호수와 줄의 경치를 만끽하였다.

식물군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많았다. 그들의 팀에 식물학자는 없었지만, 권을 따라 펼쳐진 다
면의 이공을 풀었다.

한 사람을 모두 그 땅의 숨겨진 농업 잠재성에 감탄하면서도, 현재까지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에
게 자라고 있었다. 그들은 맑고 차가운 개울을 건너면서 물도 증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탐험
진나무, 가문비나무, 낙엽송 등 아름다운 나무들로 덮여 있었고, 물과 참조들이 나무 밑에 무성하
활한 오프트에는 물과 풀이 자가 없어 농사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현재는 너도밤나무, 느릅나무,
한 거들이 되었으며 증조트들이 산 정상에서 계속 공반되어 증발한 권이와 비우함을 이루었다. 평
다. 과거에 백두산은 화산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고, 수세기에 걸쳐 나무가 자라고 죽어, 비우
를 수 없었다. 만약 그 땅에 나무만 없었다면, 어떤 작물이든 풍작을 기대할 수 있을 때를 잃었
그들은 그들이 방문한 곳이 한국에서 굉장한 농사의 기회가 있는 곳이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

10마리의 웅장한 삼림이 뻗어 있었다.

이용되지 않은 훨씬 많은 땅이 농사에 적합해 보였다. 농사독을 던져서 산 정상에 향하는 곳에는
이어서 풍작에 좋은 환경처럼 보였다. 산하강구와 농사독 사이에는 독트가 일부 있었으나, 아직
근처에는 풀은 암벽이 있었으나, 반대편에는 비우한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토양은 짙고 검은 색
었다. 두만강 만주 쪽의 무산과 산하강구 사이의 지역은 농경에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강
아서부터, 그들은 토양의 비우함과 거의 적자된 적이 없었지만 뛰어난 농경 환경에 깊은 인상을 받
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들도 강한 동기가 되었다. 무산에서 여행을 시작하지 몇 마일 지나지 않
사진과 다른 흥미로운 사진들을 찍고 싶었다. 동포들과의 연대감을 가지고 캠프, 하이킹 등의 야
Boots는 이를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년 전부터 고무보트를 확보하였다. 또한 백두산 천지의
깊은 열망이 각각의 사람들의 목적이었을 것이다. 백두산 천지는 한번도 조사된 적이 없었고,
그들의 백두산 여행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한국의 권 안까지 가지 않는 곳을 탐험하고
몇 문명직한 면과 조람만의 강인함을 알게 되었다.

의 마부들도 전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 마부들의 기술
참고 전에 백두산에 한번 갔다 온 한국인이었는데, 영국과 외국성경협회의 사적 상인이었다. 다수
의 조람과 안장을 가지고 갔다. 각각의 조람은 주인이 데리고 다녔다. 가이드는 산하 강구에
밖의 개인 용품들이었다. 그들은 6마리의 짐을 나르는 조람과 필요 시 팀원이 탈 수 있는 여분
카메라(동영상 촬영기 포함) 짐을 수 있는 고무보트, 차, 칩이 석 의자, 탁자, 탁자, 축음기, 요리기구, 그
그들의 장비는 두 개의 텐트와 2주일치의 식량, 침구, 옷가지, 가스 스토브, 권구, 총, 도끼,

보낸 시간과 The three lakes 에서 보낸 시간을 포함하여 13일간 도보로 여행하였다.

20일째 무산을 통해 돌아간 이들이 원산에 도착하였다. 작가가 함께 여행한 팀은 문화구에서
으로 돌아가 18일째 그곳을 떠났다.

Emmerich, Fisher는 무산을 통해 돌아왔고, Campbell, Byram, Ott는 강계로, Morris와 Boots는 원산
15일 아침 다시 두 팀으로 나뉘어졌으며,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McMullin, Bobbs,

그들의 주요 목적이었던 산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한번도 백두산의 폭이에 간혹을 받
 은 적이 없는데, 만원경으로 관찰할 당시에는 관찰 지역과 보이는 곳에 큰 차이가 없어 보였기 때문
 이다. 그들은 신무성에서 산을 처음 보았고, 그곳은 해발 4500피트였다. 산 정상은 9000피트였으나
 경사가 매우 완만해 보였다. 줄을 지나 고원지대에 이르렀을 때 산봉우리는 그들 앞에 10마일 크기의
 포물선처럼 다가왔고, 그것은 마치 서커스 텐트나 짙은 절사를 거꾸로 뒤집어놓은 모양과 비슷했다.

만강의 물은 매우 차갑고 상쾌했다.
 추웠다. 무산에서 떠나 이틀간은 은신처 없이 밤을 보냈지만 온기가 충분했고 대기와는 다르게 누
 췌 40도까지 내려갔다. Katsulibong를 떠나 산 정상에서 65마일 떨어진 곳에서 65마일 떨어진 곳에 도착했을 때는 매우
 온화하며 온 스텝만 있으면 될 정도로 편안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화
 는 뿔에는 구름 낀 것처럼 적당히 양의 비가 내렸다. 낮 동안에 눈썰매는 따뜻했고, 산 정상도 여를
 그들이 정상에 향할 때나 도착 후 24시간 정도 까지 눈썰매는 완벽했으나, 그 이후부터 돌아오
 매도 나타났다.

중의 반대항과 도양의 두께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은 거의 보지 못했다. 여러 작은 새들과 오
 리, 너저, 버위 비둘기와 작은 새들을 볼 수 있었다. 엘프는 꽤 자주 보이는 편이었고, 야생 공과
 야생새를 보았으며, 가이드들에게 주변에 늑대, 호랑이와 표범들이 있다고 전해 들었다. 곤충류
 는 상당히 다양한 편이었는데, 다양한 크기와 색의 나비를 볼 수 있었고 문화구 주변에서는 메뚜
 기, 귀뚜라미, 딱정벌레를 발견 하였다. 작은 가지를 가진 파리는 종종 그들을 귀찮게 했고, 각다
 귀로도 있었으나, 해가 지면 거뿔처럼 사라졌다. 무산에서 3일간은 모기가 많았으나, 그 이후로
 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문화구 주변에는 산봉우리 사이를 넘어다니는 제비들이 있었고, 가끔

있어 하얗게 보이게 만들었다. 아주 작은 흰으로도 쉽게 부스러졌다.
 지의부는 잘 다려진 스펀지나 산호처럼 보이는 움직이는 무리일 것이다. 그것들은 땅을 넓게 덮고
 이는 회색 빛 이기도 있었다. 몇몇 이끼들은 몇 피트나 될 정도로 길었다. 아마 가장 재미있었던
 의 크기에 매우 가벼웠다. 나무와 돌에 매달려 끈적 끈적하게 붙어 있거나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처럼 보
 이끼류와 지의류도 있었다. 일부 이끼들은 밝은 녹색과 벨벳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6-8인치정도
 었고, 열매가 녹색빛을 띄고 매우 단단하며 약간 쓰고 짙은 야생 배나무가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다른 형태들은 똑같았다. 작지만 더 란한 한 평기도 있었다. 빨간 산사나무 열매와 헤이즐넛도 있
 무두리) 열매들이 수마일 떨어진 미국산 허클베리에 비해 신맛이 강했으나, 꽃과
 미지포 다가온다. 아름다운 꽃들 이외에 실용적인 꽃들로는 허클베리(일종의 블루베리나 선영두나
 는 더 많은 꽃들이 있었다. 그 지역은 이제 각자의 마음에 정교한 색의 형태가 만발하던 중의 이
 색) 끝까지의 백합 (개화하지 않음), 핑크, 작은 노란 야기비 몇 종의과꽃류, 그리고 기록되지 않
 카네이션 (적은 꽃잎이지만, 향이 짙음) 투구 꽃무리, 물림 (자주 빛 센터와 짙고 풍부한 푸른
 수 있었다.

양한 아름다운 꽃들에 즐거워했다. 흔한 식물 중들만을 기록했음에도, 많은 종류의 식물들을 기록할

란 수 있었다.

국과 중국이니 가지고 있던 괴물이나 악의 영혼들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었는가를 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설명하기 힘든 놀라움과 어림없이 경외감도 느껴지만, 한 밑에 응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Dragon king lake' 라는 이름의 유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 우 불구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 환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호수 표면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거대한 그림자는 호수 위를 타고 표면 밑으로 드리워졌다. 그림자들은 매우 짧았으나, 문화와 호수는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또는 매일 다를 모습을 가질 것이라는 점해본 적이 없는 우주의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천지에 머물렀던 시간은 역시 세상의 꼭대기에 있는 느낌을 갖게 9했다. 이러한 느낌과 미신들은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깨닫고 회박한 공기와 높은 고도의 느낌, 멀리 보이는 전망과 오를 걸어온 길들에 대한 기 구 주변까지 동해하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고, 몇몇은 물가로 내려가기도 했다.

던간 몇 번의 탐사가 이루어졌고, 백두산 천지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그들의 마부들은 문화 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백두산 천지가 초자연적인 두려움을 갖도록 하였다. 하지만 그 후 최근 몇 는 이야기를 전했다. 또 두 명의 러시아인들이 천지에서 보트를 타다가 익사했다는 이야기도 있었 년 전 한 여행자가 호수에 배를 띄우자마자 폭풍이 몰아쳐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온 적이 있다 안전에 진심 어린 걱정을 하기도 했다. 얼마 전 백두산 정상에서 돌아온 일본인 학생 한 명은, 15 온 몇 곳의 마을에도 알려져 있었는데, 보트를 그 호수를 여행할 것이라고 하자 주변에서 그들의 인를 중 한 사람만이 문화구 근처 10마일까지 여행하였다고 하였다. 그러한 사실이 지금까지 지나 인 모두 호수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1891년 백두산 천지를 방문한 영국인은, 칸이 간 한국 려움을 이해 할 수 있다. 그들은 호수를 용왕면 혹은 Dragon king lake라고 불렀고, 한국인과 중국 한변 문화구 주변에 용라사자, 한국인들이 이 산과 호수에 대해 오랫동안 가져온 경외감과 두 를 완벽하게 증속시켜 주었고, 놀라움과 감탄에 잠시 동안 서로 말을 잊지 못하였다.

었다. 흰은 보라색,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조록색, 흰색과 검은색이 서로 섞여 시각적인 만족감 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와 색상을 이루고 있어 한 위대한 예술가의 경이로운 작품처럼 보 한 형태의 우뚝 기암절벽들이 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어, 여러 가지의 광경을 보여주었다. 이 절벽 펼쳐졌다. 밑 밑 1000피트 아래, 흰은 정색의 호수가 마법 같은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었다. 다양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였다. 마지막 경사를 오르자, 지금까지 한번도 본 적 없는 광활한 장관이 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는 여러 군데의 가파른 절벽이 있어 마치 다른 곳에서 정상이라고 색이었다.

유래가 산 정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 나타난다고 했지만, 그보다는 흰색 수정 석에 의해 나타나는 부위를 뒤덮고 있는 화산재나 수정 석에 의해 나타나는 색이었다. 일부 사람들이 백두산의 이름의 나 있어 녹색으로 보였다. 흰색으로 보이는 부위는 해가 떠오르면 더욱 희게 보였는데, 이는 정상 옆모듬은 회색빛의 흰색이었으며, 일부는 어두워 보이기도 했고, 다른 쪽은 드문드문 조목이

수상측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몇몇은 문화구 주변의 숭어리강이 흘러나가는 곳을 가보기도 했다. 그곳까지는 문화구 주변 돌레의 1/4정도 되어 보였다. 하지만 가는 권에 포기하고 다시 를

가 하부 종일 방해 받지 않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과 호수의 조차연적인 존재의 도움이 필요 매우 오래 걸렸다. 과학적인 가지나 수심을 측정한다는 만족감은 둘째 치고 물 위에 떠 있는 보트 폭은 2마일, 권이는 4마일 정도였는데, 최대한 다양한 장소에서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 오후가 되자 바람이 심해져 보트를 조정하기 어려워지면서 작업이 매우 위험해졌다. 호수는 작업이었다. 고무보트가 새는 바람에 수면에 떠 있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공기를 넣어줘야 했 한쪽에 기대서 500-1000피트가 되는 줄에 15파운드 정도의 무게를 달아 줄을 넣었다 빼다 하는 피곤한 곳들은 약 200-500피트 정도의 깊이였다. 이 작업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고무보트의 린한 준비를 하여 여러 곳에서 깊이를 측정 하였다. 가장 깊이 보이는 곳은 1026피트였고, 다른 이를 측정하려는 두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Boots와 McMullin과 그들의 조수는 이 여행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였다. 백두산 천지의 깊이는 평장히 다양했는데, 이 전에도 깊이 다음날 이를 아찔 Boots와 McMullin은 수심 측정 작업을 위해 다시 호수로 나왔다. 이 작업은 하였다.

정도에 출발 하며 산 정상에 7시에 도착 하였으며, Boots와 McMullin은 한 시간 정도 뒤에 도착 가장자리는 마치 살아있는 듯이 보여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들은 호수에서 약 5시 이루어진 땅이 내려갈 때는 쉽게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다 때문이다. 문화구 주변의 모든 포 내려갈 때는 30분이면 갈 수 있었지만, 다시 올라오는 길은 2시간이 걸렸다. 느슨한 경사로로 기 시작했다.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가장자리의 땅이 부스러져 있어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호수 고 수심 예비 검사를 하였다. 작가를 포함한 다른 멤버들은 문화구 밖으로 나오기 위해 벽을 오르 보였고, 한국인이 저녁으로 가져온 쌀을 나누어 먹었다. Boots와 McMullin은 호수에 고무배를 띄우 승려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작은 범과 은신처를 발견 할 수 있었다. 5명의 멤버들은 그곳에서 밤을 호수에 몸을 담근 후 멤버들 중 몇 명은 호수 동쪽의 숭어리 강이 시작되는 부위로 옮겨갔다. 차량지 않았다.

었다. 모두를 차가운 호수에 몸을 담갔다. 물이 차갑기는 했으나 올라오는 권에 건넌던 강보다는 마일 정도의 완만한 경사진 평지가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반마일 정도 좋은 호숫가가 펼쳐져 있 들은 남동쪽를 통해 내려가기 시작 했으며, 호수 표면 근처에서 약 천 피트 정도 떨어져 있고 반 만큼 수 있었다. 문화구에서의 첫째 날 이후, 모든 팀원들은 문화구 린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반박에 되지 않아 텐트의 가장자리에 4개의 무게를 얹어놓고 나서야 밤새 몸을 기댈 곳을 등을 세운만한 곳이 없었다. 결국 즉 주시 텐트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린한 센터 플 권이의 차렸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서 텐트가 바람에 무너져버렸다. 땅이 단단하지 않아 텐트의 기 그들은 문화구 주변에서 약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 가장 몸을 숨기기 좋은 곳에 캠프를

아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앞으로 가야 할 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보다 훨씬 많이 남았을 뿐 만 아니라, 오후에 다시 돌아가기로 한 시간까지 도착 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시도로 멀리서는 볼 수 없었던 문화구 주변에 쌓인 눈을 볼 수 있었다. 눈은 바닥에서부터 높고 있었으며, 눈 밑에 웅덩이 있을 정도로 깊어 보였다. 다른 흥미로운 것은 그날 아침 발견한 지금 4-5피트정도 되는 검은 유리나 포세린처럼 보이는 덩어리였다. 다른 곳에서 작은 조각들은 발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큰 덩어리는 그곳에서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정오쯤 캠프로 돌아와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Boots와 McMullin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무수봉에서 밤을 보내기 위해 갔던 란들이 도착했고, Boots와 McMullin의 배를 나르는 것을 도와줄 한 명과 보트와 짐을 나를 만들만 문화구 쪽으로 가고 나머지 인원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 했다. 그들은 6시쯤 무수봉에 도착하였고, Boots와 McMullin은 2시간 뒤에 도착했다. 그들은 산 정상을 향한 때 텐트를 쳤던 곳에 똑같이 텐트를 치고 밤을 보냈다. 돌아오는 길에는 백두산 천지에 서 남쪽쪽으로 45마일정도 떨어진 Lake of the woods에서 이를 밤을 보냈다. 그곳에서 한 팀이 해산선을 통해 남쪽으로 이동했고, 나머지 팀은 무산을 통해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두 팀은 각각 암봉강과 두만강에서 돌나부 래프팅을 즐겼고, 금부 때문에 물벼락을 여러 번 맞기도 했다.

그들은 두만강에서 금부와 폭우에 타고 있던 뱃속이 휩쓸려 부서지기 직전 배에서 뛰어내렸고, 여행은 그렇게 스텔 있게 끝났다.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원주민 기자가 마웅을 나와 반갑게 맞이하였다. 백두산 주변의 국가들은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한 나라들이다. 그들은 은 커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한 많은 곳들의 탐험에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발간 기념 모임 : 2012년 10월 16일(화) 19:00, 서울대병원 임상연구동 거든뷰.
 합본 범위 : 대한치과의사학회지 제1권 제1호(1960) ~ 제30권 제1호(2011, 동권 32호)
 합본 내역 : 제1권 : 1960(제1권 제1호) ~ 1987(제8권 제1호), 총 7권
 제2권 : 1987(제9권 제1호) ~ 1993(제14권 제1호), 총 8권
 제3권 : 1994(제14권 제1호) ~ 2002(제21권 제1호), 총 8권
 제4권 : 2003(제22권 제1호) ~ 2011(제30권 제1호), 총 9권
 합본 배부 :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총 20권)

3. 학술활동

1) 학회지 합본 발간

3) 제3차 정기이사회 : 2012년 8월 11일(화) 08:00. 프레스센터 전동차점
 안건: 학회지 합본 관련 편의의 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역사문화박물관 편의의 건, 학회
 기탁, 카페 가입 회원에 대한 건, 피에르 포샤르, 『Le Chirurgien Dentiste』 번역 사업의 건,

의 건, 기타

2) 제2차 정기이사회 : 2012년 6월 12일(화) 08:00. 프레스센터
 안건: '학회지 합본 사업' 추진 검토의 건, 치과의사학 교육과정개정을 위한 교수협의회 정기
 총회, 교안 발표 및 학술대회의 건, 피에르 포샤르, 『Le Chirurgien Dentiste』 번역 사업
 의 건, 기타

1) 제1차 정기이사회 : 2012년 2월 12일(화) 08:00. 프레스센터 전동차점
 안건: 대한치과의사협회, 응해의 봉사자* 추천의 건,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지원금에 관한 건,
 학회 회칙 정비의 건, 학회지 발간에 관한 건, 2012년도 정기총회 준비의 건, 2012년도
 사업 계획에 관한 건, 기타 안건

2. 이사회

1. 2012년도 정기총회
 2012년 3월 13일(화) 19:00,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회의실
 안건: 2011년도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의결,
 회칙 개정안 심의 의결.

학 회 활 동

- 5. 신임회원 : 김수관 원장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 권 훈 원장 (미래아동치과의원)
- 한상국 원장 (아름정치과의원)

4. 학회지 발간 : 제 31권 제1호 특권 33호, 2012년

- 5. 피에르 포샤르의 Le Chirurgien Dentiste (조영수 회장)
- 4. 영국 General Dental Council의 역사와 의의 (유미현 교수)
- 3. 치과의사학 교안 발간 보고 (최홍란 교수)
- 2. 치과의학사 연구 동향 (신재의 교수)
- 연계 및 연자 : 1. 의학사 연구 동향과 교육 현황 (연세대 의사와치과 연구회) (유미현 교수)
- 연시 및 장소 : 2012년 6월 23일(토) 14:00,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장부속회의실
- 3) 치과의사학 교육과정개편을 위한 교수협의회 정기 총회, 교안 발표 및 학술대회

참가 인원: 170명 (사전등록 130명, 현장등록 40명)

- 4. 치주치료의 철학 (류인철 교수)
- 3. 치의학 역사 산책 (이병태 원장)
- 2. Reciprocation를 이용한 근관형성법 (배광식 교수)
- 연계 및 연자 : 1. 치과위생사제도의 발상과 정착과정 (김중열 교수)
- 연시 및 장소 : 2012년 12월 15일(토) 오후 3-7시. 서울치대 대학원 강의실

2) 학회 종합학술대회

大韓齒科醫史學會 인원

회 장	조 영 수	간 사	변 영 단	중심명예회장	이 한 수
부 회 장	이 준 규	간 사	배 광 식	고	김 정 관
부 회 장	류 인 철			고	이 병 태
총무책임자	김 평 립	정보통신이사	김 종 만	고	박 승 오
대외협력이사	박 준 봉	정책이사	조 영 식	고	문 계 의
피용이사	이 흥 수	기획이사	전 민 용	고	김 평 립
피용이사	박 용 덕	연구이사	최 창 관	명예회장	배 광 식
피용이사	박 성 근	국제이사	이 우 철		
피용이사	박 호 원	이 사	홍 경 태	자문위원	김 종 만
화물관리이사	이 주 연	이 사	인 용 순	자문위원	김 증 열
이 사	정 진 형	이 사	김 희 진	자문위원	차 혜 영
이 사	김 채 형	이 사	김 명 기	자문위원	허 정 규
이 사	권 호 근	이 사	강 신 익	자문위원	홍 예 포
이 사	이 종 관	이 사	박 덕 영	자문위원	백 대 립

大韓齒科醫史學會誌

The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제31권 제1호 동권33권 2012년

Vol 31, No 1, 2012

2012년 12월 27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조 영 수

편집인 이 주 연

발행소 大韓齒科醫史學會 110-070 서울시 중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오피스텔 3-302

전화 730-2203

전송 730-2229

Homepage cafe.daum.net/denhistory

이주연
신재의
순우성
정인표, 순우성
권
한서곤
이니스트 피셔

한국 치과의료공리의 역사적 흐름
1907-1908년 치과전문학교를 수학한 권영재
서양 근대 치과교정학의 발달
턱교정수술의 발달
치과이시학으로 떠나는 유럽여행
치과의 언어
부족어 맥물린의 백두산 탐험